

Style

조선일보

FALL 2015

ART + CULTURE



Paulin, Paulin, Paulin
at Galerie Perrotin, Paris,
including Mike Bouchet,
Pierre Paulin, Xavier Veilhan
and John De Andrea works.



Dior

FINE JEWELRY

Rose des vents 로즈 드 방 컬렉션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 라피스라줄리와 터키석.



29



10

INTERNATIONAL ART SCENE

ART FAIR REPOT - FIAC & FRIEZE 2015 예술을 품은 공간형 콘텐츠, 체험 경제의 꽃이 되다

글로벌 아트 시장을 둘러싼 변화의 기운 글로벌 미술 시장의 변화 양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의 현실.

HERNAN BAS 1978년생, 미국 태생의 작가 헤르난 바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다.

CHINA SPECIAL

A NEW ART CITY 다소 풀이 죽은 듯 보였지만, 상하이 중심지로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국 미술.

할나의 진실을 모색하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차세대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장언리를 만나보자.

아리리오갤러리가 상하이로 간 까닭은? 아리리오 김창일 회장에게 직접 듣는 중국 미술 시장의 변화.

KOREAN ART SCENE

예술 후원자의 진정성을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수를 쳐주는 새로운 패턴의 문화를 알아본다.

단체화 열풍이 반갑고도 걱정스러운 이유 단색화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점차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인기관심이나 논쟁도 뜨겁게 돌아오고 있다.

이우환, 안익진 예술가 작가 이우환은 한 지역, 한 국가, 한 문화나 예술에 묶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한다.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에, 한국 아티스트 7인의 자상 갤러리.

미국에도 자치지 않고 김동무처럼... 미술 평론가 강수미가 추억해본 미술가 천경자의 작품과 삶.

ART MANAGEMENT

ART & LUXURY BRANDS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사례와 영리한 브랜드들의 아트 경영을 살펴들어다본다.

SPACE & PEOPLE

세계 디자인을 움직이는 여인들 보수적인 남초 현상이 은근히 극심한 이탈리아 디자인계지만, 유독 이 영역에서는 2명의 여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독보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로사나 오를란디와 니나 아사브라.

ARIK LEVY 심미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디자인과 자아를 표출하는 아트를 결합하는 아릭 레비와의 대화.

자연과 함께하는 21세기 건축을 말한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해 방한한 이토 도요를 만나 거장의 사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하위문화의 유쾌한 반란 - OZMO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문화 사절로 떠오른 이탈리아 스트리트 아티스트 오즈모를 만나 스트리트 아트의 현장감 있는 실상을 살펴봤다.

MISCELLANEOUS

현대미술과 에로스의 관계? 현대미술에 죽음의 욕망이 판친다. 다행히 삶의 욕망인 에로스도 만만치 않다.

고성을 거닐며 영감을 만나다 시각예술가 한성필 작가가 최근 평온한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적 영감을 담백 받는 특별한 유럽 여행을 떠났다.

THIS IS HOT 제주 허도리의 디스 이즈 핫은 미술관 못지 않게 흥미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아트에 작은 샐렘을 느끼는 이들에게 미술에 관심이 있지 만 아직은 입문이 망설여지는 이들을 위한 친절함 가이드.

미술 애호가를 위한 아름다운 특권 미술관과 갤러리의 특급 강요와 멤버십.



38

Style 조선일보

ART+CULTURE

가구는 말라보 가구 디자인의 대가 피에르 폴렝(Pierre Paulin)의 작품. 의자와 카피 테이블은 'Jena' 시리즈(1985), 카펫은 'Jardins à La Française'(1985), 그리고 허안 테이블은 'Cathédrale'(1981)이다. 천장에 달린 모빌 작품은 자바르르 베인장(Xavier Veilhan)의 Mobile n°21(2015)이며, 벽에 걸린 그림은 마이크 부셰(Mike Bouchet)의 작품 'Kilouiljoy'(2015)와 'Frontier Walks'(2015)다.

사진: 클레어 톨(Clare Toll), © Xavier Veilhan ADAGP, Paris, 2015. Courtesy Paulin, Paulin, Paulin, Pares Projects and Galerie Perrotin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갤러리 페로렝이 지난 10월 말 파리에서 시작한 전시 <Paulin, Paulin, Paulin>에서 선보인 설치 전경. 카펫에 누워 있는 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극사실주의 작가 존 드 안드레아(John De Andrea)의 2006년 작 'Amber Reclining'이다. 이 전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계속된다.

Style 조선일보 FALL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 고성민 amazing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빈
 광고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포르쉐는 Mobil 1을 권장합니다.

www.porsche.co.kr

모두를 뛰어넘는 유일한 가치.

앞서가는 리더를 위한 단 하나의 존재.

파나메라는 이것을 에디션이라 부른다.

**Take the Lead.
The Panamera Edition.**



-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Panamera Edition Diesel 120,600,000원 배기량 2,967cc, 자동 8단 팁트론닉 S, 도심연비 9.8km/L, 고속도로연비 14.7km/L, 복합연비 11.5km/L, CO2 배출량 및 등급 175g/km 4등급, 공차중량 2,070kg.
Panamera Edition 4 122,300,000원 배기량 3,605cc, 자동 7단 PDK, 도심연비 7.0km/L, 고속도로연비 10.7km/L, 복합연비 8.3km/L, CO2 배출량 및 등급 215g/km 5등급, 공차중량 1,89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포르쉐 차량 시승 및 문의는 공식 포르쉐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포르쉐 센터 대전 02.2051.0911 / 포르쉐 센터 서초 02.440.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판교 031.729.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서현 031.735.0911 / 포르쉐 센터 일산 031.813.0911 / 포르쉐 센터 인천 032.450.3000
 포르쉐 센터 대전 042.862.0911 / 포르쉐 센터 대구 053.768.0911 / 포르쉐 센터 광주 062.526.0911 / 포르쉐 센터 부산 051.749.091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스탠리 큐브릭>
 2012년 <팀 버튼>으로 인가를 받았던 서울시립미술관이 <스탠리 큐브릭>전을 선보인다. 뉴욕 출신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아이즈 와이드 섯>, <시계 태엽 오렌지> 등의 걸작으로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아시아 최초인 이번 전시를 통해 1999년 그가 타계하기 전까지 연출한 19편의 영화와 관련 소품, 세트 모형, 각본과 메모 등 1천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거장의 유산을 통한 신선한 영감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전시 기간 11월 29일~2016년 3월 13일
문의 sema.seoul.go.kr



국제갤러리 <김홍주>
 이토록 아름다운 꽃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 김홍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독특한 극사실주의풍의 풍경 그림을 선보이며 회화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작가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꽃 그림 연작은 비전통적인 화면 구도에 세밀화 기법을 사용한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받아왔다. 작가는 배경을 과감히 생략해 꽃잎 또는 나뭇잎 하나만을 화폭에 가득 채워 넣는다. 이 과정에서 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상을 벗어나 하나의 추상적인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시 기간 12월 17일~2016년 1월 24일
문의 www.kuljegallery.com



한미사진미술관 <몸의 말>
 사진 언어는 몸이 하는 말과 흡사하다. 인공은 다양하고 정교한 기호를 사용해 감정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감정을 숨긴다. 그래서 몸의 언어는 논리적 언어가 채울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며, 말로 전할 수 없는 감정의 이면을 몸짓으로 발산한다. 재현 대상이 현실인 사진은 사물의 반사광이 감광성을 띤 지지체에 닿으면 저질로 생겨나는 코드 없는 이미지이고, 이것이 내면의 충동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튀어나오는 '몸의 말'과 닮았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몸이 하는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국내외 작가 34인의 작품으로 만나보자.
전시 기간 10월 17일~12월 31일
문의 photomuseum.or.kr



DDP <간송문화전 5부: 화훼영모- 자연을 품다>
 김홍도가 동물도 즐겨 그렸다는 사실을 아는지? 예로부터 군자는 동물을 즐겨 그렸는데, 동식물은 인간과 공생하며 자연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화훼영모란 꽃과 풀, 날짐승과 길짐승을 일컫는 말이다'지만, 실제로는 모든 동식물을 소재로 한 그림을 화훼영모화라 불렀다. 1년에 두 번 전시를 하던 간송미술관이 지난해부터 DDP에서 전시를 시작했으며, 이로써 다섯 번째 전시를 맞이했다. 신사임당, 공민왕, 신윤복 등 당대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의 동식물 그림을 감상해보자.
전시 기간 10월 23일~2016년 3월 27일
문의 www.ddp.or.kr



갤러리 현대 <무신론 보고서>
 신은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까? 진지종 작가의 <무신론 보고서>에서는 그가 평소 의문을 가져왔던 '신의 존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치 있게 풀어낸 설치와 영상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경 속 기적을 행한 예수와 역사적으로 종교가 행한 타락, 종교전쟁과 같은 모순된 상황을 한번 비틀어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과 과도한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상화된 신에 대한 실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전시 기간 12월 4일~2016년 1월 3일
문의 www.galleryhyundai.com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국외 여행을 많이 해보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 전통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땅의 깨달음-한국 건축 사진집> 발간에 맞추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영덕, 배병우, 구본창 등 사진작가 6명이 촬영한 전통 건축 10곳이 중심을 이룬다. 전시는 크게 3개의 주제로 분류하는데, 종교 건축물을 다룬 '침묵과 장엄의 세계', 창덕궁·수원화성과 같은 궁궐 건축물을 담은 '터의 경명, 질서의 건축', 그리고 사원과 정원, 민가를 촬영한 '살과 어울림의 공간'이 그것이다.
전시 기간 11월 19일~2016년 2월 6일
문의 www.leemuseum.org



보데 프로젝트 스페이스 @ 대구 <정물>
 독일 뉘른베르크의 보데 갤러리가 우리나라에도 갤러리를 오픈했다는 것을 아는지? 대구 앞산이 바라다보이는 수려한 경관을 과시하는 보데 프로젝트 스페이스 @ 대구는 개관 30주년을 맞은 현지 갤러리의 감정을 실려 유럽 작가의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디트리히 클링에, 하리 마이어, 크리스토퍼 램볼과 같이 조각, 유화, 설치 등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을 지향하는 작가들의 정물에 대한 시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
전시 기간 2016년 2월 1일~29일
문의 www.bode-galerie.de



D 뮤지엄 <9개의 방, 빛으로 깨우다>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하지만 대립미술관에서 새롭게 개관하는 D 뮤지엄의 첫 전시 <9개의 방, 빛으로 깨우다>는 금보다 더 반짝이는 감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트 아트의 가장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 필립스에서 '올해의 점'은 조영 디자이너로 선정된 플린 달북, 비트라 뮤지엄에 영구 소장된 cmyk 캠프를 디자인한 데니스 파넬 등의 작가의 9개의 방을 9개 빛의 스펙트럼으로 채울 예정. 설치, 영상, 사운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라이트 아트 작품은 추위에 풍공 얼어붙은 관람객의 마음마저 활짝시킬 것이다.
전시 기간 12월 5일~2016년 5월 8일
문의 www.daelimmuseum.org

INSIGHT

물론 '예술을 위한 예술'이 가장 아름답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보를 위한 예술은 더욱 아름답다. 첫눈 속류는 뚝배기처럼 당산비에 강렬한 영감을 선사할 겨울 전시 소식들.

Editor's Note

"예술이 밥 먹여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로 먹고살아가고 있지요. 얼마 전 만난 한 덴마크 아티스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직업을 밝히기가 경연책이요. 뉴욕에 가면 모든 사람의 직업이 아티스트인 것 같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치열하게 예술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티스트만이 아닙니다. 예술계를 둘러싼 생태계에는 다양한 일꾼이 존재합니다.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아트 마케터, 아트 매니저, 아트 컨설턴트, 미술사학자, 평론가, 미술심리치료사... 현재의 직업을 반드시 '먹고살기 위해' 선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들에게 예술이 '삶의 양식(food for life)'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싼 그림값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각종 페어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콘텐츠를 일상에서 즐기려는 인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러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술이, 특히 현대미술이 우리에게 미적 희열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 즉 '마음의 양식(food for thought)'도 제공해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예술은 때로 사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도 변화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예술의 가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세 딸 '삼신'으로 종종 비유됩니다. 번영과 결실을 의미하는 탈리아(Thalia), 기쁨을 뜻하는 에우프로쉬네(Euphrosyne),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글라이아(Agliaia)입니다. 세계적인 아트 딜러 마이클 핀들러는 모든 예술 작품도 이처럼 상업적(번영), 사회적(기쁨), 본질적(미) 가치를 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관습과 취향 때문에 각각의 가치에는 부침이 있다는 논지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예술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업계 종사자나 그들만큼이나 진지하고 열정적인 아트 컬렉터, 순수한 애정을 지닌 아마추어 미술 애호가에게 작은 메시지를 건네주는 듯합니다. 시대를 꿰뚫는 심미안, 저항 정신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가슴속 울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글 묶음이 '영혼의 양식(food for the soul)'이 되어주는 예술의 가치에 다가가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ART + CULTURE Edition>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고성연**





DDP (알레산드로 멘디니)

"삶은 아름다운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대형 전시다. 멘디니라는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가 여자 친구에게 영감을 얻어 만든 와이프인 '인나 G'를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 같다. 초기 디자인에서부터 최근작까지, 6백여 점의 작품을 11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어 더욱 뜻깊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파트는 건축 디자인, 디자인의 영적인 세계 등으로, 노장의 새로운 면모가 엿보인다.

전시 기간 10월 8일~2016년 2월 28일
문의 www.mendini.co.kr



토마스 파크 갤러리

<정성윤 Heart-less>

사촌의 영소, 토마스 파크 갤러리의 겨울 전시는 차가운 기계로 뜨거운 영감을 표출하는 정성윤 작가의 개인전. 'They Spin Like Nonsense'는 49개의 검은색 당구공이 49개의 물러 위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며 위태로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다. Two Hearts는 같은 크기의 검은 원판 2개가 다른 방향으로 구불구불 회전하며 미묘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전시명 (Heart-less)는 사랑을 잃은 자의 마음을 은유한다.

전시 기간 11월 3일~12월 5일
문의 www.thomasthespace.com



가나아트센터 <권옥연 회고전>

한국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 권옥연의 4주기 회고전이 열린다. 도쿄와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상징주의, 야수파,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미술 사조를 직접 경험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확립해 갔다. 가을에서도 뚜렷한 윤곽선으로 그린 대상은 푸른 색조와 전통적 소재가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 신비로운 작품으로 남았다. 회로애인과 같은 인간의 감성에 평생을 몰두했던 권옥연의 회화 세계를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의미 깊은 전시다.

전시 기간 12월 11일~2016년 1월 24일
문의 www.ganaart.com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나르지 못하는 새: 안창홍 1972~2015>

안창홍 작가의 작품은 굴곡진 한국사를 견뎌온 소시민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같다. 작가는 한국 사회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명의 개인을 다루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누군가의 사진은 변형되거나 리터치되어 작품이 되고, 관능이 사라진 신체는 전투와 같은 삶의 역사를 담아낸다. 대표작 '49인의 명상'을 필두로 맨드라미꽃을 그린 최신작까지, 작품 인생 40여 년을 사기 별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 11월 11일~2016년 1월 17일
문의 www.arariogallery.com



서학동사진관

<유기중-프로젝트 점, 선, 면>

전주 한옥마을의 사진 갤러리 서학동사진관이 중견 사진작가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 12월에는 유기중 개인전이 열리는데, 작가는 프로젝트 점, 선, 면 3부작을 통해 내면의 깊이와 존재의 단어를 이미지로 채집한다. 점과 점은 선으로 이어지고 포개져 하나의 인상으로 완성되며, 점은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고즈넉한 갤러리는 카페와 사진집 사재를 구비해 사색 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전시 기간 12월 5일~31일
문의 http://blog.naver.com/jungmiso77



KF갤러리 <Eye on Poland: 폴란드 현대 그래픽 디자인>

명동 한복판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멋진 갤러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그래픽 디자인이 유럽에서 인가되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 같다. KF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도 뉴델리의 아트 헤리티지 갤러리(11월 26일), 일본 세토우치 시라미미술관(11월 7일)과 거의 동시에 열리고 있는 세계 순회전이다. 폴란드의 포스트, 음반 앨범, 책, 잡지의 최신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단지 음악가 쇼팽의 나라로만 알려진 폴란드의 디자인 감각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갑다.

전시 기간 11월 19일~12월 5일
문의 www.k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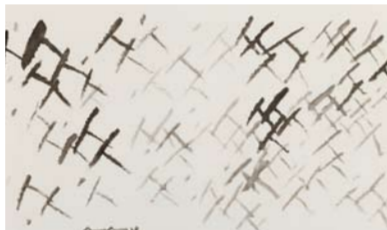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하룬 미르자: 회로와 시퀀스>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는 영국 아티스트 하룬 미르자였다. 이 상은 백남준과 같이 혁신적인 영향을 미친 예술가를 고무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됐다. 하룬 미르자는 사운드와 빛의 파장, 전자파의 상호작용과 마찰을 실험하는 독특한 작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수상자로 기히 손색이 없어 보인다. 미르자의 국내 첫 전시 <회로와 시퀀스>는 제목 그대로 전자파가 만드는 전자회로와 이를 끊임없이 점멸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 시퀀스에 주목해, 디지털 신호가 반복되는 전자 기적 공명의 공간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전시 기간 10월 29일~2016년 2월 7일
문의 njp.ggcf.k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세옥>

수묵화의 윤치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수묵 추상의 거장 신정 서세옥(山丁 徐世玉)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14년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기 별 대표작 1백 점을 소개하는 기증 작품 특별전으로, 1·2부로 나누어 구성돼 있다. 1부 전시에서는 1960년대 묵림회를 통해 추구했던 수묵 추상 작품과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생동감 넘치는 묵선과 야백으로 인간 형상 속 기운을 표현한 '사람들 시리즈' 약 50점을 전시한다. 2부 전시는 1990년대부터 최근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10월 27일~2016년 3월 6일
문의 www.mmca.go.kr

Carsten Höller: Octopus, 2014. Purple-coloured polyurethane, brown glass eyes, 40x17x120cm. Credit Carsten Höller / Courtesy of Gagosian Gallery



PKM갤러리 <카르슈텐 힐러>

벨기에 출신 미술가 카르슈텐 힐러의 국내 최초 개인전.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을 포함한 조각과 평면 작업 20여 점을 선보이는데, 카르슈텐 힐러는 2006년 테이트 모던에 설치한 대형 미끄럼틀 테스트 사이트로 관람자의 직접적 작품·공간 체험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기를 끌었다. 작가는 관람자가 생성한 환경과 작품을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 장소와 사물에 대한 지각, 인식 체계가 뒤집히는 경험을 선사하려 한다.

전시 기간 11월 25일~12월 31일
문의 www.pkmgallery.com



플라토 <임민욱>

로망의 명작 '자옥의 문', '칼레의 시민'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 우아한 공간이지만, 재기 발랄한 현대 미술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플라토의 다음 전시는 임민욱 작가의 개인전이다. 2007년 에르메스 미술상,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은 대단히 도전적이다. 1990년대 말부터 공동 창작이라고 할 만한 방법론과 상 황주의적인 태도로 미술계에 충격을 안긴 작가의 신작과 구작을 통해 망각된 삶의 상처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예술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을 것.

전시 기간 12월 3일~2016년 2월 14일
문의 www.plateau.or.kr



스페이스 1839 <남해안>

순천의 스페이스 1839는 사진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시, 출판, 워크숍을 진행한다. 2012년 설립 이래 1839 사진 창작 레지던스에는 15명의 작가가 입주해 작업해왔으며, 국내외 교류를 통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12월에는 레지던스 입주 작가들이 남해안 일대를 돌아보면서 만든 사진은 선보이는 <남해안> 전시가 열린다. 김규식, 김영경, 최창재, 윤정석 등의 작가가 참여하며, 순천민을 거점으로 목표로 부산까지 연장 377km에 걸친 남해안 벨트에 대한 창작 작업을 펼친다.

전시 기간 12월 16일~2016년 1월 15일
문의 061-742-1839



갤러리 구 <정윤경: In Sync>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윤경 작가는 사생활을 전공했지만 동양 사상에 심취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은 복합적이면서도 미묘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데, 세의 기쁨을 연상시키는 큰 맥락 아래 보이는 풍경적 추상화는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 질서와 혼돈의 충돌에 의한 공생 구도를 이끌어낸다. 작가는 또한 미래 생태 도시를 꿈꿨던 건축가 파울로 솔레라에게 영감을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작품은 지속적인 수축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미래 사회의 추상화와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전시 기간 11월 25일~12월 23일
문의 www.gallerykoo.com



the CASHMERE

CHEONGDAM AVENUE / HYUNDAI APGUJEONG MAIN / HYUNDAI TRADE CENTER / HYUNDAI PANGYO
GALLERIA LUXURY HALL WEST / GALLERIA CENTER CITY / SHINSEGAE MAIN / SHINSEGAE GANGNAM / SHINSEGAE CENTUM CITY

WWW.THEHANDSOME.COM

예술을 품은 공간형 콘텐츠, 체험 경제의 꽃이 되다

예술을 가리켜 자아를 표현하는 일이라고도 하고, '영혼의 통로'를 찾는 고독하고 승고한 작업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예술을 둘러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예술 자체의 본질과는 참으로 다른 느낌을 준다. 그 애뜻한 창작물이 아틀리에 밖으로 나와 상품으로 거래될 때는 극도로 상업적인 논리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희귀재인 미술품은 수급 논리에 좌우되는 상품이자 치밀한 마케팅 전략의 대상이 아니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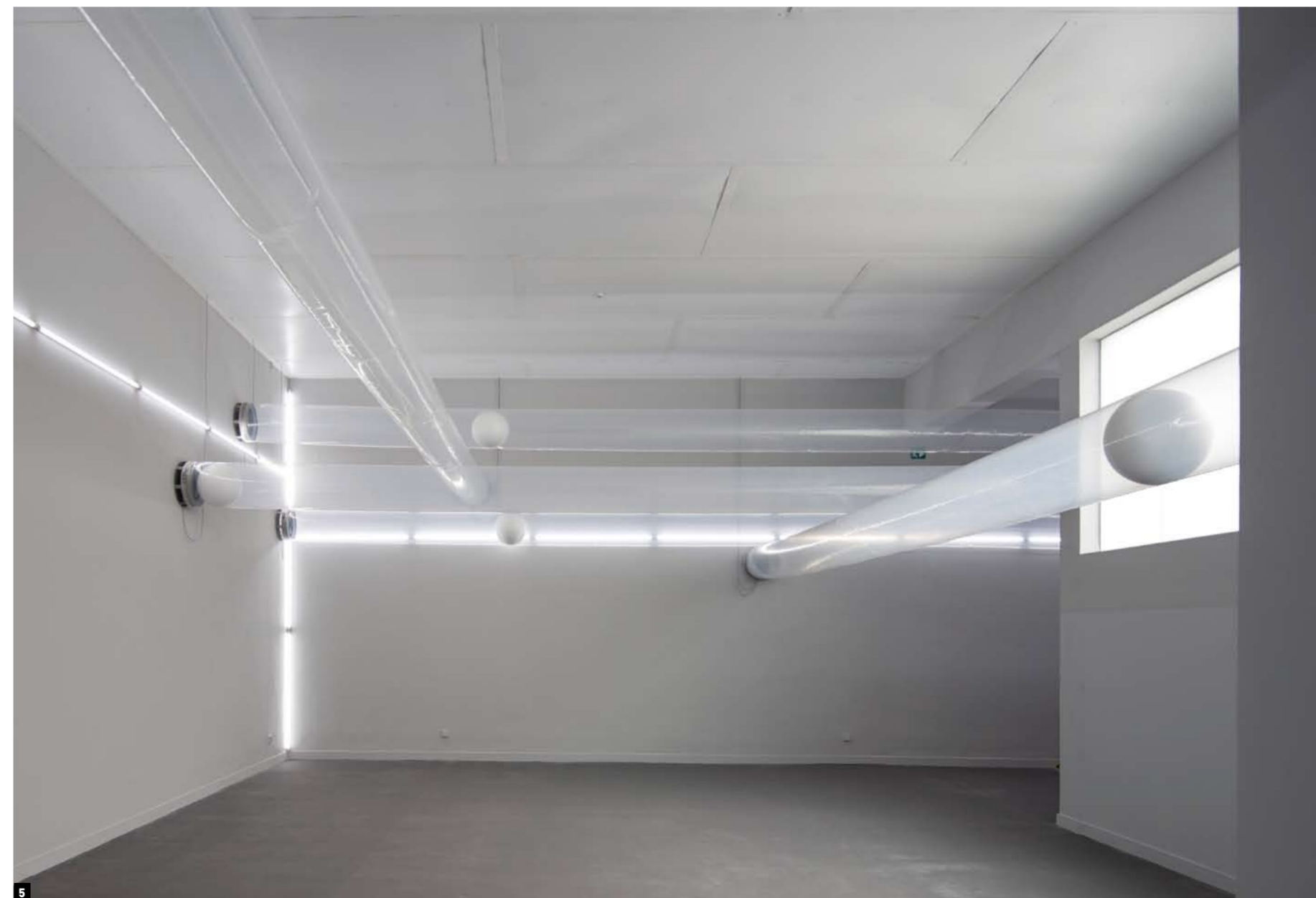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술을 포장해 선보이는 방식조차도 가히 예술이라 할 만큼 영민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아트 페어(art fair)와 비엔날레(biennale), 트리엔날레(triennale) 같은 화려한 공간형 콘텐츠는 그 중심에 있다. 요즘 국경을 막론하고 전시, 축제, 미술관 등 물입적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형 콘텐츠는 체험 경제 시대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로 무엇이든 거의 풀어낼 수 있는 기상의 시대에 오히려 발품을 팔아 생생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물며 콘텐츠 자체가 희소하고도 아름다운 아트라면 어떠하겠는가?

사실 굳이 정체성을 거론하자면 아트 페어는 대형 전시장에 상업 화랑들이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의 보유작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마켓이다. 하지만 요즘 내로라하는 아트 페어에 처음 가면 반하지 않기가 힘들 정도로 매력 넘친다. 근사한 공간을 채운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그 규모와 다양성, 실험 정신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최근에는 각종 부가 콘텐츠를 덧붙여 스토리텔링까지 선사한다. 꼭 미술품을 사려는 목적으로 방문할 필요도 없다. '억 소리 나는 작품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아트 페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유유자적 거닐면서 눈을 호강시키면 되니까. 미술 시장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의식한 듯 페어의 주제도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한층 신경 쓰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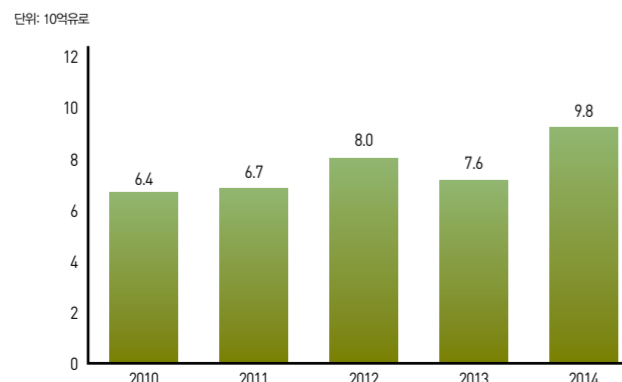
그래서일까. 특히 미술 시장의 활황세와 맞물려 한동안 존재감이 떨어졌던 아트 페어는 날개를 단 듯 '잘나가고' 있다. 또 장외에서도 콘텐츠가 풍성해지는 모양새다. 이 기간을 노려 여기저기에서 야심 찬 기획 전시나 행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트 페어가 열리는 도시는 마치 작은 축제를 맞이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다채로운 예술



과 재미를 담백 머금은 공간형 콘텐츠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갤러리들이 들고 나오는 콘텐츠야 별반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전시 공간을 둘러싼 분위기가 저마다 특색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다.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은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 위용을 뽐내며, '시크한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 FIAC은 우아하기 그지없는 궁전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만큼 도도한 세련됨이 묻어나며, 올해로 열두 돌을 맞이한 런던의 프리즈(Frieze)는 궁전 속 텐트를 전시 공간으로 삼는 파격을 보여준 '젊은' 페어답게 특목 튀는 매력을 발산한다. 또 페어는 아니지만 2년마다 개최되는 베니스 비엔날레나 일본 나오시마 섬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같은 예술 행사들은 숲 속을 거닐거나 바닷바람을 쐬며 휴식처럼 아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먼 길을 한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스타일 조선일보> 아트 에디션 창간호에서는 올가을을 저마다의 도시를 색다른 개성으로 물들인 FIAC과 프리즈 현장을 소개하면서 아트의 매력에 빠져볼 것을 권한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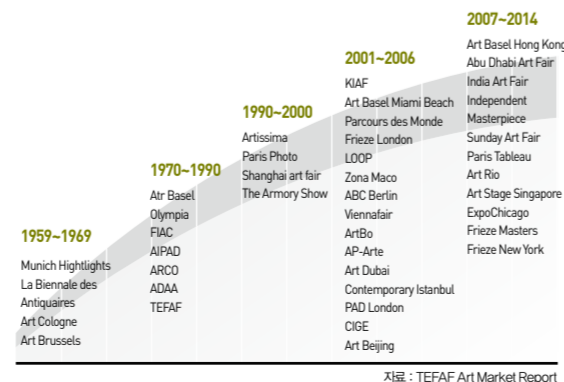


글로벌 아트 페어 판매액 추이(2010~2014)



1 '모든 세상의 미래들(All the World's Futures)'을 주제로 한 2015 베니스 아트 비엔날레의 대미를 장식한 이브세네르 전시 공간의 토틀. 가나 출신 이브라힘 마하미(Ibrahim Mahama)의 설치 작품이다. © La Biennale di Venezia 2 같은 행사의 한국판에서는 문경원, 진준호 작가의 7채널 영상 설치 작업 '축자법과 비행술을 디자인 피사드로 선보였다. © La Biennale di Venezia 3 아르세날레에 전시된 중국 작가 쉬빙(Xu Bing)의 설치 작품, '불사조(Phoenix)'. © La Biennale di Venezia 4 FIAC 2015가 열린 튀앙의 정원에 설치한 자비에르 클레페르(Xavier Veilhan)의 설치 작품. Photo Florian Kleinferrn © Veilhan/Fondation Le Corbusier/ADAGP, Paris,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향기리관에서 선보인 슈질라드 체케(Szilárd Cseke)의 설치 작업, '지속 가능한 신원들(Sustainable Identities)'. © La Biennale di Venezia

주요 아트 페어 타임라인



ART FAIR FIAC 2015



1 2015 미르셀 뒤샹상을 수상한 아르메니아 출신 프랑스 아티스트 멜릭 오희안(Melik Ohanian)의 작품을 선보인 갤러리 샤텔 크루젤(Galerie Chantal Crousel). © Sebastiano Pelloni di Persano 2 파리작업인 중국 아티스트 티안쑤오첸(Tianxuo Chen)의 2015년 신작을 선보인 베이징 화랑 롱 마치 스페이스(Long March Space) © Marc Domage 3 1991년 가주오 시라카가 천장에 매단 줄을 잡고 발로 그린 유화, '푸션'(181.9x258.4cm), 약 46억원에 판매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 The Estate of Kazuo Shiraga: Courtesy of Fergus McCaffrey, New York / St. Barth 4 파리 식물원에서 선보인 한국 작가 양혜규의 설치 작품, '정원의 자리'(Seat of Grandeur), © Marc Domage 5 밤 9시까지 개최되는 그랑 팔레의 화려한 유리 돔, © Marc Domage 6 글래스프를 갤러리에서 선보인 우고 룬디노네의 200년 작품 '사자 위에 아무도 없다'면, '월요일' (There were Anywhere but Desert, Monday)를 관람자가 흥미로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 Marc Domage 7 중국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설치된 튀일리 정원을 파리 시민이 산책하고 있다. © Marc Domage

파리의 가을밤,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 강 주위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았는데도 예술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1900년, 첨단 기술력을 예술화한 기마르 양식(Style Guimard)의 궁전 그랑 팔레(Grand Palais)의 유리 돔은 오후 9시까지 화려한 빛을 뿜는다. 웬만한 미술관과 페어는 6~7시면 문을 닫는 것이 유럽의 상례지만 FIAC 현장은 불야성을 이룬다.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트에 대한 파리지역의 남다른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폐관할 시간이라며 초조하게 방문객을 출구로 모는 직원들이 나타날 때까지도 이 궁전의 화려한 43m 유리 돔 아래에는 한 작품이라도 더 감상하거나 구매하려는 단정한 매무새의 관람객 무리로 분주했다.

위축된 경기에 이랑곳없이 아트 마켓은 고공 행진

지난 10월 22일부터 4일간 열린 42회 FIAC, 작년보다 참가 갤러리 수를 21개나 줄여 22개국에서 1백70개의 갤러리만 참여시키고 질을 높인 이 행사의 감독 제니퍼 플레이(Jennifer Flay)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유럽의 경기 침체는 철저히 예술계를 비껴가고 있다. 올해 경기 상승세를 타는 미국발 훈풍으로 아메리칸 컬렉터들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대중에 개방하기에 앞서 이뤄진 컬렉터와 VIP 방문이 끝나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판매 조짐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행사 직후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컬렉터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판매는 예년에 비해 상승세였다. 가장부터 신진 작가, 사진과 회화에서 조각까지 성격이 다양한 작품이 골고루 판매됐으며, 매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갤러리도 있었다. 회화에 오른 인물에는 발로 그림을 그렸다는 일본의 아방가르드 화가 가주오 시라카(Kazuo Shiraga)가 포함돼 있었다. 7년 전 고인이 되기 전까지는 세계 미술계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던 그의 작품 '뤼센'(Ryusen, 1991)과 가쿠에키(Kakueki, 1985)가 각각 약 4백만달러와 2백50만달러에 판매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늘 내가 소싯적 구입한 무명의 작품이 몇 년 뒤에는 세계 컬렉터들이 소장 목록에 넣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었다.

까칠하지만 예술에는 유독 관대한 파리지역

그래도 궁전은 궁전이다. 그랑 팔레라는 장소에는 분명히 범접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 파블로 피카소, 에니시 커푸어, 데이비드 호크니, 미술관에서도 좀처럼 실물로 보기 힘든 거장들의 작품이 몇 걸음 걸기 무섭게 나타난다. 가격을 책정하기 힘든 고가의 작품 앞엔 누가 만질새라 재복을 입은 경비원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쿨대 높기로 유명한 파리지역은 예술에만은 예외적으로 관대하다. 높은 예술 안목으로 따를 자가 없는 그들이러지만, 일단 마음에 들면 주저 없이 열렬히 밀어주는 것 역시 이걸 자가 없다는 말도 있다. 거장의 작품을 소장한 유명 갤러리들의 리스트에도 틈이 중견과 신진 작가들의 신작이 빼집없이 오르는 이유다.

수년 전부터는 대중화에 더 힘쓰는 모습이다. 다소 도도한 아트 페어에 인식되는 FIAC의 운영위조차 이러한 시류에 동참코자 2년 전부터 라 시테(La Cité de la Mode et du Design)에 신진 갤러리 위주의 위성 아트 페어, 오피시엘(Officielle)을 개최하고 있다. FIAC에 참여하지 못한 다양한 예술계 인사들은 장외 위성 전시를 확산시켰다. 작은 갤러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아트 페어 YIA도 올해 5회를 맞이했다. FIAC에 비해 부담 없는 가격의 중진·신진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찾을 수 있고, 다수의 작품 옆에 친절히 가격까지 쓰여 있어 일반인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쇼핑하듯 취향에 맞는 소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친근함이 있다.

하지만 굳이 비싼 관람료를 부담하며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파리지역은 평범한 일상 속에 걸여 들어온 예술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특히 정원 사랑이 유별난 파리 식물원(Jardin des Plantes), FIAC의 배려로 산책로를 거니는 이들 모두에게 최고의 작품들이 공유되는 예술의 보편성이 실현되는 장소다. 거동이 불편해 먼 길 나서기 힘든 노인은 휠체어를 타고, 육아로 분주해 레저는 사치라는 주부도 유모차를 끌고 평소처럼 찾은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을 만끽한다. 올해는 예술계 파워 1백 인 중 당당히 아티스트 1위(Art Review 선정)를 한 중국의 아이웨이웨이(Ai Weiwei), 일본의 건축 거장 구마 겐고(Kuma Kengo)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온 아티스트의 작품이 이들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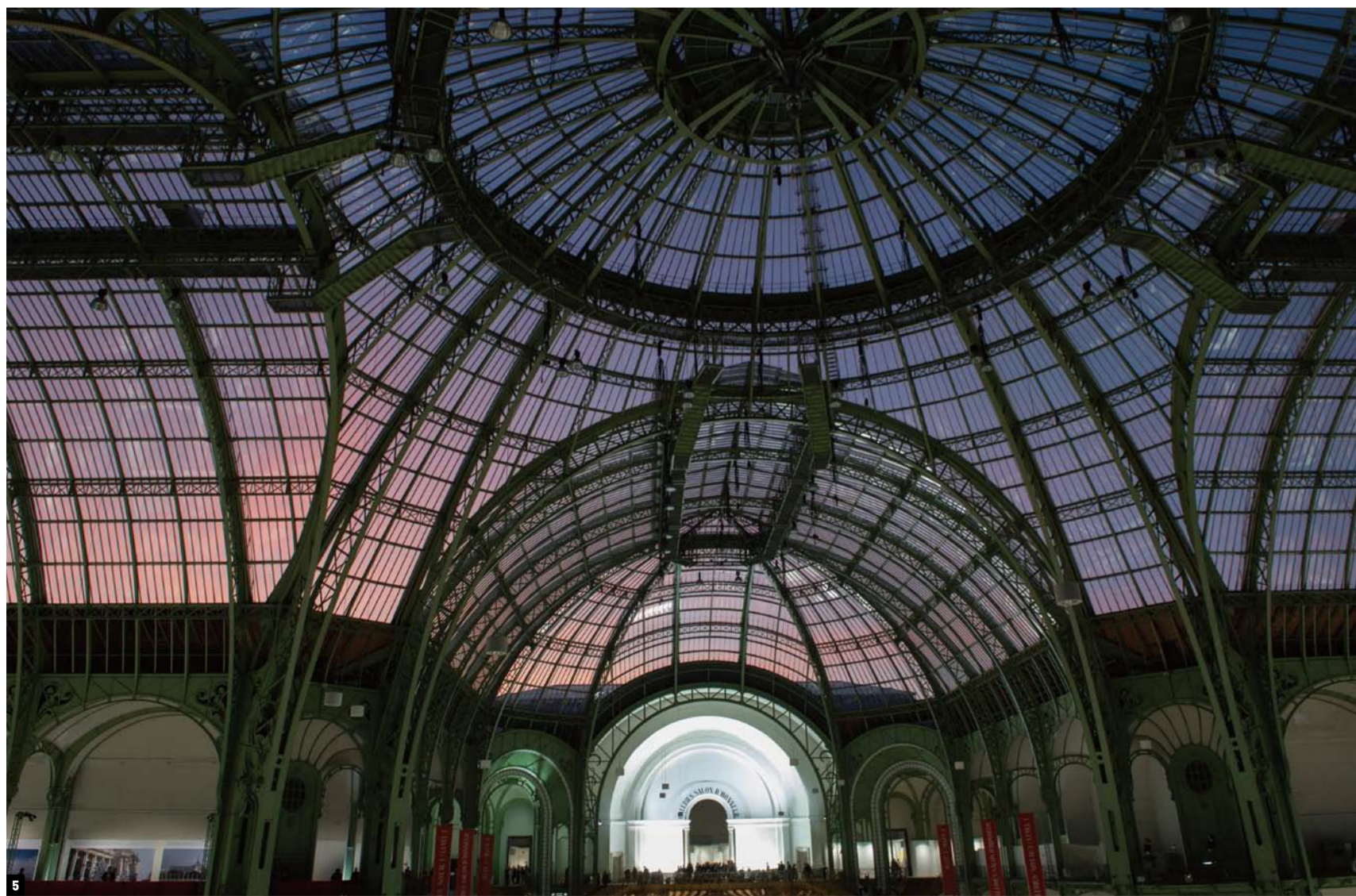


예술적 감성이 도시 가득 흐르는 파리의 밤

좋은 페어가 흔히 그러하듯, FIAC 기간에도 '장외' 풍경이 더 풍성하고 화려하다. 특히 예술 도시 파리의 진면목은 밤에 발휘된다. FIAC 기간 동안 하루를 지정해 파리 갤러리들이 일제히 야간에 개장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갤러리들의 전당인 생제르맹데프레 지역에서는 갤러리 투어와 밤 문화를 즐기는 아트 퍼플과 작품들 매개로 허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랑 팔레 부스에서 이미 방문한 갤러리들도 사내의 갤러리 본점을 찾으면 더욱 과감하고 생동감 넘치는 '전시 예술'을 접할 수 있다. 파리의 유명 갤러리 페로탱(Galerie Perrotin)의 경우, 극사실주의 조각가 존 드 안드레아(John De Andrea)의 실체보다 더 실체 같은 나체 여성 조각상들 사이로 나체 남성이 퍼포먼스를 병행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각상인 줄 알고 사람에게 다가가던 관람객들이 깜짝 놀라는 잔공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작가의 개인전을 하고 있는 갤러리 리샤르(Galerie Richard), 폐점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갤러리의 문을 두드려야 마침 외출하려던 대표가 직접 나와 웃음으로 맞았다. 뒤늦게 알아채고 사과하자 오히려 친절히 둘러보라며 나머지 공간의 불을 모두 켜고 직접 설명해준다. 한국 국적을 밝히자 1990년대부터 최정화 작가와 일을 진행할 정도로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그는 프랑스에서 약 10년째 한국 작가들의 흥미진진한 활약을 거침없이 들려줬다. 실험성이 가득한 현대미술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역시 이 기간 놓쳐서는 안 될 훌륭한 전시 공간 중 하나다. 페어 기간이 아니라도 밤 12시까지 개방하는 이곳은 언제나 프랑스 예술 감성이 충만한 훌륭한 전시 콘서트와 연출이 가득하다. FIAC 기간에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화제의 전시, <아이 러브 존 조르노(I♥John Giorno)>가 오픈했다. 미국의 시인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존 조르노를 칭송하며 그의 실험 정신을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 해석하는 이 전시는 아트 애호가들 사이에 크게 회자됐다. 큐레이션을 맡은 아티스트 우고 룬디노네(Ugo Rondinone)는 롤러스케이팅을 탄 스테프들이 관람객 사이를 돌며 조르노의 시가 적힌 색색의 종이를 랜덤으로 건네는 파격적인 연출로 전시 스토리텔링에 생명력을 더했다.

도시 구석구석 펼쳐지는 실험 가득한 전시와 퍼포먼스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라. 나흘 밤을 새워 다리품을 팔아도 도시엔 볼거리가 넘쳐나고 더욱 새로워진다. 후회 없는 아트 탐험을 기대하는 적극적 관람객이라면 이곳의 놀라운 전시를 준비한 큐레이터들만큼이나 자신의 동선을 꼼꼼히 큐레이션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글 **이민정** (다저인스튜디오 D3 대표)



ART FAIR Frieze 2015



1



2



3



4



5



6



7

수십, 수백억 하는 고가 미술품이 거래되는 아트 페어는 태생적으로 대중의 삶과는 거리를 둔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다. 주머니 두둑한 컬렉터는 넘치지만, 지갑 얇은 아트 마니아는 보기 드물다. 그래서인지 최고급 예술은 있을지언정, 다양성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된다. 이 점에서 런던에서 매년 10월 전후로 열리는 프리즈 아트 페어 런던(Frieze Art Fair London)은 다른 페어와는 빛깔이 사뭇 다르다. 런던 도심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이 아트 페어엔 미술 구매와는 거리가 먼 아이들, ‘알바로 겨우 월세를 내는 영국관 88만원 세대까지 넘친다. 대중의 눈높이까지 배려한 프리즈 런던의 면면이 흥미롭다.

공원 속 텐트에서 예술을 열다

2003년 처음 시작한 프리즈 런던은 런던이 가장 사랑한다는 도심 속 공원 리젠트 파크에 펼쳐진 텐트에서 열린다. 대개의 아트 페어가 컨벤션 센터에 부스를 만들어 그야말로 미술 ‘산업’의 현장을 보여주는 반면, 프리즈는 낙엽 쫓구는 런던의 가을 정취 한가운데에 있다. 하얀 가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내로라하는 세계 최고의 갤러리들이 어깨를 부대끼며 서 있다. 텐트라는 기발한 전시 공간은 런던의 고밀도 덕에 고안된 아이디어. 2003년 미술 잡지(프리즈)를 운영하던 아만다 샤프와 매슈 슬로터바는 아트 페어를 론칭하기로 하고 장소를 모색했지만 고밀도로 악명 높은 런던 도심에서 페어를 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고심 끝에 이들은 버룩시장처럼 반짝 생겼다 없어지는 텐트형 페어를 생각했다. 그것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조깅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도심 한복판 리젠트 파크에서!

‘텐트’, 그리고 런던 한복판의 ‘공원’. 이 두 조합만으로도 프리즈는 충분한 개성을 빛낸다. 런던이 어떤 곳인가. 고물가에 시달리며 플랫(아파트) 한 칸에 몸을 맡기고 있는 처지에도 길거리 예술가의 예술혼을 살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즐비한 문화 도시 아닌가. 프리즈는 바로 이 지점을 강점이자 정체성으로 삼는다. VVIP 컬렉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호주머니는 가벼우나 기교한 예술마저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런던의 일반인들까지 포용하는 아트 페어로 꾸러가기로 한 것이다. 프리즈 런던은 영국을 현대미술의 심장으로 만든 삼각 편대로 불린다. 프리즈가 시작된 2000년대 초는 데이미언 허스트 등이 이끄는 yBa(Young British Artists) 붐이 한창이었고, 여기에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테이트 모던이 막 개관(2000년)해 영국 현대미술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무렵이었다. 작가도 있고, 그걸 보여주는 미술관도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이런 붐을 받쳐줄 미술 시장이 부족했다. 잡지사 ‘프리즈’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트 페어를 시작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아트 페어로 성장했다.

미술은 늘스그레한 중년 백인 남자가 움직인다고?

지난 10월 13일에서 17일까지 런던 도심 리젠트 파크에서 열린 2015 프리즈 런던은 그 어느 때보다 프리즈의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한껏 보여줬다. 올해는 27개국 1백64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예술은 백만장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부스스한 얼굴로 전시장을 누비고 다니던 빅토리아 시달 디렉터가 전시장 안 카페에서 숨을 고르면서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프리즈 아트 페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2003년 시작된 프리즈는 2012년에 컨템퍼러리 이전의 예술을 다루

는 ‘프리즈 마스터스’, 2014년에 ‘프리즈 뉴욕’을 각각 시작하면서 가치를 뻗어나갔다. 이 세 가치를 합쳐 프리즈 아트 페어라 부르며, 빅토리아 시달은 이 세 페어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이제 서른여덟의 나이. 서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순수 예술을 다루는 미술계는 예외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이다. 이 바다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이 수장을 맡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리즈가 얼마나 젊은 감각을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프리즈는 젊어요. 컬렉터도 일반 관람객들도 젊지요. 미술 시장은 늘스그레한 중년 백인 남자들이 움직인다고 고정관념을 깨고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도전이랍니다.” 그녀가 플랫 슈즈를 고쳐 신으며 말했다. 젊은 관객 일수록 ‘디테일’에 예민하다. 매년 갤러리마다 가지고 나오는 작품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형태나 무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관객은 금방 싫증 낸다. 이런 이유로 프리즈는 매년 텐트 디자인을 바꾸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레스토랑까지 큐레이팅한다. 일례로 올해 텐트 디자인은 런던 올림픽 핏볼을 디자인한 에드워드 바버와 제이 오스커비가 맡았다.

휴식용 침대, 공짜 그림까지, 예술은 누구나 즐기는 것 부스가 빼곡히 들어찬 전시장 한가운데 침실 6개가 생겼다. 베게, 이불까지 완비! 침대마다 갤러리 부스 수백 개를 둘러 예술에 ‘몰린’ 관람객들이 하나둘 침대 위에 널브러졌다. 중요한 건 거미줄처럼 콘서트 곳곳에 깔려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다. 살짝 눈 불리고 허기 채우듯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관람객들은 집에서처럼 휴식을 취한다. 이 작품은 영국 아티스트 그룹 ‘AYR’이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까지 남과 공유하게 하는 속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엔비’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 ‘Comfort Zone’이다. 잠자면서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어 안심하는 디지털 시대의 서글픈 초상이기도 하다. 전시장 중간엔 탈의 불필요란 주의 사항을 써두고 일본 작가 가가 미켈이 1인용 책상에 앉아 마주한 관객의 얼굴을 쓱 훑었다. 그가 눈을 든 건 얼굴인데 30초 만에 그린 건 얼굴이 아니다. 여성 관객에게 가슴을, 남성 관객에게 성기를 그려줬다.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 속 도형처럼 변한 자신의 주요 부위 드로잉을 받아 든 이들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작품 가격은 0원. 부자 컬렉터가 아니어도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 전통적 누드화의 관습을 뒤엎고, 수십억, 수백억원이 넘는 작품이 오가는 아트 페어의 상업 논리를 보기 좋게 열차기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프리즈 전시장은 고가의 미술품 사이 근데근데 미술의 상업성을 비튼 예술 실험이 숨어 있었다. 13일 VIP 대상 사전 오픈엔 할리우드 배우 매트 데이먼과 그의 부인 루치아나 바로스, 운동화 차림의 베네딕트 캄베리치, 후술근한 트레 이닝복을 입은 엠마 톰슨,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가 전시장을 오가고, 세계 10대 컬렉터 중 하나인 중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 부디 텍이 유명 아트 딜러 제프 다이치를 대동하며 화이트 큐브, 페로렝, 가고시안 등 톱 갤러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들 셀러브리티들만이 전시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공식 오픈부터는 일반인 관객이 넘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관람객 85%가 일반인이었다. “고물가에 시달려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아도 예술 취향만은 뚜렷한 런던녀들과 예술을 나누야 한다는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예술을 많이 접어넣었지요.” 프리즈 측의 얘기다. 예술을 공공재로 받아들이며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인에게 공짜로 개방하는 영국의 예술 전통이 미술을 사교하는 자본의 장에서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글 김미리(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1 2015년 10월에 런던에서 열린 프리즈 아트 페어에 참여한 갤러리 페로렝 부스,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2 Galerie Eigen + Art 사진 Linda Nyind, 사진 제공 Linda Nyind, 프리즈 아트 페어 3 발롱 피는 고객의 휴식을 위해 부스가 빼곡히 들어찬 전시장에 놓은 침대, 영국 아티스트 그룹 AYR의 작품, 사진 Plastique Photography 사진 제공 Plastique Photography, 프리즈 아트 페어 4 독일 갤러리 Buchholz에서 출품한 마크 블로어의 작품, 사진 Linda Nyind 사진 제공 Linda Nyind, 프리즈 아트 페어 5 갤러리 SpruthMagers에 설치한 제니 홀츠의 작품, 사진 Linda Nyind 사진 제공 Linda Nyind, 프리즈 아트 페어 6 2행파우리의 이전의 예술을 다루는 프리즈 마스터스(Frieze Masters 2015)에 참여한 Karsten Schubert/Tomasso Brothers Fine Art 갤러리, 사진 Mark Blower 사진 제공 Mark Blower, 프리즈 아트 페어 7 전파 같은 기쁨을 찾아내는 극사실주의 작가 존 안드레아의 작품 ‘시애틀’,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프리즈 아트 페어



글로벌 아트 시장을 둘러싼 변화의 기운

최고가 기록을 잇따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세계 미술 시장. 신나게 상승 기도를 달리는 미술 시장에서 부익부빈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날 선 지적도 쏟아지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 바탕에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는 젊은 피가 등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물결에 거꾸러 부응하고 있는 글로벌 미술 시장의 변화 양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듯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본다.

2006년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경매 역사상 최초로 1억달러가 넘는 가격(\$102,168,000)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이 숫자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쉬이 깨질 것 같지 않던 기록을 남긴 채 2007년 전 세계를 휩쓴 경제 위기를 맞이한 미술 시장은 주춤했다. 2008~2009년에 접어들면서 금융 위기의 그늘이 미술 시장에도 드리우는 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난 듯하다. 세계 미술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2013년에는 기쁘게 예전 수치를 회복하면서 뜨거워졌으며, 지난해에는 활활 타올랐다. 2014년 미술 시장 거래액(판매액 기준)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5백1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 그 목적이 단순 투자든, 투자를 결심한 취미들 사이에 시장을 뒤흔드는 슈퍼 리치들, 그리고 분산 투자 대상을 찾는 기관 투자자들의 미술품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듯하다. 이처럼 '핫한' 세계 미술 시장을 두고 여전히 슈퍼 리치의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막상 그 내부를 살펴보면 블루칩 중심의 하이엔드 시장과 그렇지 못한 2~3군 작품들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앤디 워홀,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한 슈퍼스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애매한 중간 지대에 속한 작가나 신진 작가들은 별로 그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럼에도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변화의 기운이 감지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술계가 고고하고 쿨대 높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유연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디지털 시대를 겪으면서 저변이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풍요롭기 그지없는 글로벌 풍경에 비하면 다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 미술 시장에 오랜만에 감도는 긍정적인 기운도 반갑다.

‘핫한’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된 컨템퍼러리 아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글로벌 미술 시장의 중심에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미술을 지칭하는 이른바 컨템퍼러리 아트 가 있다. 지난해 전후·동시대 미술(post-war and contemporary art) 분야의 판매액은 미술 시장 전체 금액에서 절반가량(48%)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이 부문의 경매 기록이 거듭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 세계 미술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경매 중 하나인 크리스티 뉴욕의 예를 들자면 '전후·동시대 미술' 분야의 2014년 경매 판매액이 28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1년(1억1천8백70만달러)에 비해 약 23배나 높은 수치다. 경매 시장에서 현대미술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상주의를 제치고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의 우량주 작가들에 대한 '대접'이 갈수록 극진해지는 추세다. 경매 시장에서 1억달러를 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정도다. 프랑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 초상'의 세 가지 습작이 2013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1억4천2백40만달러를, 올해 5월에는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이 1억7천9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신흥 시장에서 부는 새 바람
 미술 시장 호황을 주도하는 세력을 보자면 중동, 러시아, 아시아 등에서 활약하는 신흥 컬렉터층이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미술 시장이 서구의 보수적인 컬렉터들에 의해 주도됐다면, 1980년대에는 일본의 입김이 거셌다. 모네, 고흐 같은 인상주의 작품을 대거 사들이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일본인 컬렉터들은 당대 최고가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그들은 아직까지도 인상주의 작품으로 한 몫을 톡톡히 보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거품경제가 꺼진 일본 대신 러시아, 중동의 부호들이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 부

호들까지 대거 가세했다. 슈퍼 컬렉터층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거물급 컬렉터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클럽 첼시 구단주로도 유명한 로만 아브라모비치, 최근 모스크바에 현대미술관을 연 그의 부인 다샤 주코바 같은 인물들이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연간 수억달러어치씩 미술품을 사들이는 카타르 왕실의 거침 없는 행보도 하이엔드 미술 시장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그 주도 세력으로 카타르 국왕의 딸인 셰이크 알-미야사 공주가 꼽히는데, 그녀는 카타르 왕실이 프라이빗 세일(비공개)로 2011년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을 2억5천9백만달러에 구입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고갱의 '언제 결혼하냐'를 미술품 거래 역사상 최고가인 3억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의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운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 역시 카타르 전 총리가 구입했다 하니, 미술계의 카타르 파워를 알 만하다. 중국 부호들은 초창기에 자국의 골동품과 서화에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서구 현대미술에도 눈을 돌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TEFAF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에서 중국은 미국(39%)에 이어 영국과 공동으로 각각 전체 거래량의 22%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파워
 큰손들이 초우량주에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을 투자하는 경향 탓에 미술 시장은 특정 작품에만 돈이 쏠리고 가격이 오르는 부익부빈익 현상이 지배한다. 하지만 모든 걸 숫자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법. 그 이면에는 투자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기도 하려는 미술 애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비의 핵심 계층으로 부상 중인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1980~2009년생)의 부자들고 고학력 중산층 등 젊은 애호

가들이다. 미술계에서는 10만~2백만달러어치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밀레니얼 컬렉터로 정의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컬렉터와 여러모로 다른 성향을 보인다. 구세대 컬렉터들이 체계적인 미술 잡지(아트 포럼(Art Forum))을 구독하고 미술 전문가의 조언과 갤러리 전시를 통해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 신중하게 작품을 구입한다면, 밀레니얼 컬렉터들은 요즘에서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세대답게 아티스트나 갤러리 관계자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을 구매한다. 날것 그대로의 정보 수집에 능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이면 장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구입한다. 작거나 컬렉터를 팔로하는 등 디지털 세대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오프라인 활동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아날로그 현장을 즐겨 찾고, 오프라인 인맥 쌓기에도 열심이다. 온라인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온라인 시장의 총 판매액은 세계 미술품 총 판매액의 6%에 해당하는 33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젊은 역사를 감안하면 꽤 의미 있는 수치다(국내 대표 경매업체 서울옥션의 온라인 매출도 6% 대로 성장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1천~5만달러대 작품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통계가 있다. 아직은 선분류 감이 있지만 온라인 경매는 미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보 컬렉터들에게 미술 시장으로 부담 없이 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트 페어 전성시대, Go Go Fairs!
 미술품 거래의 중요한 채널이자 축제의 성격까지 갖춰가는 아트 페어의 위상은 갈수록 늠름해지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1백80여 개의 주요 아트 페어가 열리는데, 특히 아트 바젤(Art Basel), 프리즈

(Frieze), 피악(FIAC) 등을 포함하는 상위 22위 아트 페어에 다녀간 총 관람객은 무려 1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아트 페어를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은 전체 미술품 거래량의 40%를 차지한다. 그런데 작품 판매가 아트 페어 직후에도 페어에 다녀간 손님들과 연락을 취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심지어 이 수치는 과소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주요 아트 페어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최됐던 요즘에는 아시아 아트 페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요 아트 페어 중 약 12%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됐다. 특히 2008년 출범한 아트 홍콩의 경우, 당시 경기 침체기임에도 묵묵히 세계적인 갤러리를 유치하면서 내실을 쌓았고, 2013년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 홍콩으로 거듭났다. 홍콩은 중국 자본까지 쉽게 유입 가능한 곳이라 아트 스포츠로 매력적이다. 또 1997년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문화 정책에 역점을 둔 전략도 현재의 위세에 보탬이 됐다.

한국의 미술 시장을 생각하다
 이러한 글로벌 풍경을 바라보다 한국에 눈을 돌리면 다소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아트 홍콩보다도 먼저 출범한 KIAF의 경우 최근 들어 아트 바젤 홍콩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그 위상이 약해졌다. 어포터블 아트 페어 같은 경우,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첫해에 1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저변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한국 미술 시장의 전반적인 풍경은 안타깝게 편이다. 그나마 최근 단색화 작

미술계가 고고하고 쿨대 높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서 점차 유연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디지털 시대를 겪으면서 저변이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1 1은 12월 19일까지 파리 갤러리 페로탱에서 열리는 헤르난 바스의 《Fruits and Flowers》 전시에서 소개한 'Private Bouquet(Suite of 8)' (2015), 사진 Claire Dorn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2 미국 마이애미 출신의 쿠바계 일러스트레이터인 헤르난 바스, 사진 Guillaume Ziccarelli 3 페로탱 개인전에서 선보인 최신판 'Odd Fruit'(2015), Acrylic on linen 152,4x121, 9cm 사진 Claire Dorn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4 2012년 PKM갤러리에서 열린 헤르난 바스의 개인전 《A Brief Suspension of Disbelief》, 사진 제공 PKM갤러리와 작가

Hernan Bas

컬렉터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비록 그것이 반드시 먼 훗날의 작품 가치를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동시대 미술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1978년생, 한국 나이로 아직 30대 후반인 미국 태생의 작가 헤르난 바스(Hernan Bas)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다. 수줍음이 꽤 많고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골수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그를 FTAC 아트 페어 기간에 파리에서 만났다.



세계적인 갤러리 페로탱이 자리한 파리 3구의 튀렌 거리(Rue de Turenne 76), 근처 카페에서 헤르난 바스의 작품 세계를 담은, 2백7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넘겨보고 있노라니 흠칫 쳐다보며 지나쳐가는 행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강렬한 색감과 몽환적이면서도 긴장감 흐르는 구성, 탐미주의적인 스타일, 그리고 그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연약해 보이는 소년 캐릭터들 때문일까. 확실히 그의 그림에는 시선을 확 잡아끄는 뭔가가 있다. 주로 얇은 리넨 위에 아크릴을 사용한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솜씨가 좋은 헤르난 바스. 추상과 뉴 미디어, 설치 작업이 지배하는 현대미술계지만 그는 꾸준히 회화에 몰입해온 작가 진영에 속한다(기금 다른 설치물도 하지만). 쿠바 출신의 부모를 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머리색이 짙은 그는 일찍이 커밍아웃한 게이 화가로, 초기에는 작품에 소년들을 유난히 자주 등장시켰는데, 묘한 성적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내면이 다분히 묻어났다. 엄청난 독서가이기도 한 그는 오스카 와일드 같은 작가의 탐미주의 문화와 낭만적인 신화에 푹 빠졌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19세기 고전을 어린 감성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어린 작가가 눈에 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Interview

플로베르의 글귀를 떠올리게 하는 정물화

올해 갤러리 페로탱 개인전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조금은 다른 느낌을 풍겼다. 꽃, 과일 같은 정물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을 최초로 소개한 전시였기 때문이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마침 갤러리 큐레이터가 달려와 “헤르난이 중간에 시간이 약간 뜨는 바람에 심심해한다”라고 전했다. 책을 덮고 카페에서 일어나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기자 하얀 벽을 장식한 그림들이 단번에 다시 한 번 눈길을 사로잡는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 뭔가 행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남자, 밀짚모자를 쓴 채 오렌지를 만지작거리려는 소년, 베니스풍 블라인드를 배경으로 놓인 꽃병 시리즈, 사과를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소년이 등장하는(원리엄 벨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들. 어떤 이는 이번 전시를 가리켜 (미담 보바리)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쓴 구절이 떠오른다는 평을 쓰기도 했다. 그는 사실 꽃과 과일을 그리는 정물 작업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고 했다. “처음 꽃을 그렸을 때는 스스로 괜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꽃에 블라인드를 둘러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 꽃 그림에는 전부 다채로운 색상의 베니스풍 블라인드가 달려 있다. “그래도 꽃은 그 자체로 열심히, 꼼꼼하게 완성했

어요.” 이렇게 덧붙이며 그는 미소 지었다(그래서 블라인드 뒤에 꽃이 살짝 비친다). 그는 수줍음이 묻어나면서도 마이애미에서 지낸 젊은 작가답게 꽤 활달하게 수다도 잘 떨었다. 여전히 그 특유의 처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는 덜 느껴졌다.

니스의 따스한 햇살과 가장 마티스와 사랑에 빠지다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그가 지난해 여름을 보낸 남프랑스 턱부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니스에서 머물렀는데 가장 마티스에 완전히 반했다고(그는 데 쿠닝, 호크니 등 사대를 막론하고 선배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항상 얘기한다). “마티스가 살던 곳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그의 무덤에도 가고 미술관에도 가고 성당에도 갔어요. 니스의 풍광, 마티스의 색채에 매료되면서 저도 약간은 밝고 대담해진 것 같아요. 구성은 피에르 보나르의 영향도 받았고요.” 사실 마이애미도 햇살이라고 하면 많이 뒤쳐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도 더 안정을 찾는 것일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아요. 뭔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 좀 더 안정되고 밝아진 듯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쩌면 불안(angst)이 이제는 슬관처럼 몸에 배어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작품들도 왠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파트너(남자 친구)도 있고, 스튜디오랑 집도 있는데 그렇게 불평할 겨를이 없지 않겠냐면서 웃었다. 헤르난 바스는 우연히 14년 전 현재의 연인을 만나 그의 고향인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마이애미로 돌아간다고 했다.

커리어 20년을 바라보는 호기심 만발한 워커홀릭

하지만 그는 좀더 넓은 정원 기꾸기와 낚시, 독서를 빼고는 별다른 취미도 없이 일단 들어서는 ‘워커홀릭’이다. 그는 알코올리즘처럼 워커홀릭이란 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따분하고 권태로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듯하다”라고 했다. 물론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할 만큼 작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다(이번 전시 작품들도 여지 없이 첫째, 둘째 날에 대부분 팔려나갔는지, 작품 리스트에는 빨간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감사한 일이지. 신기하지만 제게는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옹호해주는 컬렉터들이 있었어요. 제가 후원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거나 하는 사교적인 성격이 전혀 아닌데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배후에서 제 커리어의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화랑에 저를 소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처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는 컬렉터 중에는 미술계의 큰손 루벨 부부도 있다. 앤디 워홀, 리처드 프린스 등 현대미술대가들의 작품을 신인 시절부터 사 모은 것으로 알려진 부부다. 그리고 보니 헤르난 바스는 참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네 살 때부터 그림에 눈을 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화가의 꿈을 버린 적이 없다는 그는 뉴욕의 미술 대학인 쿠퍼 유니언에 입학했지만 곧 마분해졌고, 자신만의 드로잉을 하고자 그만뒀다(그는 수업을 듣지 않으니 퇴학당했다고 고백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벌써 20년 가까이 하나의 커리어 여정을 꾸준히 밟아온 것이다. “사실 중진이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스스로 중진 작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다.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다. 리졸리(Rizzoli) 같은 저명한 출판사에서 작품집을 낼 정도로 괜찮은 커리어를 이미 쌓았지만 그는 아직도 젊다. 호기심도 무척이나 풍부하다(그래서 더 실 틈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고전문학을 읽고 사대를 가리지 않고 미술 서적을 사 모으고 읽고, 또 열심히 그린다. 요즘 관심 있는 작가 이름을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온다. 그래도 그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는 ‘우상’은 대부분 윗 세대다. 가장 동경하는 동시대 작가도 80대를 코앞에 둔 데 이비드 호크니이니 말이다. 그는 호크니가 인스타그램에서 ‘맛팔을 해준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순간이었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호크니가 최근 많이 선보이는 커다란 풍경화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작업 중’인 작품 사진을 보여줬다. 평생 가장 큰 규모로 시도한 ‘대작’인데, 곧 중국에서 가질 첫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귀띔하면서, 3년 전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전시를 한 적이 있는 그는 “제 ‘절친’도 한국인이예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죠”라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금방은 아니어도 작품을 갖고 꼭 다시 찾을 테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때쯤이면 또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된다. 글 고정연



A New Art City

한동안 무섭도록 타올랐다가 다소 풀이 죽은 듯 보였던 중국 미술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는 한결 성숙해진 모습의 다채로운 아트 피플들이 기성세대와는 성향과 기호가 다른 젊은 밀레니얼 컬렉터들과 함께 중국 미술의 미래를 밝히는 듯하다.



그리가 무섭게 스타일에도 취향에도 상관없이 팔려나 갔던 중국의 현대미술은 2007년 정점을 찍고는 이듬해인 2008년 말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위기를 맞았다. 국내에서도 요즘 중국 미술 전시를 찾아보기 어렵고, 베이징으로 진출했던 한국 갤러리들이 대부분 퇴거했다. 그러나 선부른 사망선고를 내릴 틈도 없이, 중국의 미술계는 다시 무섭게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시기의 주역이 예술가였다면 작금의 구원투수는 컬렉터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거 등장한 신흥 부호들의 자금이 점차 미술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덕분이다.

새로운 중국 신흥 컬렉터들, 나이트클럽도 아트 스폿으로 만든다

중국 본토의 신흥 컬렉터들은 대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격변기에 큰돈을 번 이들이 굳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라도(?) 않는다. 외제차, 큰 집, 화려한 보석과 시계를 사고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전문을 낚는다 그들이 종착한 지점이라 바로 미술 시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상하이 최대 나이트클럽 오너인 차오즈빙(Qiao Zhibing)을 꼽을 수 있다. 올라푸르 엘리아슨, 테이머인 허스트, 장언리, 양푸동, 리우웨이, 쉬젠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즐비한 그의 나이트클럽은 해외의 컬렉터 그룹이나 미술학도들이 꼭 들르는 일종의 아트 스폿이 됐다. 그리고 보면 아트 바젤 홍콩의 VIP 오프닝에 미술이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은 뽀빠머리의 아저씨들이 점퍼를 입고 유명하다는 갤러리마다 포진하고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이트클럽 사장님, 자동차 딜러, 부동산 거부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격변기에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운과 두뇌를 지녔고, 현대 미술을 가까이 받아들일 만큼 변화에도 열려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평범치 않은 사람들이다. 특히나 차오즈빙이 한 말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미술품을 사게 된 것은 나이트클럽을 크게 넓히면서 빈 벽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덕분에 세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마음이 밝아지고 비전이 넓어졌다”라면서 그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가 준비하고 있는 나눔의 선물이 2017년 개관을 앞둔 미술관이다.

미술관 불도 화끈,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긴다

차오즈빙의 미술관이 들어설 지역은 이미 부유한 중국 컬렉터들이 미술관을 앓다뒀 세우고 있는 웨스트밴드(Westbund) 지역. 지난 9월 제2회 웨스트밴드 아트 페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아트 페어 전시장 바로 옆에 아트 스페이스를 열어두고 미술관 개관을 환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인도네시아 화교 부디 텍(Budi Tek)이 2014년 문을 연 유즈 미술관(Yuz Museum)도 있다. 그가 2000년 고향 자카르타에 건립한 미술관이 1980년대 중국 미술 컬렉션을 주로 선보이는 곳이라면, 상하이에 세운 이 두 번째 미술관은 서양미술 중심의 컬렉션을 선보인다. 율가에는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인기를 끌었던 데인롭과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스타 작가 양푸동의 비디오 아트를 소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중국 현대미술 컬렉터로 유명한 리우이치안(Liu Yiqian)이 자은 롱 미술관(Long Museum)도 유즈 미술관 근처에 생겼다. 중학교 중퇴라는 보잘것없는 학력에 가방 공장에서부터 택시 운전이 이르기까지 온갖 일을 거치면서 지수성가한 인물이지만, 주식으로 이룬 그의 총 자산액은 무려 한화 6천백억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롱 미술관은 가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웅장하고 충고가 높은 건축 설계 탓인지 작품이 외려 초라해 보일뿐더러 관객에게도 위압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리우이치안이 소더비 경매를 통해 구입한 고가의 찻잔에 차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4백50억원대라는 어마무시한 가격도 그렇지만 단 10점밖에 남지 않은 귀한 명나라 시대의 국보급 유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컬렉터도 있다. 바로 중국 내 최대의 수입자 딜러로 큰 부를 축적하고 미술품 컬렉터이자 갤러리스트로 나선 양빈(Yang Bin)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미술관이라고 하면 크고 멋진 빌딩을 생각해

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하면서, 미술관이라는 콘텐츠를 구성할 인적, 지적 준비가 덜 돼 있음을 지적한다. 그도 한 때는 중국의 한 대학에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착수를 앞두고도 있었지만, 미술관이 설립되면 공산당 시절의 서예 작품들을 그곳에 전시하겠다는 총장의 발언에 모든 계획을 백지로 되돌렸다고 한다. 자신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나름의 방향성을 지닌 미술관을 생각했던 양빈과, 예술로 보일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모아놓은 곳이 미술관이라고 생각한 대학 총장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이다. 그 역시 지금은 자신의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다.

서구 컬렉터의 전범을 따르는 중국의 아트 피플

양빈의 발언은 2013년 홍콩에서 다비도프사 주관으로 열린 중국 컬렉터들과의 대담 자리에서 불거진 내용이다. 이 날 사회는 베이징 UCCA 미술관의 관광 필립 타나리가 맡았는데, 이 미술관은 중국에 사립 미술관 붐을 일으킨 근원지이기도 하다. UCCA라는 이름은 일찍부터 중국 미술에 눈을 뜬 벨기에의 컬렉터 부부 올렌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올렌스 현대미술 센터(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의 약자로, 율가를 양혜규의 첫 중국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UCCA는 명성이 대단하지만 운영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미술관의 초대 관장으로 영입했던 프랑스인 제롬 상스(Jerome Sans)가 중국인 큐레이터와 마찰을 일으켜 전 직원이 6개월 만에 사표를 내며 인적 구성이 모두 바뀌는 등 인사 문제에 의한 마찰이 심했고, 올렌스 자신도 소더비 경매를 통해 작품을 대거 판매하고 지금은 미술관을 떠난 상태다. 한편 올렌스에 비견되는 중국 미술 전문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가 다수의 작품을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M+ 미술관은 아시아 전문 미술관을 표방하며 2016년 홍콩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일찍부터 중국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미술관을 지은 이들은 모두 서구의 컬렉터들이었고, 그 중심지는 단연 베이징이었다. 이제 중국 본토의 컬렉터들이 이들을 모범 삼아 법적, 행정적 규제가 덜한 상하이를 중심으로 '뮤지엄 잇기' 붐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베이징에도 미술관은 여전히 솟아나고 있다. 한 컬렉터가 지은 레드 브릭 미술관이 새로 개관했고, 여러 예술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은 중국 땅에 아름다운 미술관을 짓는 일이 커다란 꿈이자 희망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술을 통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으며,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이 고취되는지를, 반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착 이들의 고민은 아직 가시화되기에 이르다. 앞서 소개한 홍콩 대담을 위해 모인 이들처럼 괄목할 만한 소장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어 구사가 가능하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를 이끌 만큼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 무리가 없는 중국의 컬렉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런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조차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미술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중국의 컬렉터를 소



개하는 각종 칼럼이 활발하게 나오도록 하고 있다. 또 그들 자신도 여러 아트 클래스에 참여함으로써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다비도프처럼 VIP 마케팅에 능한 명품 브랜드, 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처럼 예술 교육 이력이 풍부한 사교육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유명 대학들이 나서 진행하는 다양한 미술사 클래스가 유행이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작품을 수집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컬렉터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수혜' 받는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자우키와 같은 20세기 초기의 현대 고전 미술가의 작품들이 1백억에 넘는 고가로 뛰어오른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중국 미술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밀레니얼 컬렉터들의 부상, 뉴 제너레이션이 주도하는 중국 미술의 미래는?

그런데 그러한 중국 아트 피플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리우이치안의 롱 뮤지엄은 그의 아내 왕웨이(Wang Wei)가 관심을 받고 있다. 홍콩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열린 VIP 파티에서 왕웨이가 제프 쿤스와 함께 찍은 사진에는 이들 부부의 딸도 함께 등장한다. 뉴욕에서 아트 매니지먼트를 전공한다는 그녀는 훗날 왕웨이의 뒤를 이어 롱 뮤지엄을 운영할 후임자로 점쳐진다. 중국에서 만난 많은 예술가 중에서는 자녀가 미국에서 미술사나 아트 매니지먼트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통역해준 사례가 많았다. 소위 '밀레니얼 컬렉터라' 불리는 세대다. 그 선두에 선 시대가 바로 35세의 억만장자이자 아트 컬렉터인 K11 파운데이션의 에이드리언 청(Adrian Cheng)이다. 홍콩 굴지 기업 뉴 월드(New World)의 3대 경영인인

그는 이미 조부모 시절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가문의 후예다. 남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 예술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었다. 마치 UCCA의 건립자 올렌스가 벨기에의 공작 집안으로 선조 시대부터 외교관으로서 중국을 오가며 교류한 덕분에 일찍부터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도 비슷하다. 현재 청은 홍콩, 중국뿐 아니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팔레 드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 이사회 위원을 맡으며 국제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네트워크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부모 세대의 막대한 자산과 컬렉터라는 이름으로 확보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뉴 패트론(patron)들이 중국 미술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미래의 청사진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는 듯하다. 우선 세계 곳곳의 주요 미술계 인사와 전시가 앓다뒀 중국을 찾아오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상하이 아트 위크 주간에는 화이트 큐브, 제임스 코언, 하우저 & 위스, 페이스 갤러리 등 소수의 세계적인 갤러리들만 참여한 아트 페어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포토 상하이 페어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몇몇 갤러리들도 상하이에 분점을 내며 다시금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상하이 로크번드 미술관은 후고 보스 미술상의 아시아 파트너로 해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해온 미술상 사상과 전시를 아시아 버전으로 개최한다. 이제 멀리 유럽이나 미주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편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아트 신(scene)의 변화가 외부 동력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남긴다. **글 김연아**(아트컨설팅 대표)

1, 2 컬렉터 차오즈빙의 소장품이 즐비한 상하이 나이트클럽. 고가의 미술관 건물들이 공간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사진 제공 Qiao Zhibing Collection 3 런던 비비안 센터에서 2012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2013년 뉴욕 현대미술관을 거쳐 2015년 상하이 유즈 미술관에 소개된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의 레인 룸(Rain Room) 전시 장면 (2015.9.1~12.31). 사진 제공 작가 4 UCCA 미술관 양혜규 전시 장면 (2015.10.30~2016.1.3) © 국제갤러리 5 상하이 롱미술관(Long Museum, 龍美術館) 웨스트밴드(westbund) 지점 내부. 사진 제공 Long Museum





1



2



4

1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장언리 작가. 2, 4 장언리의 개인전 (사계) 전시 장면. Hauser & Wirth Somerset, 2015. 3.8~6.21 © Zhang Enli,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Ken Adlard 3 장언리 작품(한정화) 전시 장면. '풍경, 0렘라아 제노바 빌라 크로체 현대미술관(Museo d'Arte Contemporanea di Villa Croce), 2013, Courtesy the Artist, Hauser & Wirth and ShangArt Gallery. Photo by Anna Positano 5 장언리, '박스(BOX)', 공간 설치, 기법 크기 © Zhang En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6 장언리, '술집(Pub) 4', Oil on canvas, 170X150cm, 1998 © Zhang Enli, Courtesy the Artist and ShangArt Gallery

찰나의 진실을 모색하다

빛줄, 양동이, 종이 상자, 나뭇가지... 일상의 사물이나 풍경을 특유의 담백한 화법으로 '울조리는' 서정 시인. 이번 가을 상하이 아트 위크 시즌에 샹아트 갤러리에서, 타이베이 아트 페어 시즌에는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차세대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장언리를 만나보자.



3

나뭇가지 모두 떨어진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않다. 나무 기둥의 다양한 색, 그리는 순간의 촉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깎아지른 듯 도드라진 표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맑은 담채와 두껍고 진조하게 갈라지는 붓질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가을에 딱 맞는 나무 그림. 마치 첼로 소리가 나는 듯하다.

담담히 따뜻함이 묻어나는 붓질, 세계를 사로잡다

상하이로 무대로 활동하는 1965년생 중국 작가 장언리(Zhang Enli, 張恩利)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2006년 아트 바젤의 대스타로 부상하며 세계를 누비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0년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화가다. 2014년 홍콩 K11 파운데이션에서의 전시는 재단 이사 에이드리언 칭이 직접 큐레이터로 나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이기 때문임을 공공연하게 피력한 바 있고, 2015년에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계적인 갤러리 브랜드 하우스 & 위스(Hauser & Wirth)의 신관 서머셋 지점에서 미술관급 규모로 손꼽히는 공간을 '사계(Four Seasons)' 시리즈로 채우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캐릭터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중국 현대미술의 스타일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차별된 매력이 있다. 전혀 중국스럽지 않으면서도, 붓질이나 여백 등 동양화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예술 세계에 유니버설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단지 다르기 때문에 끌린다고 할 수는 없다. 이성적이며 냉소적인 듯하면서도 살짝 온기를 품은 손길이 남아 있는 듯한 그의 그림들은 웬지 함축된 언어로 담담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 같다. 정감이 어려 있으면서도 웬지 추운 계절의 온도가 이따금 느껴지는 점도 그의 작품이 드러내는 흥미로운 면모다. 알고 보니, 역시나 그의 고향은 추운 지린 성 지역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모든 미술 대학에 떨어졌



5

6

고, 간신히 우시(Wuxi, 상하이 근처)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순수 회화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제게는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작품처럼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를 지닌 그의 설명이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로 뽑는 이도 기교를 버리고 자유분방한 화풍을 펼친 청대(17~18C)의 진봉(金豊)이다. 현재의 스타일을 찾아내기까지 그에게도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었다. 1990년대의 강렬한 색채와 거친 필체로 구체적인 인물들 묘사하던 표현주의 스타일이 세계에 대한 그의 감정을 펼쳐내는 웅변이었다면, 지금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고개를 지긋이 돌려줄 뿐이다. 눈을 지긋이 감은 고수가 맘을 뻔뻔 흘리는 젊은이를 한 손가락으로 제압하듯, 힘을 빼고 쉽게 그린 듯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한 차원 높은 에너지와 지혜가 가득하다.

소외된 감성을 포착하려는 갈구에서 시작된 작품 세계

그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작품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자처하는 그의 바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 물잔이 있다고 짐시다. 그것을 치우면 자국이 남겠지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물 자국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그가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평소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물이다.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그만큼 흔하고 값싸기 때문에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되는 빛줄, 양동이, 종이 상자. 그들은 모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네 일상 그 자체를 돌아보게 만든다. 마치 나무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듯이, 묶이고, 풀리고, 구부러지고, 늘 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다양한 상태의 사물들 역시 저마다 제 개성을 드러내는 작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는 소외된 이들의 감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유명한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몰라도 장언리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감성이 묻어난다. 숨겨진 세계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 비밀의 문을 살짝 밀어 열어놓는 것. 우리는 그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그의 세계를 다시 관찰하는 이중의 관찰자가 된다.

내면의 감정과 이미지를 벽화에 투사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설레는 일이다. 2010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한 이후 시작된 그의 벽화 방식은 이탈리아의 크로체 빌라, 런던의 ICA 전시장으로 이어져 공간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물리적, 구조적 변화가 없이도 작가 내면의 감정과 이미지가 투사된 벽화 덕분에 완전히 다른 감성의 공간이 된다. "물건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작가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제시하는 듯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감정을 자극하고, 그로써 사물이 제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그것이 삶과 우주의 신비까지 닿기를 바라는 건, 작가 본인뿐 아니라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물 자국처럼 순간적으로만 일어나는 신비다. 그래서 다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연장하기 위해 작품에 몰두하게 된다. 별로 그린 것도 없는 듯, 여백 가득한 장언리의 작품 앞에 오래도록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글 김영애(이안아트컨설팅 대표)

아라리오갤러리가 상하이로 간 까닭은?

베이징과 뉴욕에 갤러리를 오픈했던 아라리오갤러리가 이번에는 중국 자본주의의 메카 상하이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대를 앞서나가는 심미안으로 아시아 미술계를 리드하고 있는 아라리오 김정일 회장에게 직접 듣는 중국 미술 시장의 변화.

10년 전 베이징에 진출한 아라리오갤러리가 지난해 9월 상하이로 이관한 데 이어 올여름에는 같은 지구 내에서 좀 더 넓은 단독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비즈니스맨이자 갤러리스트, 세계적인 컬렉터, 그리고 ‘킴김(CI KIM)’이라는 예명의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는 김정일 회장이 이끄는 갤러리의 행보인 만큼 ‘왜?’라는 궁금증이 치솟는다. “사업기든 미술가든 중요한 공통점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심미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대미술의 중심이 상하이로 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베이징, 2007년에는 뉴욕에 진출했고, 이제 다시 그 변화의 물결이 상하이로 옮겨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2005년 당시 김정일 회장은 아시아의 중요 도시인 베이징이 세계 미술계의 흐름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아쉬웠지만 앞으로 개방되면 파위가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를 매료시킨 중국 유명 작가들이 상인 갤러리의 전속 시스템에 익숙하게 여기지 않았고, 중국(정부)과의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아라리오 베이징은 자체 전시를 통한 작가 프로모션보다는 전속 작가들의 미술관 전시와 해외 프로모션에 초점을 맞춰 운영했고, 결국 상하이로 기지를 옮기는 용단을 내렸다.

상하이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미래는 확신에 찬 행보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는 상하이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쉬후이 구 쉬지아후이의 문화 예술 상업 콤플렉스로 조성되고 있는 형산팡 지구에 자리하고 있다. 갤러리 바로 인근에 시진핑 주석 부인의 단골 부티크도 위치하며, 근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문인, 건축가, 예술가가 모여 있는 고급 주택지이자 프랑스 조계 지역(Old French Concession)에 속하는 매혹적인 위치도 강점이다. 젊은 컬렉터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하이의 아트 마켓은 점진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주도 아래 예술포 보세구 출판, 황푸강 서안 개발, 아트 페어의 증가, 민영 미술관의 설립



1 최근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에서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던 김정일 회장(CI KIM)의 모습. 2 아라리오 상하이에서는 얼마 전 중국 작가 니오위의 전시를 열었고,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는 일본 작가 고키에 나와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 3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는 상하이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쉬후이 구 쉬지아후이의 형산팡 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등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동안 고민하다 오랜만에 다시 중국에 갔는데,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너무 좋아 다시 의욕이 솟을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하이는 개방적인 국제도시면서 현대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 정부 차원에서 예술 특구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웨스트브로드에 참고형 갤러리를 오픈할까 생각 중입니다. 1960~70년대 뉴욕 시의 진폭적인 지원이 잦은 폭락과 앤디 워홀을 탄생시켰듯이, 정부의 지원도 현대미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그는 2007년 뉴욕에 진출하면서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세계 진출도 어렵겠다고 느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심 상하이에 진출할 적기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미술에서는 경험만이 힘이 아니라 틀짜기가 됩니다. 때로 상처를 입어가면서 얻은 실천 경험이 지금의 아라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상하이 컬렉터들이 아라리오갤러리의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면 미술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2

중국 작가들을 둘러싼 고정관념이 흩어진다

지금 그에게 교류는 핵심 키워드다. 그는 아라리오 베이징 운영 당시에는 세계 미술을 중국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상하이에서는 아라리오 소속의 아시아 작가들을 중국에 소개하는 한편 중국 작가들을 위해 해외 프로모션을 하면서 아시아 미술을 세계에 적극 알리고 싶다고 했다. “중국 미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고, 저 역시 고정관념이 있었죠. 이제는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중국 신진 작가들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작가들을 중국에 소개해 현대미술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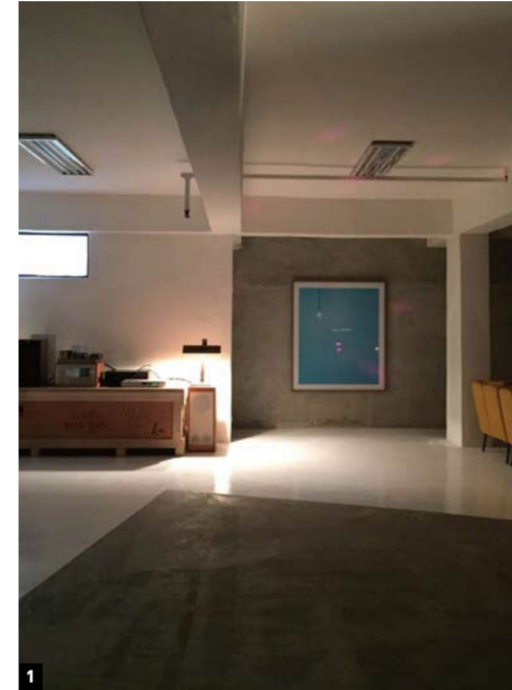
그는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가 이번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지난해 상하이 갤러리 개관전으로 인도의 스타 작가 수보드 곱타 개인전을 개최했고, 뒤를 이어 중국의 신진 작가 니오위, 일본 작가 고키에 나와의 전시를 개최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을 잘 몰랐기에 지도 인기 작가의 작품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니오위, 리칭 같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반해 신진 작가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요즘 중국 현지 컬렉터들도 현대미술을 보는 안목이 대단히 높아져 자국 작품 선호도가 점차 무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작품을 남발하고 판매에만 신경 쓰는 일부 작가들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1989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의 문을 열면서 데이비언 히스트의 마스터피스 천가와 ‘체러티’를 설치하는,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보기 드문 행보를 보인 김 회장. 그는 자신이 1981년 LA 현대미술관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 우리나라 땅에 아름다운 미술관을 건립하는 꿈을 갖게 됐다는 것. 그렇게 운명처럼 예술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현재에 이르러까지 그도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쳤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현대미술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인내와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름지기 예술은 10년이 아니라 1백년 뒤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글 이소영**



3

예술 후원의 진정성을 생각한다

단색화 열기로 한국의 미술 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늘 속에 가려워진 작가들이 많다. 언론이나 대중은 주로 거장이나 스타 작가, 떠오르는 블루칩에 열광하기에 중진 작가들은 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꾸준히 머물어가는, 때로는 의미 있는 변혁을 이뤄내기도 하는 ‘그네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새로운 패턴 문화’를 알아본다.



1

견 작가의 전시는 그들이 재조명받기 직전에 이뤄진 전시로, ‘미술관을 읽는 눈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현 부관장은 커리어의 정체를 맞았다가 레지던시에 들어오면서 돌파구를 찾은 작가들이 생겨나고, 작가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민한 작가들을 여럿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작가들 사이에서 기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겨난다. 운영 주체가 정말 작가들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후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술가와 함께하는 삶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금세 잊히기도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작업을 해온 작가들. 레지던시 운영의 진정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이런 작가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다. 경기도 남양주에 자리 잡은 (주)벤티코리아의 레지던시가 그 좋은 예다. 김대현 대표(이사와 이경임 갤러리 퍼플 관장은 기업가가 아니라 마치 레지던시 매니저와 큐레이터처럼 허물없는 모습으로 작가들과 어울리며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9명의 작가가 입주해 작업 중으로, 거주 기간이 2년 반에 이를 정도로 길다 보니 서로 간의 교류도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아트 상품 컬래버레이션으로, 문화 예술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예 공장 설립 시 작가들의 작업실을 함께 짓는 기업도 생겨났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2015년 10월 개관한 로얄화성센터다.

약 99,100㎡(3만 평) 정도의 부지에 전시장, 갤러리, 실내 체육관, 야외 음악당까지 갖춘 이 공장은 기무사 건물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한 민천시 교수의 지휘로 4년여에 걸쳐 완성됐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상하이의 파웬 스테이션 오브 아트(PSA) 등 남겨진 옛 공장을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아예 공장인 동시에 예술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센터를 만들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곳의 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한 갤러리 로얄. 지난 8년 동안 갤러리를 운영해온 김세영 갤러리 로얄 관장은 “겉으로는 기업이 작가를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도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갤러리 운영에 좀처럼 관여하지 않는 (주)로얄 & 컴퍼니 박종욱 대표도 사업가는 일관된 철학을 지녀야 하는데,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면서 레지던시형 공장을 만드는 결단을 내렸다고.

단순한 컬렉터에서 진정성 있는 패턴으로

10여년 전, 프랑스에서 이상차 화백의 전시 리뷰를 위해 전 시장을 찾은 적이 있다. 보도 자료를 챙겨주며 “우리작가 좀 잘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노신사가 있길래 갤러리 홍보 담당자인지 묻자, 자신은 ‘이성자의 친구들’ 모임의 대표라며 작가의 팬클럽을 자처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 전시장 뒤풀이에서, 또 다른 여러 행사에서 만난 이들 중에서 미술 관계자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래 직업

은 따로 있는데, 그저 작가의 후원자라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경우를 꽤 자주 접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기에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도 아트 컬렉션 문화가 ‘예술 애호가’의 차원보다는 미술 시장의 팽창과 함께 나타난 ‘컬렉터 문화’로 형성됐기 때문이었을 터다. 사실 한국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 작품을 싸게 구입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와 혼동되기도 하지 않았는가. 한동안 기업의 예술 후원도 검은 돈과 연결된 부정으로 보일 만한 사건이 줄을 이은 때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미술 시장의 세일즈 포인트는 ‘사투면 오른다’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미술 경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미술 시장 호황기에 작품을 구매했다가 그림을 되팔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공개된 투명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을 사고파는 데 치중한 ‘컬렉터’가 아닌 진정성 있는 ‘후원자(patron)’, ‘독자’(philanthropist)’의 등장은 미술계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산소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저 멀리 뉴욕, 파리, LA의 백만장자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지닌 소중한 자원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예술 후원의 방식이다. **글 김경애**(이앤아트컨설팅 대표)

1 리경 작가의 작업실. 2 갤러리 로얄의 모기업 (주)로얄 & 컴퍼니가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개관한 로얄화성센터. 약 99,000㎡(3만 평) 부지에 공장과 물류 센터는 물론 예술가의 레지던시와 전시장, 교육장 등을 갖췄다.



2

단색화 열풍이 반갑고도 걱정스러운 이유

단색화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점차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인기만큼이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야 국내 미술이 해외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시조나'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다면서 환영하는 기색도 눈에 띄지만, 이론적 토대가 빈약한 채 과열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들린다. 어쨌거나 모처럼 한국 미술이 주목받는 현상 자체는 반가운 기회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 시점에서 미학적 본질을 토대로 단색화라는 용어부터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 색깔이라는 뜻의 '모노크롬(monochrome)', 그리고 '그림(畵)'이라는 개념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흥미롭다.



1 정창섭 'Return 77-O'(1977), Mixed media on paper, 197X110cm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2 하중현 'Conjunction Conjunction 09-012B'(2009), Oil on hemp cloth, 194X280cm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와 작가 3 배·스비앤비레미컬발전 (단색화(Dansaekwha))(2015) 설치,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4 정성화, 'Untitled(無題)'(2011), Acrylic on canvas 41.0X31.7cm, 서울옥션 소장품 5 권영우 무제(Untitled)(1984), 한자체 과수, 먹, 165X116cm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와 작가



2

최근 미술계에서는 소위 '단색화' 열풍이 불고 있다. 각종 신문 잡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확산되는 열풍이라고 보도하고, 한국의 대표적 현대미술인 '단색화(單色畵)'를 표기할 때 한국식 발음에 따른 'Dansaekwha'라는 영어 표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드물다. 영문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단색화 열풍이 곧 터질 거품인지, 아니면 이제 출발점을 막 떠난 것인지, 과연 무엇이 진짜 열풍이냐고 새삼스럽게 묻기도 한다. 이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단색화 바람은 1970년대에 한국 현대미술계의 일각에서 부각됐던 미학적 가치가 이제야 세상에서 진정한 빛을 받으며 일어난 현상일까? 혹은 일부 상업 갤러리들이 추진한 비즈니스 전략의 영향 때문일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미술 경향은 대부분 미술사와 미학,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사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의 단색화 바람도 그러한 요소들이 밀접하게 맞물려 나타난 것인데, 그 연결 고리와 몇몇 역사적 사실만 제대로 이해하면 열풍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색화' 작가들의 다양한 방법론적 개성

작가마다 다양한 개성과 독특한 방법론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른바 '단색화' 작가로 분류되는 이들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시각적으로 각각 미묘하게 비슷하거나 조화된 색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박서보의 '묘법'을 예로 들어보자. 갈회색조나 청회색조 등의 오일 물감이 미처 다 마르지 않은

캔버스 위에 연필로 타원형을 연결하며 그러듯 자연스러운 선을 그려나간다. 반복되는 그 선은 규칙적이지만 획일적이지 않고, 타원의 형태는 비슷할 뿐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거친 붓으로 도자기에 안료를 바른 귀얄 무늬 분청사기 같은 모습인 듯, 무이지정으로 물레질을 반복하며 백자를 빚는 조선 도공의 손길을 통해 태어난 듯한 모습이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가난한 시절, 불경 소리를 들으며 신문 위에 펜을 휘적거리며 '긱' 시작했던 최병소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방법론을 취한다. 그는 "그리기를 부정했고 '칠하기'를 부정했다. 그는 "지우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없었고 비우는 것보다 더 큰 흥분함이나, 가벼움이, 기분 좋음이 없었다"라고 한다. 검은색 볼펜으로 신문지 앞뒤의 활자와 여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를 또다시 4B 연필로 지워나가면 신문지는 군데군데 찢기고 너털너털해져 이미 정보 전달의 사회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물질'이 되고 만다. 해외에서 그의 작품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마니아들이 적지 않은 데 비해, 시공간의 물질성이 매우 강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상의 특성 때문인지 단색화라는 타이틀을 내건 전시에서 그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색화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면 일종의 정신적 승화 상태로 느껴지는 최병소의 작품이 지난 반복의 미학과 1970년대 한국 사회와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우환은 '단색화를 언급할 때마다 "최병소는 대단히 중요한 작가입니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는 하중현. 그는 공장에서 하얀 제소를 칠해 화방에서 판매하는 흰 캔버스나 아니라 울 굵고 구멍 송송 뚫린 마대 천을 사용한다. 한국의 토담집을 연상시키는 황토색이나 회끄무레한 색의 물감을 흡수 같은 도구로 캔버스 뒤에서 밀어 올리고 앞에서 다시 밀어내기를 반복하는 그의 고유한 방법론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중국 회화에서 '양면 채색법'은 문자 그대로 종이의 앞뒤 모두를 채색해 선명도를 높이는 방식인 데 비해, 고려 불화나 조선 시대 초상화는 한지의 뒤쪽에서부터 물감이 배어 올라오는 은은함을 중시해 신비한 기품을 더해왔다. 전통적인 '배채법(背채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물감을 캔버스 천의 앞뒤에서 울 사이사이로 밀어내는 하중현의 작품 제작 방식은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적 잠재태(潛存態)가 한국 현대미술에서 되살아난 전형처럼 보인다.

'단색(單色)'이 아니라 '단색조(單色調)'

이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코 '한 가지 색'으로 된 그림(단색화)이 아니다. 1970년대에 각기 다른 독특한 방법론과 미학으로 한국의 추상미술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하는 박서보, 최병소, 하중현, 정성화 등의 전성기 작품들을 최근 유달리 '단색화'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말이다. 단색화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한 가지 색'으로 된 그림을 뜻하는 서구의 '모노크롬 페인팅(monochrome painting)'이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다. 따라서

'단색화(Dansaekwha)'라는 영어 표기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서구적인 '모노크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서구에서 개념이 확정된 용어를 쓸 경우, 어떤 번역어도 그 개념의 하위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일본의 미술 경향인 모노하(もの(は)나 구타이(ぐたい), 한국의 민중 미술(Minjung Misool) 등의 명칭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필자는 이들을 '단색조' 예술이라 불러왔다. 10여 년 전에는 단색조 회화라는 말이 필자를 포함한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통용되기도 했다. 최근 필자는 이 작가들의 작품을 '단색조 예술'이라고 확장 통칭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단지 회화의 범주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작품들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필자의 주장은 최근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전문가 특강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모노크롬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작품 제목으로 쓰고 자신의 푸른 색을 IKB(International Klein Bleu)로 명명한 것으로 유명한 작가는 프랑스의 이브 클랭이다. 그러나 클랭을 포함해 20세기 초 말레비치의 흑백 회화에서 이탈리아 작가 피에르 만초니의 아크롬(achrome, 색이 없다는 뜻)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서구 모노크롬의 범주에서 다루는 작가들 역시 단순히 자신들의 작품에서 한 가지 색의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또 정신성과 물질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이다.

역사적 기원, <다섯 가지 흰색전>과 이우환

1975년 일본 도쿄화랑은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韓國 五人の作家 五つのヒンセク)>이라는 긴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 그러나 그 전시는 이미 1970년대 초엽부터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화랑주 아마모토 다카시와 일본 비평가 나가하라 유스케(中原佑介), 그리고 재일 작가 이우환의 주도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미협이 주관한 제1회 양테팡당전(1972)에서 허황과 이동엽의 흰색 회화를 주목했고 서승원, 권영우, 박서보와 함께 5명의 한국 작가로 구성된 전시를 기획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기획하고 전시한 단색조 예술의 최초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자를 애호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것은 흰색이었던 것일까. 그들은 1970년대 한국에서 다시 발견한 '흰색'은 서구의 백색 모노크롬 회화에 비해 '백색은 도달점으로서의 하나의 색채가 아니라 우주적 비전의 틀 그 자체'(나가하라 유스케)라고 표현했다. 일본인들은 서구 모노크롬 회화에 비해 무언가 다른 한국 작품들이 보여주는 섬세한 중성색의 느낌을 말하기 위해 굳이 한국어 '흰색, 즉 흰새쿠(ヒンセク)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 측 비평가(이일)는 그들을 "혹시 모노크롬의 것으로 묶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이후 수많은 전시와 비평에서 한국의 모노크롬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서구 모노크롬이나 모더니즘 개념과 혼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용어의 사용은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 <다섯 가지 흰색전>을 추진하게끔 한 이우환은 1960년대 후반부



3

터 일본 모노하 운동의 이론적 자주로서 활약했는데, 1972년 한국의 명동화랑에서 모노하 맥락의 전시를 연 뒤에는 다시 회화 작업을 병행했다. 그러나 이우환의 예술은 '관계향'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탕으로부터', '조용', '다이얼로그' 등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뿐 한국의 단색조 예술과는 운동사적으로도, 미학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 굳이 관련이 있다면 그들의 한국인 예술가로서의 우정 관계 정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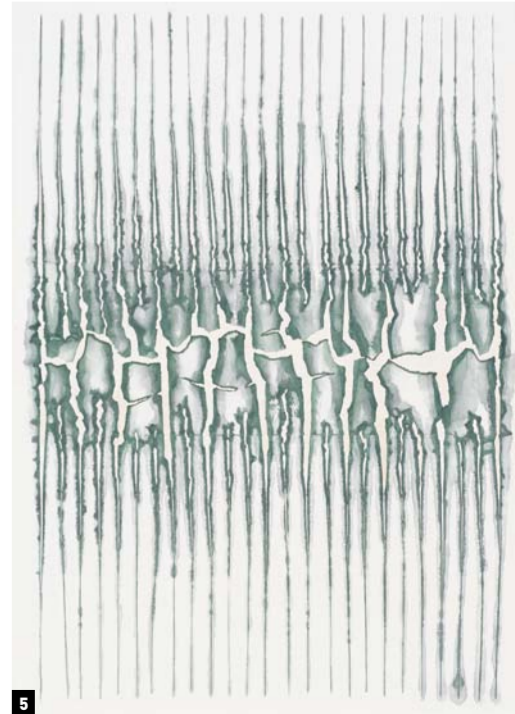
미학적 가치와 정치, 경제, 사회사

단색조 예술 경향은 그룹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만든 '흰색'의 개념에서 시작됐으나 곧바로 박서보 작가를 중심으로 한 <에콜 드 서울>이나 <서울현대미술제> 같은 대형 전시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됐다. 활동하는 작가들의 숫자도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했다. 1970년대의 '집단 개성'이라는 묘한 신조어를 낳으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미술 운동사로 비치기도 했던 그것은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을 국전 중심의 미술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미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조선 백자의 미학적 토대는 일본인 아나기 무넨요시의 미적 개념이다. 단색조 예술이 1970년대 일본인들의 조선 백자에 대한 향수와 식민지 시절의 미적 개념을 넘어서는 미학을 정립하려면 많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그것이 식민주의의 극복이자 기학(氣學)이나 성리학 등 우리 전통 사상과 문화를 현대미술에서 깊게, 새롭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서구 모더니즘 개념과 비교되는 미학을 논하는 하려면 현재 학계와 비평계의 아마추어리즘을 좀 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 단색조 예술은 언더그라운드 실험 미술과 달리 엘리트주의 어방가르드로서 견재할 수 있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양면이었던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했던 한국의 현대미술의 표상이던 단색조 예술, 그것이 오늘날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몇몇 학술 연구자들의 애정 어린 연구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며, 그 학술적 토대가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성과 맞물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 현상과 함께 발아된 단색조 예술이 이제 그 미학적 해석을 더하며 비평과 함께 성장할 일만 남았다.

글 김미경 미술사학 박사, 강남대학교 교수, 한국예술연구사(KARI)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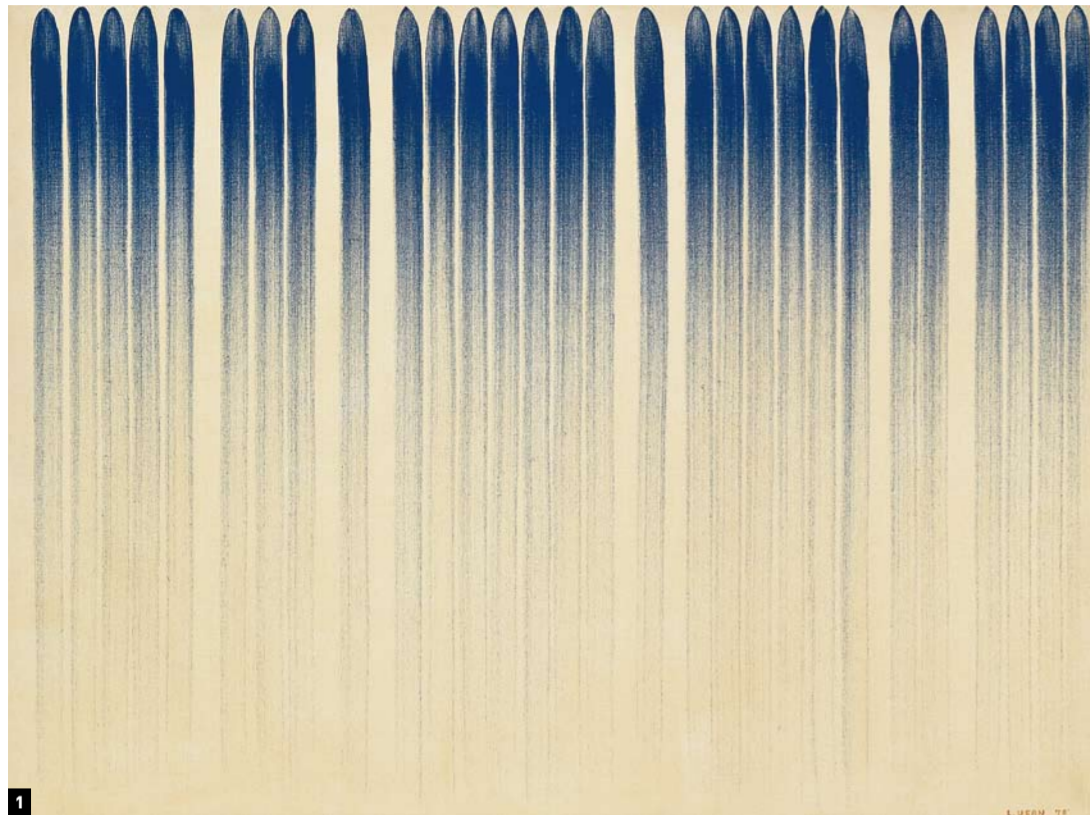
4



5

이우환, 양의적 예술가

작가 이우환은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서글픈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지구촌 일일생활권 시대가 되어 그의 삶이 오히려 미래적 인간의 지표가 되고 있다. 한 지역, 한 국가, 한 문화나 예술에 묶이지 않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렇게 그는 내부로부터 나가 외부와 만나고 대화한다.



1

작가들에 대한 책을 출판한 뒤에, 필자가 이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이나?”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양의 예술 - 이우환과의 대화 그리고 산책>(현대문학, 2014)이라는 책이 출판되자, 역시 “이우환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무수히 듣는다.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백 명의 작가를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작가들은 그들의 예술이 주는 느낌과 같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지나가거나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이기 때문이다.

‘...로부터, 도착지 없는 영원한 출발

이우환과의 대담집을 준비하면서 필자가 느낀 고충을 먼저 말한다면, 그와 일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마침내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마쳤다고 생각한 그 지점부터 이우환은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지점,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지점, 정말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숨을 한번 몰아쉬고 다시 시작한다. 결국 그 지점에서부터 일반인과 격차가 벌어진다. 여기서 그가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예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의 초기 회화 작업에는 시작을 의미하는 ‘로부터(From)···’(‘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는 있는데, 목적이나 도착지를 알리는 ‘···까지(to···)’는 없다. 그에게는 목적론도 없으며 도착지도 없다. 끝없이 새로 시작할 뿐이다. 이제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고, 평생 앓고 있는 ‘노독’에 지쳐 정착할 만도 한데, 어느 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늘 바깥 세계로 향한다. 이우환은 1956년에도 일했고, 1971년부터 유럽에 진출해 매년 6~7개월 이상을 유럽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찍부터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삶을 살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이라고 지칭되며,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서글픈 떠돌이’였다. 그런데 지구촌 유목민 시대가 되다 보니 그 같은 삶이 오히려 미래적 인간의 지표가 되고 있다.



2

1 선으로부터(From Line)(1978), 서울옥션 소장 작품. 2 이우환 작가, 관계항-별들의 그림자/Relation - L'ombre des Étoiles, (Lee Ufan Versailles)(2014. 6. 17~11. 2)를 배경으로, 전면에 있는 2개의 돌 그림자가 서로 만나고 있다. Photo by Simeunlog. 3 관계항-대화 X/Relation - Dialogue X, (Lee Ufan Versailles)(2014. 6. 17~11. 2), Photo by Simeunlog

‘대화’ 혹은 ‘만남’,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교통수단

필자는 이우환의 예술을 ‘양의 예술’로 보기 때문에 그를 양의적 예술가로 여긴다. 여기서 ‘양의적’이라는 것은, 양극 사이, 즉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를 무수히 오가는 것을 말한다. 그가 저쪽 끝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이쪽 끝 가까이에 있고, 또 다시 보면 중간쯤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쪽이란 자아, 내부, 완벽성, 근대성’ 등을 의미하고, ‘저쪽은 타자, 외부, 무한성, 탈근대성’ 등을 말한다. 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하는 교통수단은 ‘대화’ 혹은 ‘만남’이다. 그의 최근 작품의 제목이 ‘대화나 만남’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처럼 양의적 예술가를 서구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이우환을 소개할 때 ‘화가, 조각가, 철학자, 시인, 에세이스트 등’ 잔뜩 수식어를 달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철학을 공

부했고, 일본 교과서와 학력고사에는 규칙적으로 그의 시나 에세이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문학은 이우환에게 상당히 중요하며, 시는 그에게 영혼의 집이다. 그가 워낙 바쁘고 끊임없이 이동하기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와의 대담은 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뤄졌다. 그가 ‘시간의 축척’이라고 부르는 와인 한잔으로 긴장이 풀리면, 눈을 지그시 감고 시를 낭송한다. 매번 낭송하는 시가 다른데, 최소한 2, 3백 편의 시를 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구 미술계에서 그를 소개할 때, 수식어 없이 ‘작가 이우환’이라고만 소개한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 베르사유 전시 등을 통해 이미 익히 알려져서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를 잘 아는 비평가나 기자라면 어떤 긴 수식도 그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올해 베니스를 자주 드나든 예술 관계자들은 이우환 작가의 예술적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올해 초까지 베니스의 폰타 델라 도가나(2013. 5. 30~2015. 2. 15)에서는 이우환을 포함한 ‘모노하’ 전시가 개최됐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우환을 포함한 ‘단색화’ 전시가 열렸다(베니스의 팔라초 콘타리니 플라냐코에서, 2015. 5. 7~ 8. 16). 실제로 이우환은 일본의 모노하를 주도했듯이, 1970년대 한국 단색파의 성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 2개국에서 새로운 유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는 역시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우환의 미술관이 일본과 한국에 각각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생존 작가의 미술관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외국에서 미술관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고국에서 미술관이 건립된 이우환과 같은 경우는 더욱 드물다. 고국에 건립된 이우환 공간(부산미술관 별관) 개관 도록에 게재된 필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이폴론적으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오니소스적’으로 이를 부수려는 외부를 적극 도입하는 이러한 양극적인 것의 주기적인 교접(니체)에서 예술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우환의 예술은 끊임없는 양극의 부딪힘과 그 사이를 오가며 생성된다.”

글 심은택(미술 비평가, 김산대 객원교수)



3

AND THAT HAS MADE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네〉

ALL THE DIFFERENCE

PROLOGUE

● 미술의 윤리는 무엇일까? 우리 눈앞에 이 세계를 본다. 모습대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 모두 이 세계에 책임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깨어 있는’ 작가의 작업이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표명하는 미술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재현의 방식만을 전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술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도로 정제(精製)된 고유의 방식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미술이 속해야 하는 세계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의의의 세계’야 하기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지닌 작가들이 우리가 감하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는 그들의 시기와 감성으로 표출된 다양한 층위를 통해 드러내주기를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층위 속에서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인어가 잡아채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소한 것들을 한순간에 포착해내는 메타포의 힘, 미술의 참된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러한 ‘미적(美的)인’ 동시에 ‘윤리적(倫理的)인’ 접근법을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선택에서 필자는 발견했다. 스스로 외딴 낮은 누운기를 찾아 자신에게서 본 어떤 모습을 질문하고 확인해가는 김홍구, 무력한 상황이 노출시키는 입도적인 현실, 패하기 된 풍경 앞에 발가벗은 현실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김홍구, 예술이라는 개인적인 실천을 통해 궁정의 힘, 미술이 지닌, 혹은 지향해온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을 드러내는 이수경, 주변의 낮익은 일상을 긴장감이 감도는 불면한 풍경으로 그려내는 공성훈,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허물없이 내몰렸으나 결코 비주하지 않았던 이들과 그들의 삶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억과 호흡으로 전조(轉調)해내는 임홍순, 누구나 살 수 있는 값싼 재료로 누구나 알고 있는 꽃과 과일을 만들어 우리의 삶에, 삶의 공간에 마음을 되살리는 최정화, 움직임과 빛, 소리가 교차하고, 음악과 미술, 춤이 조우하며 전통과 전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윤종구의 선택에서 말이다.

●●● 실제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고민했으나, 미술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선배 세대의 이상과 좌절, 그리고 희망 모두를 목도해온 이들은 이 모두를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현실과 마주하기를 가까이 택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행복’을 꿈꾼다. 진실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표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김은경(독립 기자), 아들라에 에르메스 큐레이터는 서울과 뉴욕에서 잠시 현대미술사를 공부한 뒤 작가를 만나고, 전시를 기획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



Untitled_hawon1695, The Shining Things, 2013, Digital c-print, 150X120cm

김옥선 Kim Ok Sun

● 애초에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판자를 창작하였다. 예술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현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 사진으로 표현하자는 생각이었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세계는 예술을 하는 것이니까보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 말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술적 방식과 내가 접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한 제 작업이 예술의 범주에 편입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 동시에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 제 작업이 사진이라는 분야보다는 미술 안에서 포용 되었죠. 굉장히 운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글을 잘 썼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했을 테고, 춤을 잘 추었다면 춤으로 표현했을 텐데, 저한테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적당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사진가가 되고 아티스트가 되었죠. '아티스트'라는 말이 여전히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나무에 접근할 때도 다른 작가들이 찍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고, 처음에 여자를 찍었을 때도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2002~2005)는 남편과 저 사이의 존재적, 개체적 차이-문화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것부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고, '함양의 배(Hamels Boat)'(2007~2008)는 고향을 떠난 이방인으로서의 삶, 외지(外地)를 떠도는 삶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맺어가는 관계의 불안정함, 혹은 이방인으로서 갖는 사회·경제적 자유의 불안정함과 당위성에 대한 질문. 모두 저마다 각자 다른 불안함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 디렉션 홈(No Direction Home)'(2008~2010)도 마찬가지로 표류하는 삶을 클로즈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죠. 다만 제 작업으로 국제결혼이나 다문화와 관련된 모두를 다변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제 경험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작업을 진행하던 당시에 만난 외국인들을 통해 그들이 외국인인 것 하더라도 제가 제주에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외국인들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죠. 모임에 참석하고, 만나고...

●●● 얼마 전 한 전시에서 해피투게더 연작 중 네 점을 걸어놓고 보니, 그 작업을 하던 2000년대 초반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군요. 한창 촬영하고 전시하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 같은, 현실 그대로, 내가 사는 것 그대로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객관화되어서,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리가 생겼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이지... 저때는 저런 생각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아니죠. 다만 깊이 고민하면서 사진으로 삶을 통과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같아요. 아프지만, 통과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진은 그 과정을 함께 기억해주는 존재죠.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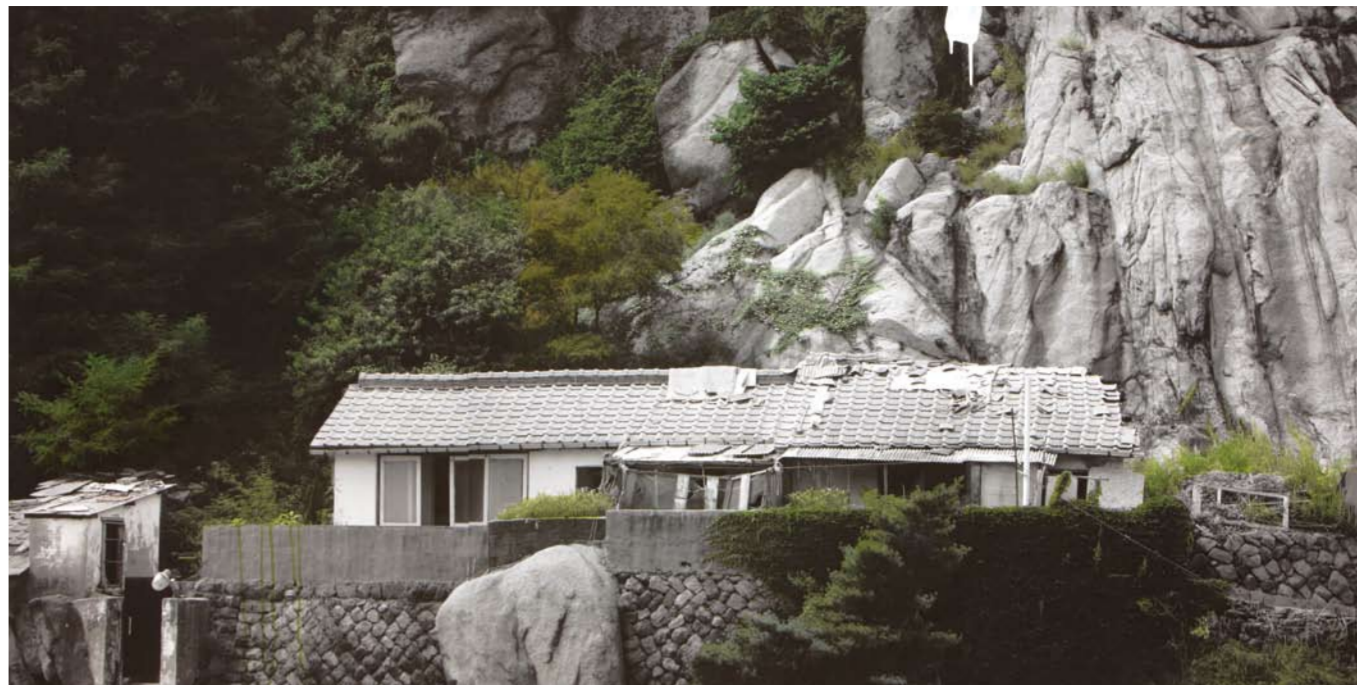


그림: 암벽 The House: Rockwall, 2010, Pigment print, ink, acrylic, 105X200cm

강홍구 Kang Hong Goo

●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상상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진도 심지어 기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고 싶어 하는 욕망이지. 그게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을 때조차도 거의 정확하게 못 보는데... 사진은 가장 그럴듯한 기억 매체이긴 하죠. 정확하게 보는 착하는. 제 사진 이미지들을 합성하고 이어 붙인 건 애초에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것 자체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보는 건 이렇다, 이 정도? 디큐멘터리 사진, 혹은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양해도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건, 찍고 나면 없어지려는 거죠. 전 그게 가장 이상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찍었는데 없어져. 기이한 일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비정상적이구나.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달라져도 진척해보고 변화를 주려고 해도 세계의 움직임은 그대로라는 게 그 안에서 보인다는 거지.

●● 일단, 작업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들어가거나, 생활이 들어가거나, 그런 정도의 구체성을 담보로 거기에서 이야기가 풀려나오면 재밌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식이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개념으로 포장하는 것 같거나 하면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술이나 언어는 로컬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카피를 마시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 글로벌화는 그걸로 충분하고, 예술은 역시로는 아니겠지만 로컬하게 발차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정말 거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다 양해하죠. 작업이 구체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공허하다고요. 자기가 경황하지 않고서는,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서는 진짜 공허해요. 그래서 땅에 발이 붙어 있지 않은 작업을 의심하는 거죠.

●●● 저는 작업에 체감적으로 먼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아마 대학원을 마치면서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좀 매진했지만 그때가 1990년쯤이었어요. 아꼐든 굉장히 로컬하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해왔고, 그 이야기가 정치적인 것을 포함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예술) 작업으로 지속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 공간에 대해 작업한 것도 개인적 체험이 배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제 작업에 등장하는 모티브들은, 저는 별 생각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 일종의 alter ego구나, 아바타(avatar)구나... 제 작업을 지탱하고 있는 게 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의 잔여물이나 잉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개발 공간도, 버려진 집들도, 도시 변두리에서 시골과 도시가 중첩되면서 일방적으로 파괴되거나 만들어지는 공간도, 모두 그런 공간들이죠. 남들이 짚는 풍 나는 숲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아산이... 그 공간들을 내가 보고 있고, 동시에 자기에게서, 나를 투사해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이 이야기나 사진의 동시에 공적일 수 있는 어떤 접촉면을 갖고 진행해야유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는... 두렵기도 하죠, 간혹.

●●●● 예술을 한다는 건,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전 아직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가 무언가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없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꼐든간에 작업의 결과는 상관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의 대처 방식이죠. 소진됐을 때, 나이가 들면 소진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소리 풍경 6 Scene of Onsoi-ri 6, 2004, Digital photo & print, 100X261cm



이수경 Yee Soo Kyung

- 미술은 이런 것이라든 고정관념은 꽤 일찌감치 버렸던 것 같아요. 다만, 작가가 된다가나 작업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도 없었고, 작업이라는 게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중간에 작업이 많이 끊어졌어요. 어떤 호기심이 생리면 그걸 끝까지 붙태우고야, 속사원하게 다 했다, 그런 후에 여가에서 더 발전시키거나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순식간에 시작하고 끝내버리는 방식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걸급,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생각과 만났을 때 분출되는 에너지,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압축된 스트레스에서 작업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인지, 개별적인 작품으로 보면 신선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2006년 이전까지의 작업들은 신선할 순 있지만 모두 실망했고, 엄밀히 말해 한 작가의 작업이 그런 식으로 일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 같은 거죠. 어떤 작가가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작품을 매년 하나 정도씩 평생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 각기 다르다면... 이런 분열 자체예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작가랑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얘기도. 2006년 이전에는 어쩌면, 저 스스로가 작가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작가라면, 자신이 생산해낸 이미지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산물들이 나의 삶과, 나는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죠. 계속 검증해보고, 비평적 가부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했던 거죠.

- 어느 날, 아, 경면주사로 불을 그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그냥 작대기 긁고, ㄱ, ㄴ 쓴 것 같아요. 다 처음부터 배운 것 같아요. 몸의 기능에 대해, 손의 기능에 대해... 그때부터 작가로서의 몸이,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새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면주사라는 재료는 물감이나 먹과는 다르게, 제 의식 속에서는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하는 재료였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 굵기, 처음으로 획(stroke)에 대한 공부를 곁을 때땀이 새로 한 것 같아요.

- 매번 작업을 시작할 때는 대상이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대상과 사랑에 빠져요. 우습죠. 조선 백자도 그랬어요. 백자의 경우, 처음에 제가 싫어했던 건 백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백자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이든지, 담론 때문에 제가 완전히 속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백자라는 대상도 자유롭지 못한 건데, 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들과 이것을 동일시했던 거죠. 작가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사물이든 사인이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작가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작가라면, 일단 현상을 명료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대상을 계속 (작업으로) 끌고 갈 수 없거든요.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유일하게 본질을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최소한 진실에, 아니 원래의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 영성(靈性)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작업에서, 전시에서 보여 주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었 같아요.

1 모두 잠든: 비리공주 All Asleep: Princess Bari, 2015, Resin, Approx, 50X23X21cm (each), Photo by Kiyong Nam © Artist and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2 그곳에 있었다 You Were There, 2015, 24K gold leaf on rock, Approx, 32X22X15cm (each), Photo by Kiyong Nam © Artist and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3 천(千) Thousand, 2012, Ceramic trash, epoxy, 24K gold leaf, Dimension variable, Courtesy of Artist, Photo provid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비트나무 2 Willow Tree 2, 2015, Oil on canvas, 227.3X181.8 cm, Image Courtesy of Artist and Arario Gallery



공성훈 Kong Sung Hun

- 예전에 어떤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제 앞에서 시선을 보던 관객 두 분이 "애, 참 정감다"라면서 좋아하더군요. 옛날 사진들이니까 어렸을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정감'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 예술 언어 사진, 비평 사진에는 '정감'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작품을 볼 때 관객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의 표면 너머에서 불러낼 수 있는 어떤 것 중 하나가 정겨움인 거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관객들에게는 쉬운 그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사실 회화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봤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화를 별로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웹브라이트가 좋다고, 고이가 좋다고, 고갱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달력이나 책에서 본 것들이죠.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경제 정서의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송미술관에서 가끔 전시를 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몽유도원도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어쩌면 회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군요.

- 제 그림에는 어느 정도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붓 자국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시선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붓 자국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매끈하게 그린 고전주의풍 그림이 사실적이라고는 하지만, 표현주의적으로 그린 그림이 제게는 더 사실적으로 보여요. 어떤 대상을 본 사람, 보고 그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존재론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그림을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을 분명하게 투사하고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그림을 통해) 자기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을 진술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미술은, 특히 회화는 사교를 물질화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대상과 작가 사이에 매체가 존재하는데, 매체를 어떻게 접근시키고 대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혹은 대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선택적인 직접성이 관여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지만 작가의 몸이 지닌 직접성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이거나 한 부분이기도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오감 전체로 대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자기가 한 만큼만 결과로 나온다는 점에서, 미술은 다른 어떤 인간 활동보다도 윤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대상과 매체에 대한 직접성,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미술은 물리적인 것이구나,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구나, 매체에 대한 신뢰의 직접성을 유지하는 게 윤리적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로공단 Factory Complex, 2014~2015, HD, 95min.

1 Beautiful, Beautiful Life!, 2012,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TINA B Project in San Salvatore, Prague, Photo copyright by Martin Slank 2 Breathing Flower, 2012,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Civic Center Plaza, San Francisco

최정화 Choi Jeong Hwa

● 제 작업에 반반하게 등장하는 꽃이나 과일, 제가 고르는 소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알록달록하고, 그걸 본 사람들에게 기쁨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예요. 소수가 예술을 독점하는 것도 싫고, 예술이 값비싼 무엇인 것도 싫고, 누구나 보지 못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게 제 예술을 통해 전달되니까 신기해요. 예술은 누구나 하는 것이죠, 모두의 것이고.

●● 원시 미술, 미술 이전의 것들에서는 엄청난, 미칠 듯한 생명력을 느끼죠. 전 세계 어딜 가든 고(古)생활사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편적인 원시. 제 작업에서 보이는 알록달록함이 사실 태베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죠. 오병석도 전 세계가 다 똑같죠. 유럽이나 남미 북미나 아시아나, 그 당시의 생활상에 대한 책을 보면 놀라워요. 다 똑같아요. 자연에서 나오니까, 꽃에서 나오니까 똑같은 수밖에 없죠.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원색을 사용한다는 것, 그 원색이 주술에 쓰이고 경계에 쓰이고 탄성에 쓰이는 건 다 같아요. 그런 데에 관심이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다하게 모으는 것을 보고 이런 문화 인류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분류하고 정리하는 건 제 몫이 아니지만, 여(여)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받아요. 말하자면 스승님이죠.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이 스며들어서 다시 스며들고 싶어요.

●●● 한바탕 불어닥친 공공 미술 분야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따뜻함이 없고 사람이 없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려면 그 장소에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주민들의 삶 속으로 예술을 스며들게 하는 건 그들이 예술을 알고 모르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있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대구에 있는 대봉2동에서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날씨가 추니까 주민들이 오나라는 거단의 찰제 난간을 바닐라 티아프르 씨는 작업부터 했어요. 다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싸웠고요 싸웠죠. 작가가 어떻게 완성체를 만들겠어요. 그저 거기 가고 배경이 될 뿐이죠. 그리고 나면 관객은, 주민들은 자기 풍경을 만들 테고, 거기서 살아가겠죠.

●●●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작업이 제일 좋아요. 효과도 즉각적이고, 반응도 즉각적이고, 누구나, 그러니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미술계, 비미술계를 떠나서 모두가 공감하는 작업. 제가 말했던 미끼(미)가 빠가 되는 작업, 그리고 1%를 위한 예술이 아니고. 앞 동네 할머니가 난간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네요. 말레이시아에서 한번은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메디) 작업을 했어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니까, 오다가 그걸 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니까, 서로 자기 집에 설치한 거예요. 그게 또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 반응들이.



임흥순 Im Heung Soon

● 사실 영화에 대한 판타지도,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관계나 과정에 초점을 우선 뒀었던 것 같아요. 2007년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사실 미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예술로 무언가를 구현하거나 바꾸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슈를 갤러리로 끌고 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뭔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 작업이 얹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담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했죠. 예술에 대한 맹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술의 역할이나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고민했던 거죠. 미술은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사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느꼈을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술을 하게 되죠. 그게 어렸을 때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예술로서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사람을 예술의 여휘를 통해 어떻게 보여주겠다, 혹은 그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나 사람 자체를, 그 관계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노동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예술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고,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예술로 어떻게 풀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 등촌동 임대 아파트에서 주부들과 함께 진행한 공공 미술, 커뮤니티 아트 작업들이 금천구(금천)예술공장에서도 이어졌어요.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숨겨진 에너지,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가 이런 여성들, 이런 분들에게 위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시선으로 봤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앞을 나가서 싸우고 죽고 끝났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을 안으로 식이면서 지금의 제주도를 만든 게 할머니들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 곳곳에서, 일상에서, 주부들의 역할을 생각하다 보니 어머니, 여동생, 형수, 가족들이 보였어요. 어머니도 여성, 노동자였고, 자한테는 여동생의 덕이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가 겹쳐졌어요.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희생했고 그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런데 가족들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심지어 칭찬한 부분도 있고, 그게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특히 남자들에게,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시작한 거죠. 일종의 희생, 가족 안에서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음, 위로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Exhibition

● 저는 미당극에서 매우 현대적인 극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하던 배우가 관객들에게 갑자기 말을 걸거나 공연 도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관객들이 당황해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었구나. 미당극에서 바로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극(劇)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라는 걸 관객들이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아테올로지 속에 흡수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현실이 실제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주 서서히 정에서 현실 비판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더 적나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킬 수 있나를 묻는 거죠. 내부서 시작해서, 여전히 우리가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진짜 현실인가. 현실이 아주 극명할 때는 오히려 비현실처럼 보이고, 현실과 비현실이 뒤바뀌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라고 지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닐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루 같은 거라는 인식, 저는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죠.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상한 지점을 보여주면, 분명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생긴다고. 미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극적인 현실과 실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 우리가 겪는 세상은 혼돈과 미지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어떤 패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혼돈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강력한 본능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패턴 알기는 한순간에 불확하고 곧 혼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 즉 패턴이 형성되는 시간과 사라지는 시간들, 이들이 제 관심사입니다. 물리학에서 요즘 대중 우주론 얘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어떻게든 고착시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죠. 외국 문화권의 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몽골, 발리, 태국의 음악과 춤, 전통적인 현대적인.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더불어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저는 모두 일종의 기능성으로 봐요. 그런 기능성을 많이 알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처한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삶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 티베트에서 1년에 한 번씩 승려들이 모래로 만다라를 만들어요. 새해 시작할 때 한 방 가득히 카다랑게. 사람들이 찾아와 새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빗자루로 그냥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큰 작품을 할 때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고, 이게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작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면 다시 할 수도 없고 끝난 후에는 부셔서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데, 그 감정이 아쉽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에 제 자신도 의아해합니다. 작업을 하는 순간, 돌아볼 수 없는 선택을 해. 가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생생해요. 일종의 연습이 없는 삶인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나무 부르는 소리, 2012, Multimedia performance



Exhibition

비극에도 지치지 않고 길동무처럼...

이국적이고 신비한 작품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추앙받던 천경자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전해졌다. 미술 평론가 강수미가 추억해본 미술가 천경자의 작품과 삶.

예술가 자신의 삶은 고달프고 외로웠는데, 정작 대중에게는 오히려 그 점이 예술가의 신화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생이별한 채 찢어질 만큼 궁핍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화가 이중섭. 그가 고독한 심정에 담뱃갑 은박지를 도화지 삼아 그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이상향은 화가를 더욱 드라마틱한 인물로 만든다. 동생 테오의 후원으로 겨우 연명하면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고, 고갱파의 갈등은 물론 정신 질환으로 내내 고통받았던 반 고흐. 그가 광기 어린 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화폭 위에 황홀한 색채와 붓질의 향연을 펼쳐냈다는 사실은 위대한 예술가를 향한 우리의 동경을 부채질한다. 하지만 예술가 당사자에게 그 인생의 순간순간은 얼마나 쓰디쓴 현실이었겠는가!

천경자. 1924년 11월 11일 전남 고흥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족이 알려진 바로는 2015년 8월 6일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집에서 숨을 거둔 대한민국 화단의 대표 여성 화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유학 길에 올라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하고 스무 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연거푸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초기부터 예술적 역량을 세상에 뽐낸 미술가. 1952년 한국전쟁 중 피란지 부산에서 열린 개인전에 내놓은 극히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그림 한 점(생태)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래, 20여 년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술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78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 이만하면 이 화가가 누군지 자세히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녀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커다란 성공과 대단한 명예를 누렸다고, 평범한 인생에는 없는 화려함과 풍요가 넘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천재적인 재능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을 것이다. 실제로 천경자의 개인사는 물론 이 화가가 남긴 다수의 작품에서 우리는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녀의 생전 사진이 말해주듯 천경자는 매력적인 외모에 두드러지는 패션 감



각과 화려하고 다채로운 취향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작품 범주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자화상 연작은 신비로워 보이는 눈 화장, 이국적인 꽃을 엮어 만든 화관,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색이나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색 배경, 우아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엿보이는 여인 형상의 조합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을 미학적으로 알려준다. 또 서른다섯 머리 뺨이 우글거리며 뭉쳐 있거나, 꼬마허거나, 제 꼬리를 물려고 몸을 비트는 역동적 순간을 그린 작품 '생태가 웅변하듯 천경자의 창작 세계는 환상에 힘입어 과감하고 강렬했다. 그래서 가령 고인의 작품 93점을 소장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천경자의 혼〉이라는 전시로 처음 이 예술가를 접하는 이라면, 일단 그 풍부한 시각성에 흥미로워하고 거침없이 비약하는 표현력에 감탄할 것이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미술사와 미학에서 이 화가의 의미는 가능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경자 작가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작품에 대한 미적 관심과 의미 있는 비평을 안도해버리는 스캔들이 돌았다. 역설적이게도 이 스캔들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고, 또 다른 작품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한 예술가의 미학을 조망해야 할 시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생전에 작가를 심히 괴롭혔고 절필로까지 몰아낸 과거 사건이 작가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가 날아든 이때 다시 언론과 일부 선정적 논자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이 그 스캔들 중 하나다. 그리고 고인의 마지막 삶과 죽음과 관련하여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비밀이 다른 하나다.

1991년 소위 '미인도 사건'으로 알려진 일이 터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의 주범 김재규에게서 환수한 재산 중 일부로 소장하게 된 천경자의 '미인도'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작가 자신의 판단 아래 '위작'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경성 관장 체제하의 미술관은 창작 주체인 작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했. 또 미술 평론가들과 한국화랑협회까지 나서서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과정에서 천경자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몰라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기 자식도 몰라보는 어미라거나 젊었을 때부터 환상만 좇더니 혼이 안 들어간 채로 그런 제 그림을 몰라보고, 나이 들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원색적 비난을 들은 뒤 창작까지 중단하는 지경의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그 상처가 기실 천경자 작가의 말년에 찾아온 비극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후작가 활동은 물론 국내에 머물지도 못하고 20여 년 넘게 고독한 이방의 은둔자가 된 그녀가 불현듯 지난 8월 맨해튼의 손에 유골로 돌려 서울시립미술관의 자기 방을 마지막으로 돌고 돌아 졌기 때문이다. 또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이 맨해튼에 위치한 한 직계 유족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로 끝나서다. 그 와중에 일부 언론은 새삼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제당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온갖 루머를 끼워 넣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

작가의 미술을 아끼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작가의 별세 뉴스가 전해진 뒤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전시살을 찾는 대중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예술가가 온전히 그녀 자신으로, 그 그림들이 과장이나 폄하 없이 충실히 천경자의 예술혼으로 감상자에게 수용되고 있을까 싶어서 말이다. 천경자 작가는 생전에 수필집을 통해 "나는 어떠한 비극에도 지치지 않고 살고 싶어질 것이다. 내 삶의 그림과 함께. 인생의 고달픈 길동무처럼 이어갈 것이 다"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그녀의 생애 중 어쩌면 가장 고달팠을 마지막 20여 년을 모른다. 그러나 작가의 당당한 선언처럼 그림이 그녀 인생의 길동무로 끝까지 함께했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그 자체로 존중하자. 그녀가 세상에 내놓은 그림들만으로도 매우 가치 높다는 사실 말이다. 글 강수미(미학자,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교수)

1 천경자 '여인의 시 Poety of a Woman II', 종이에 채색, 60×44.5cm, 1985 ©서울시립미술관. 2 천경자 '생태(A Mode of Life)', 종이에 채색, 51.5×87cm, 1951 ©서울시립미술관 3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Page 22 in My Sorrowful Legend', 종이에 채색, 43.5×36cm, 1977 ©서울시립미술관.



ART & Luxury Brands

요즘 아트와 럭셔리 브랜드의 유대는 진한 '공생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소수이기는 해도 전통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예술성을 추구해왔다. 1세기도 더 전에 당시의 '아트'라고 할 수 있는 장인 정신 충만한 공예 예술이 그들의 뿌리이니 말이다. 영리한 브랜드들의 아트 경영을 살짝 들여다본다.



1



2



1 간자에 위치한 메종 에르메스 도쿄의 갤러리 '포럼(Le Forum)'에서 열린 (Condensation)전. © Nacasa & Partners Inc. 사진 제공 에르메스 재단(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2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자리 잡은 메종 에르메스 도시공원. 사진 Masao Nishikawa 3 밀라노에 위치한 에르메스빌도 재나 본사 건물. 재나는 지난 5월 자연과 음식,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 이야기(Fabulae Naturae)라는 아트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사진 제공 에르메스빌도 재나 4 피라에 있는 까르띠에 현대미술 재단(Carter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 건축가 장 누벨의 작품. 5 프라다 재단(Fondazione Prada)에서 베르니에 이어 밀라노에 새로 연 예술 문화 공간. 6 루이 비통 라스베이가스 메종 사티 센터에 영구 설치된 제임스 터렘의 (아크노브(Aknoh)) 전시. 사진 Florian Holzher 사진 제공 루이 비통



4



5

패 일찍부터 “돈은 사회의 언어이고, 럭셔리리는 그 문법”이라는 말이 존재했다. 사람들이 흔히 럭셔리를 ‘돈’으로 한정 짓지만 실상 ‘가격’만으로 럭셔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럭셔리 이론가들이 자주 하는 비유를 빌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언어를 습득했다고 해도 문법이나 어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결코 풍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럭셔리의 문법은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아트 사랑이 지극하다. 아트 바젤 같은 대형 아트 페어에 가든, 베르사유 궁전 같은 찬란한 문화 유적지에 가든 럭셔리 브랜드들이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다. 전시를 후원하는 정도의 사례야 다반사고, 예술 분야의 상을 제정해 아티스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통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의 브랜드 아카이브를 소재로 페나 관괘는 전시를 하기도 한다(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아예 아트를 관장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한다. 갈수록 끈끈해지는 럭셔리 브랜드와 예술의 ‘유대’는 어떤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브랜드 미학을 정립하고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의 전략적 승부수? 기업의 메세나 활동? 럭셔리 기업을 소유한 억만장자들의 자선 행위? 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맞는 해석일 것 같다. 하지만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아트에 대한 집념 어린 투자와 열정을 보노라면 그 둘의 관계에는 ‘공생(symbiosis)’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듯하다.

갤러리도, 작가도, 기업도 브랜딩이 필요하다

아트에 ‘브랜드’가 끼어들면 곰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 주로 ‘돈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패션 디자인은 태놓고 상업적이지만 예술은 순수라는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물론 ‘영혼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자체는 디자인처럼 처음부터 기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업적인 용도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점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예술을 둘러싼 세계, 아니 인간을 둘러싼 상업적인 논리에서 완전히 배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예술가에게는 그 이유가 예술을 마음껏 하기 위해 서일 수도 있다. 일례로, 피카소는 세기의 화가라는 수식에 어울리는 재능도 지녔지만 인맥 쌓기와 관리를 잘하는, 사회적 지능(SQ)이 뛰어난 덕분에 생전에도 막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상류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동시대 화가, 화상, 시인 등과 폭넓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한 셈이다. 피카소는 “예술가도 성공

할 필요가 있다.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해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도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브랜딩을 하고, 갤러리도 브랜딩을 하고, 작가도 브랜딩을 한다(소속 갤러리에서 해주는 본인이 하든). 그런데 ‘돈’과 ‘브랜딩’이 넘쳐나는 아트 세상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전세계 주요 갤러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 있는 갤러리는 블루칩 작가들을 보유한 소수에 불과하다. 30%는 적자에 허덕이고 55%는 연간 수익원의 수익을 손에 쥘까 말까 한 정도로 버리고 있다는 게 실상이다. ‘쏟아림 현상’이 심한 아티스트들의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다.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의 진한 공생 관계

그러므로 럭셔리 브랜드들의 아트 사랑이 더해가는 현상을 미술계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공간도 제공하고 자금도 투자하고 브랜딩도 기막히게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기업들은 예술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므로 덜 계산적(?)이고 신인에게도 관대한 편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브랜드 협업에 호의적인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여지가 있다면, 그건 브랜드의 개입으로 작가들이 예술적 진실성을 타협하거나 저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또 실제로 종종 생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브랜드의 예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로 ‘독립성’을 꼽곤 한다. 어떤 일을 진행하든 이래라저래라 참견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그 DNA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브랜드 전시나 컬래버레이션 상품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아티스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시너지를 내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럭셔리 브랜드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결국 ‘소비자’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인 것 같다. 이러한 공간이 아발로 작가들에게는 기회를 선사하고, 대중에게는 값비싼 콘텐츠를 즐기도록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일 수 있다. 패션 산업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성격의 공간인 만큼 지극히 유행을 타는 상품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포장해 파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말이다(럭셔리 브랜드 그룹의 예술 후원 재단은 거의 독립적인 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또 브랜드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영리한 선택이기도 하다(대신 막대한 공을 들여야 하지만). 이는 최근 마케팅들이 주창하고 있는 ‘비과시적 소비

(inconspicuous consumption)’라는 흐름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요즘 엘리트 소비자들은 “나 브랜드요”라고 외치는 듯한 노골적인 브랜드 사치품보다는 눈에 확 띄지 않은 ‘은근한’ 럭셔리 제품을 선호한다는 주장이다. 브랜드 미술관이 라는 공간형 콘텐츠도 노골적인 과시 없이 우아함을 누리고 발산할 수 있는 ‘미묘한 럭셔리’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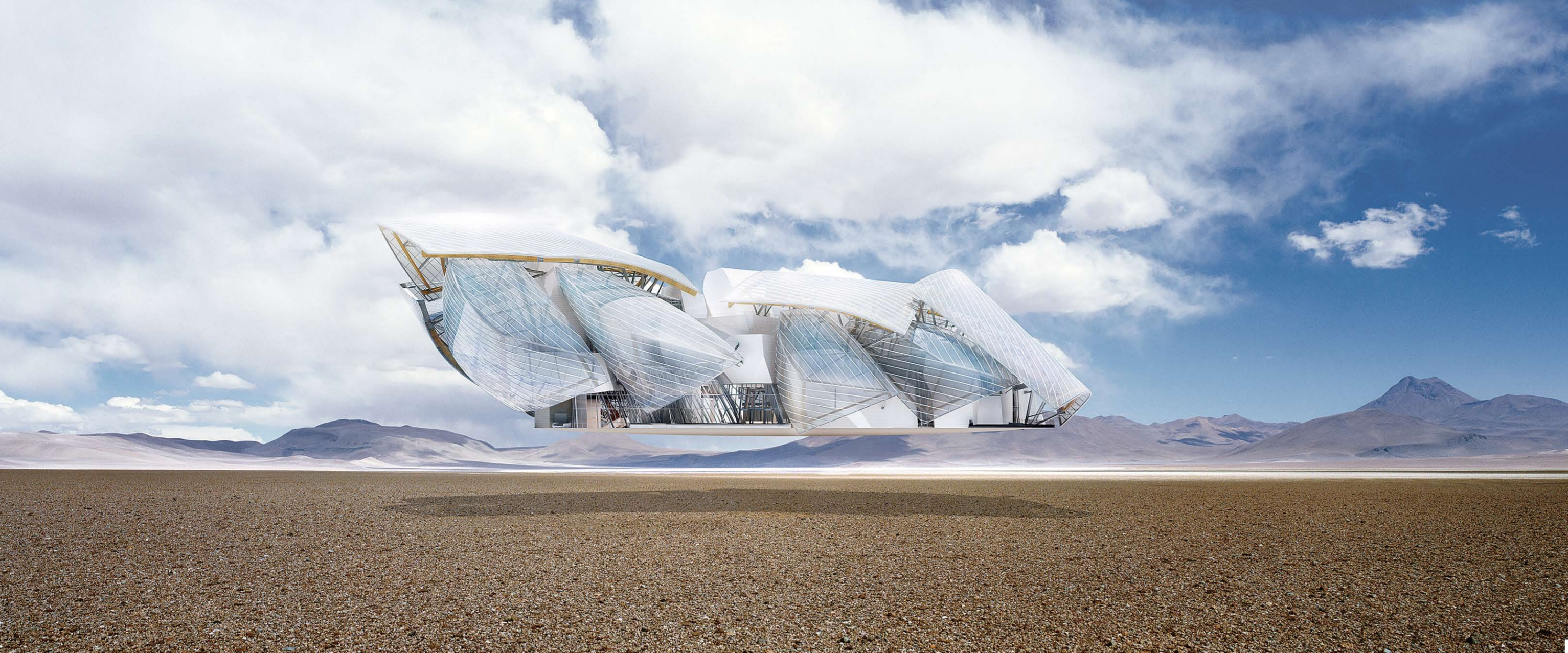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자격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술관이나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색깔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현대미술을 후원하는 최초의 프랑스 기업 까르띠에의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까르띠에 재단은 정통성이 느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위적’이라고 할 만큼 참신한 카리스마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수확을 주제로 삼는 다든지 장 폴 고티에의 파격적인 설치라든지, 최근에는 콩고 미술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자유로운 시각과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 가장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이 비통은 ‘계몽적’ 기개가 돋보인다. 일찍이 무라카미 다카시와 구사마 야요이 등 작가들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주도해온 브랜드답게 예술을 가장 대중적인 감각으로 화려하게 펼쳐 보이는 법을 아는 듯한 이 브랜드는 최근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으로 그 위용을 제대로 뽐내고 있다.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경우에는 생태 공인 오아시 제나를 조성한 브랜드답게 친환경적인 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구찌와 보테가 베네타 등을 거느린 케링 그룹의 프랑수아 앙리 피노

회장은 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쌓아내고 있다. 마틴 스코세이즈 감독이 이끄는 필름 파운데이션과 손잡고 고전 영화가 남긴 문화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발벗고 나선 정도. 에르메스는 미술관 같은 공간을 두고 소장품을 모으지 않는다. 예술 작품이나 공간을 사는 대신 ‘인적 자원’을 후원한다는 방침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미술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운영하지만 서울 도산공원에 위치한 메종 내에 전시 공간인 작은 아틀리에만 꾸리고 있다. 이 같은 ‘은근한’ 후원 방식은 브랜드나 로고를 눈에 띄게 강조하지 않는 ‘비과시적 브랜드’의 대표 주자인 에르메스의 이미지와도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올봄 밀라노에 문을 연 프라다 재단 미술관도 이 혁신적이고 반항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브랜드의 주인을 꼭 빼놓았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미우치다 프라다는 젊은이들에게 문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장을 강조해왔는데, 바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양조 공장 부지에 세운 이 미술관이 딱 그렇다. 아름다운 오브제 대신 빠르고, 신선하고, 실험적인 ‘곳’을 지향했다고, 몇몇 럭셔리 브랜드의 아트 경영은 영리하기도 하지만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저마다 확실한 색깔과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단지 돈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 아마도 그건 억지로 예술적인 뒷걸음 해 포장하기보다는 브랜드 정체성에 이미 예술의 핵심인 창조성이 스며들어 있어서일 지도 모르겠다. **글 최성연**

6





1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을 멋지게 해석한 작품(Jean Larivière pour la Fondation Louis Vuitton). 사진 장 라리비에르. 2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영양의 열쇠/Keys to a passion) 전 설치 전경. 브랑쿠지(Brancusi)와 로스코(Mark Rothko) 작품. © Adagp Paris 2015. 3 미술관 내부. 사진 제라르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4 베르트랑 라비에(Bertrand Lavier), '낭종고 위 소피(La Bocca sur Zanker)' (2005). © Bertrand Lavier, Adagp, 2015. 사진 제라르 galerie Xavier Hulckens(Bruxelles),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해친다고는 할 수 없는 우아한 조화미를 뽐내었다. 햇살이 야깁없이 쏟아지는 날이면 미술관 건물 한편에 자리 잡은 계단 위를 흐르는 물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꽤나 평화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루이 비통이라는 화려한 브랜드에 이끌려 찾아온 방문객이든, 현대미술 애호가든 누구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풍경이다. 애초에 아르노 회장이 현대미술을 매개체로 한 더 많은 대중과의 소통을 원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 루이 비통은 가장 친근하면서도 대중적인 감각으로 예술을 대중 앞에 끌어낸 역사를 지니고 있다. 30대의 마크 제이콥스를 내세워 무라카미 다카시와 멀티컬러 모노그램을, 구사마 야요이와 물방울 모노그램을 선보이면서 팝아트를 패션에 입히고 대중에게 더 각인시킨 브랜드니 말이다.

콘텐츠를 선별하고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

이 수려한 공간 속에 들어앉은 콘텐츠의 색깔이나 구성 방식도 흥미롭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전시를 지휘하는 수장은 파리 시립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관장 출신이자 베니스 비엔날레 기획자로서도 명성을 날린 수잔 파제(Suzanne Pagé)다. 그래서 개관 당시에는 프랑크 게리를 기리는 건축전 위주의 콘텐츠였더라 그녀의 출중한 실력과 어우러진 아르노 회장의 감탄스러운 컬렉션을 기대한 이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다소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미술관 내부의 핫 스폿으로 노란색 배경에 거울을 활용한 감각적인 설치 공간을 담당하기도 한 올라프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개인전을 비롯해 영구 소장품을 공개하는 상설전 (항(Hang) 시리즈)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시간과 흐르면서 콘텐츠가 드러나자 나름의 개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콘텐츠 구성을 보면 네 가지 테마를 기본 틀로 삼은 채 전시를 꾸러나가는 방식이 눈길을 끈다. 사색(contemplative), 팝아트(popist), 표현주의(expressionist), 음악과 소리(music/sound)가 그 네 가지다. 이 중 팝아트와 음악에 초점을 둔 전시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항 시리즈 3)은 이 미술관의 특색 있는 매력을 잘 보여주는 전시라고 여겨진다. "나는 한 번도 아프리카에 간 적이 없다. 하지만 문화적인 기억이 있다"라는 멘트가 그에 대한 그리움을 더 불러일으키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릴로(Grillo)'(1984), 벽 한 면을 길게 수놓은 길버트 & 조지의 작품 '클래스 워, 밀리턴트, 게이트웨이(Class War, Militant, Gateway)'(1986) 같은 1980년대 팝아트 작품들부터 공연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는 너글러스 고든의 'K364'(2010)나 클럽에서 온몸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젊은이들의 영상을 담은 '더 크레이지 하우스(The Crazy House)'(2010) 같은 최근작들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넘실댄다. 저마다의 취향이 있었지만 베를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1980년생의 젊은 아티스트 시프리아인 가이아르의 'Desnianski Raioni'(2007)은 신선한 발견이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반젤리스의 음악과 레이브 뮤직 등을 배경으로 파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베오그라드, 키예프 등의 황폐한 도시 외곽 풍경이 쓸쓸하고도 아름답게 등장하는 영상 작품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혼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누군가 우연히 이처럼 끌리는 작품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도 이 미술관의 존재 이유는 충분할 것 같다. **글 고성연**

예술의 도시 파리에는 갤러리와 미술관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워낙 규제가 엄한지라 도심에 새로 생긴 큰 규모의 예술 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 도시의 서쪽 끝 자락으로 향하면 참신한 예술의 장을 마주할 수 있다. 파리 16구 불로뉴 숲, 청량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짙은 녹색(綠陰)을 병풍처럼 두른 채 건물이 하나 솟아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온몸에 받으면서 유유자적 흘러가는 구름 배 같기도 하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아를리타사용 공원의 놀이터에는 까르르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이 눈에 띈다. 이 울창한 수풀 속의 건물은 바로 개관 1년을 맞이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이다. 전시 미술품보다 건물이 더 유명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을 설계한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작품이다. 이 명성 높은 노장이 뜻이나 배만큼 좋아한다는 물고기 모양의 설치물이 그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 '르 프랑크(Le Frank)' 가까이 매달려 있다. 미술관 스타 셰프 장 루이 노미코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과 함께 4층짜리 미술관 안에는 서점과 오디오리엄, 그리고 핵심 공간인 11개의 갤러리가 들어서 있다. 총 면적 11,000㎡.

사랑하는 도시에 건네는 미술관이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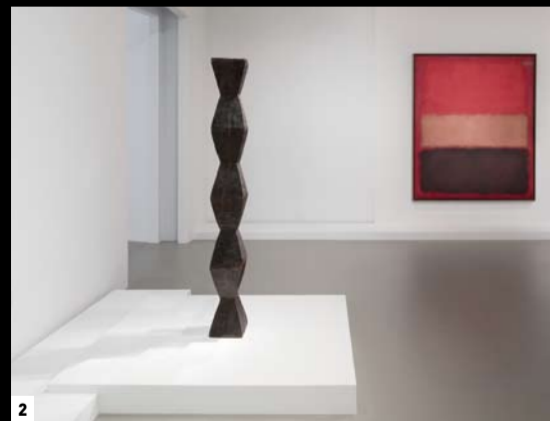
명품 브랜드 소유의 재단에서 예술에 투자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는 함부로 넘볼 수 없다. 특히 범규제나 여론 때문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기가 유난히 까다로운 파리에서는, 파리에 현대미술을 담은 새로운 공간을 세우려는 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오랜 열망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종종 세계 3대 컬렉터로 꼽히기도 하는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반세기 뒤에는 파리 시민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술관을 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파리의 풍요로운 문화적 풍경을 담아내면서 모든 관중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특정 기업의 투

자라기보다는 파리라는 도시에 선사하는 일종의 선물이죠." 25년 가까이 아르노 회장의 고문역을 맡아온 장-폴 클라브리의 설명이다. 사실 이토록 아름다운 미술관이라면, 그리고 모두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이 개인의 숙원 사업이든 브랜드 차원의 전략에서 생겨났든 무슨 상관이라 싶다. 특히 파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고전주의나 인상파 작가가 아닌 현대미술을 품은 공간이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확실히 이 숲 속의 공간은 렌조 피아노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풍피두 센타나 장 누벨의 유리 건축물에 경의심이 드는 현대미술 전시를 펼치는 까르띠에 재단 미술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다. 굳이 예술의 소통 공간이라거나 '살의 예술(art de vivre)'라는 단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아하고 화려하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예술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감각으로 기록한 역사

그 매력은 아마도 미술관 앞에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선 광경이 자주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듯하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문을 연 지 9개월 만에 이미 관람객 수 1백만 명을 돌파했다. 물론 '개관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가 세운 미술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객들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기도 한다. 뫼비우스 브랜드 색이 강할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도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 자체로 걸어 다니는 브랜드인 스타 건축가와 프랑스 최고 럭셔리 그룹의 수장이 이끄는 명품 브랜드의 만남이었으니 개관 전부터 화제가 반발하기도 했지만 '대체 얼마나 화려할 건데?'라는 식의 비판적인 눈초리도 꽤 있었다. 하지만 드디어 베일이 걷히면서 드러난 루이 비통의 현대미술관은 나름 뛰기는 해도 파리 시민들이 불로뉴 숲의 정취를

Sail along Arts



출처: www.fondationlouisvuitton.fr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 갤러리스트 2인 인터뷰

세계 디자인을 움직이는 여인들

한 세기 반의 근현대 디자인 역사에서 현재까지 최종 패권국은 명실공히 이탈리아다. 그중에서도 '경제 수도' 밀라노는 가구 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들과 디자인 유행을 배출한 현대 디자인의 요람이다. 디자인이 산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기록된 이 도시의 성공 뒤에는 디자이너, 기업인과 더불어 탁월한 안목으로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며 디자인 문화를 후원해온 특별한 갤러리스트들이 있다. 건축가 출신의 이성적 디자인 문화를 발전시켜 보수적인 남초 현상이 은근히 극심한 이탈리아 디자인계지만, 유독 이 영역에서는 2명의 여성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독보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의 디자인 전문 갤러리를 설립해 창의적인 운영과 남다른 안목, 특색 있는 큐레이션으로 여러모로 귀감이 되고 있는 로사나 오를란디와 나나 야샤르다. 이들이 각각 운영하는 스파치오 로사나 오를란디(Spazio Rossana Orlandi)와 닐루파(Nilufar)는 놀랍도록 다채로운 디자인 가구와 오브제,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밀라노를 방문하는 디자인 컬렉터들이 어김없이 찾는 갤러리다. 저마다의 공간을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감으로 채워 넣으면서 새로운 실험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녀들을 밀라노 현지에서 직접 마주했다.



파격과 이방가르드, 그리고 일상을 둘러싼 디자인 민주주의

Rossana Orlandi

Interview

스포르체스코 성 인근에 위치한 한적한 마테로 반델로 거리. 이곳은 디자인 관계자들이 이 도시에 몰려드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이면 유독 분주해진다. 사내에서 다소 털어진 이 조용한 거리에 발길이 치열하게 몰리는 이유는 오로지 이탈리아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갤러리스트이자 큐레이터인 로사나 오를란디의 갤러리, 스파치오 로사나 오를란디다. 디자인계의 여왕, 대모, 트렌드세터 등 화려한 별명을 거느린 그녀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라 해도 무방한 독보적인 디자인 고유명사다.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을 선도해온 그녀의 공간은 일반적인 갤러리와 달리 갤러리와 사무 공간, 정원, 판매 샵, 레스토랑이 결합된 의식주 통합형 복합 문화 공간. 늘 새로운 전시와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14년의 짧은 역사에도 이곳이 밀라노 디자인 명소로 떠오른 것은 작품 컬렉션부터 공간 운영까지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파격과 신선함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스타의 등용문처럼 무명 시절의 마르틴 바스(Marteen Baas)와 나초 카르보넬(Nacho Carbonell)의 첫 전시 무대가 되기도 했던 정원에서 이곳에서 일흔 둘의 오를란디를 만났다. 하얀색 빈티지 선글라스 뒤로 형형히 빛나는 소녀의 눈빛, 다양한 세대와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탁월한 유머 감각. 나이는 그녀 앞에서 무색해진다. 정원 한편 현판에 적혀 있던, 그녀 친구의 현사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현명한 여인은 자신이 결정한 대로 나이를 먹는다.'

이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 디자인의 대모가 되다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의 산실인 북부 롬바르디아에서 태어난 오를란디가 어린 시절부터 가구나 소품 등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첫 행보는 패션이었다. 유명 패션 디자인 학교 마랑고니를 졸업한 그녀는 이방가르드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니트 디자이너 이름을 알린다. 이후 이탈리아와 일본을 오가며 쌓아온 전문적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조르조 아르마니, 도나 카란 등 패션 브랜드의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더불어 남다른 탐구 정신으로 방대한 리서치와 연구를 즐기는 오를란디는 강의와 기고, 큐레이터 활동을 병행하며 다재다능함도 뽐냈다. 그런 중에도 늘 관심의 초수는 의식 있는 디자이너로서 자신뿐 아니라 타 디자이너의 디자인 컬렉션, 열악한 여건에서 재능을 키워나가는 젊은 디자이너의 차우 개선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50대 후반에 접어든 2002년, 드디어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총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빚어냈다. 갤러리 스파치오 로사나 오를란디의 탄생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현장에서 키워온 디자인 안목으로 만든 이 공간은 개관과 동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준비된' 그녀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디자인 학계와 다

사진: 아우투라 다 자렐라(Atura di Girolamo)



1 전시 공간과 휴게 공간이 한데 섞인 정원은 네덜란드 디자인 전시로 네덜란드 불교 유수한 스토를 탄생시킨 상징적인 공간이다. 2, 3 빨강과 검정의 강렬한 대비, 오를란디 아버지의 유품을 그물러 완성한 오피스 테이블 위아래로 한 낱사피 조명의 배치 등 이탈리아적 디자인 감각과 유머가 녹아 있는 갤러리. 4, 5 2013년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고전과 컨템퍼러리를 매력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기티 발세키 2.0〉 전시. 사진: 제프 Spazio Rossana Orlandi



자이니, 기자들 간에 방대한 인맥을 형성해온 오를란디는 이를 통해 거장들의 작품을 컬렉팅하는 한편, 참신한 신진 작가들을 찾아 등용하기 시작한다. 절친인 에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Design Academy of Eindhoven)의 디렉터 리 에델 코르트(Li Edelkoort)와 협업해 선보인 네덜란드 디자인전은 순식간에 큰 성공을 거뒀고, 디자인계에 네덜란드 디자인 붐을 일으켰다. 디자이너들의 완성 작품을 구입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갤러리스트들과 달리 실무 디자이너 출신인 그녀는 아이디어는 창의적이지만 실용적인 제작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멘토 역할을 자칭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것 이 바로 그녀가 디자인계의 여왕 혹은 대모로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그녀의 사무실 옆 넓은 벽에는 마틴 바스, 하이메 아온(Jaime Hayon), 프론트(Front) 등 그녀의 비호 아래 신인에서 안정적인 스타 디자이너로 거듭난 디자이너들이 남긴 감사의 메시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그녀를 거쳐 간 거장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수는 무려 1백여 명에 달하고, 컬렉션은 수천 점에 이른다.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아시아 등 경계 없이 지원해온 디자이너의 명단에는 양재혁, 김희원, 박원민 같은 한국 디자이너의 이름도 있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작품을 진행하며 맞닥뜨린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묻자 오를란디는 해맑게 웃으면서도 단호히 대답했다. "전부예요! 모든 순간이 소중한데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디자이너와 작품을 품는 각별한 애정이 느껴졌다.

일상을 둘러싼 모든 디자인을 스토리텔링하다

저가에 구입 가능한 일상적인 제품과 패션 아이템부터 고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디자인 퍼니처와 컨템퍼러리 예술 작품까지. 오를란디의 컬렉션이 특별한 점은 대상으로 삼는 종류와 가격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침은 운영 관리가 복잡하고, 외부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녀만의 확고한 철학 때문이다. "디자인의 매력은 민주주의적이라는 점이에요.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 의식주를 둘러싼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라이프스타일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디자인 컬렉션엔 삶이 담겨야 해요. 그래서 전 삶을 둘러싼 다양한 제품을 수집해요. 생명력 있는 제품을 찾아내고 이들 간에 대화를 창조해 일상의 공간에서 소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갤러리스트로서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디자인 작품들 사이, 작품과 사용자 사이, 또 그들의 일상 공간 사이에서 유기적인 대화와 소통을 업으로 삼아온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날 디자인을 매개로 대중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어김없이 잉태되고 있는 것 같다. 운영에도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녀는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3년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에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발세키가 거주해온 바기티 발세키 미술관(Museo Bagatti Valsecchi)과 손잡고 〈바기티 발세키 2.0〉 전시의 큐레이션을 지휘했다. 고전적인 수집품들을 보유한 럭셔리 주거 공간에 파격적인 컨템퍼러리 디자인 작품을 매력적으로 배치한 이 전시는 과거와 현재의 일상을 소통시켜 미래를 창조한다는 스토리를 전달해 디자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에는 보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지속중이다.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많은 컬렉터들이 방문하는 사르데냐 지역에 임시 갤러리를 개관한 데 이어, 현재 연말 개관을 목표로 공간 제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구매 가능한 웹 사이트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의 갤러리계 일각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듯하다. 하지만 오를란디가 누구인가? 경계를 금기를 깨는 새로운 발상과 시도로 디자인 갤러리의 기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던가. '작지만 큰' 그녀가 또다시 컨템퍼러리 갤러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은근히 품어본다.

글: 이영미(디자인 스튜디오 D3 대표)



동서양, 빈티지와 컨템퍼러리를 융합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온 선구자

Nina Yashar

밀라노 명품 패션 거리 몬테 나폴레오네 지역에서 프라다, 에르메스, 티파니앤코, 돌체앤가바나 숲이 밀집한 스피가 거리(Via della Spiga)의 초입에는 지난 36년간 위상을 지켜온 갤러리 닐루파가 있다. 거리를 따라 가로로 펼쳐진 쇼윈도 속으로 이곳의 운영자 야샤르가 큐레이션 작업을 한, 동양과 서양, 빈티지와 컨템퍼러리 가구의 매력적인 믹스 매치가 눈길을 잡아끈다. 펜디,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구입한 디자인 퍼니처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꾸미는 것은 물론 야샤르의 절친인 미우치아 프라다, 마크 제이콥스, 리카르도 티시 등 패션계의 셀러브리티들도 자신들의 자택에 '닐루파표' 가구를 다수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고객인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필라티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이 갤러리 앞을 지날 때면 야샤르가 연출한 아름다움에 탄복하며 언젠가 그녀의 가구에 둘러싸여 살게 되기를 꿈꿔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자신도 밀라노의 대표적인 패션니스타로 손꼽히기도 하는 야샤르, 올해 새롭게 오픈한 닐루파 디포(Nilufar Depot)에서 그녀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실크 의상에 자신의 뿌리인 중동을 상징하는 자신의 패션 시그니처인 터번을 쓴 채 맞이했다.

Interview

밀라노로 이주한 이란 소녀, 디자인계의 페기 구겐하임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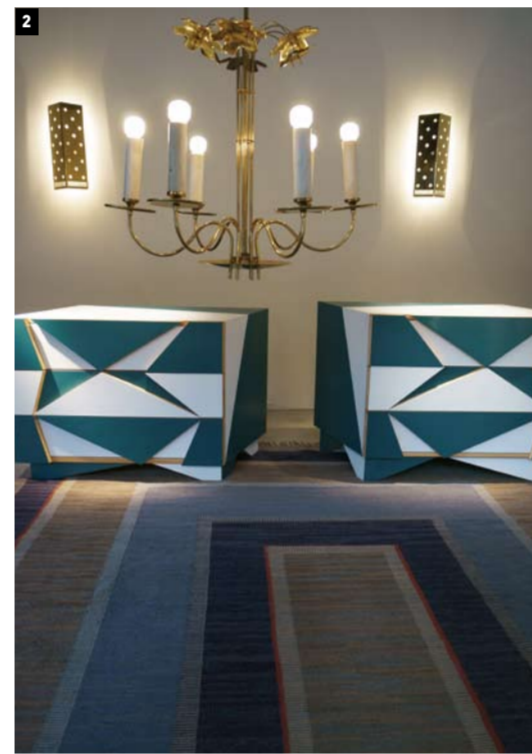
1957년 이란의 테헤란에서 태어난 야샤르는 6세 때 가족과 함께 밀라노로 이주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이 강한 부모님 아래 자라난 그녀는 대학 시절 동서양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해온 도시 베니스에서 동양어를 전공하며 자연스럽게 예술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선구적인 비즈니스 감각으로 명품 페르시아 카펫을 밀라노에 판매해온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그녀는 1979년 카펫을 간판으로 내세워 갤러리 닐루파를 설립했다. 탁월한 안목으로 중동 현지에서 고른 이국적인 카펫들은 서양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이 높은 밀라노의 상류층에도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갤러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중동을 넘어 인도와 중국 등을 돌며 엄선한 다양한 카펫을 들여왔고, 밀라노 최초로 보풀 없이 굵고 평평하게 직조하는 킬림(Kilim) 기법의 카펫을 선보이며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다. 고전적인 취향 일색인 페르시아 카펫 갤러리와 달리, 컨템퍼러리를 지향하는 서양인의 취향과 어우러지면서도 예술성 높은 동양의 빈티지 카펫을 쏙쏙 골라오는 그녀의 남다른 컬렉터 재능이 갤러리 닐루파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카펫을 인테리어에 접목해 공간에 연출하는 큐레이터적인 재능 역시 큰 무기였다. 1989년 갤러리를 현재의 패션 중심지로 이주한 그녀는 주기적으로 테마를 정해 카펫 전시를 펼쳤다. 화려한 꽃 문양이 돋보이는 카펫을 과감하게 연출한 <장미>전을 시작으로, 벽 인테리어로 벽지와 페인트가 유행하던 1980~90년대의 유행에 과감히 맞서 그것을 카펫으로 대체하는 연출을 펼치며 주거 공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인도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와 티베트 등 동양과 서양, 빈티지와 컨템퍼러리 카펫을 과감하게 믹스 매치한 전시를 선보이며 이질적인 것들의 묘한 조화가 자아내는 참신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야샤르는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새롭고 좋은 취향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탐험과 교차를 통해 새로운 창조가 닐루파의 모토라고 밝혔다.

스칸디나비아 여행을 계기로 뛰어난 가구 컬렉팅

1980년대 후반, 카펫으로 점철됐던 그녀의 인생 항로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도래했다. 카펫 구입자 북유럽으로 떠난 출장에서 스칸디나비아 가구를 만난 것이다.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 루이스 포울센(Louis Poulsen),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등이 펼치던 유려한 곡선의 가구와 조명에 사로잡힌 그녀는 예기치 않게 카펫 대신 가구를 사서 밀라노로 돌아온다.

사진: 아우토라 디 자넬라(Aurore di Girolamo)



1, 2, 3 카펫 갤러리로 시작한 닐루파의 역사를 반영해 각 디스플레이 공간은 카펫으로 공간을 나눠 다양한 테마로 연출했다. 20세기 초반의 목재 가구, 1940~50년대 이탈리아 기능주의 양식 가구, 조형과 더불어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과감하게 매치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4 올해 새롭게 선보인 초대형 갤러리 닐루파 디포. 밀라노 북부의 3층짜리 은 식기 공장을 오페라 극장처럼 레노베이션해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 제공 Amendolagine Barrachia



이후 디자인사 공부에 매진한 그녀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조 폰티(Gio Ponti), 지노 사르파티(Gino Sarfatti)의 가구를 수집하는 한편,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 등 당대 거장 아티스트, 건축가들과 협업하면서 자신의 컬렉션을 확장시켜나갔다. 이처럼 카펫과 더불어 가구를 접목해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확장한 닐루파는 디자인 갤러리로서 오늘날의 명성을 이뤘다. 동서양, 그리고 빈티지와 컨템퍼러리의 이질적인 매력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닐루파만의 감각이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의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갤러리로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다.

2005년 이후 고가의 디자인 퍼니처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자 야샤르는 신진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는데에도 적극 나섰다. 밀라노뿐 아니라 디자인 마이애미와 바젤에 매년 이 작품들을 거장의 빈티지 가구들과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 디자인 마이애미의 총감독 로드만 프리막은 닐루파가 이 행사에서 늘 최고의 방문객을 이끄는 곳이라고 말하며 야샤르를 가구 딜러계의 페기 구겐하임이라 극찬한 바 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만에 닐루파가 선택한 작가들의 작품 가격은 해외 컬렉터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몇 배로 급격히 뛰어올랐고, 그중 몇몇은 스타로 거듭났다. 세련된 감성의 디자인 가구를 자체 제작하는 스튜디오 누클레오(Nucleo)와 폐가구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주로 하는 마르티노 캄페르(Martino Gamper)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캄페르의 경우, 야샤르가 1백 일 동안 1백 개의 의자(100 chairs in 100 days)라는 테마로 전시를 연출했는데, 이후 무명이었던 그는 밀라노, 런던, 상하이 등의 우수 미술관에서 초청받아 순회전까지 여는 유명 인사가 됐다.

성공 비결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유연한 경영

유럽의 장기 불황으로 많은 갤러리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성장세인 닐루파의 성공에는 럭셔리 하이엔드 가구 시장에 집중된 전략이 한몫했다. 야샤르는 VVIP 시장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변화의 흐름도 예리하게 읽어내야 해요. 취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세계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새로운 상류층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영감을 주는 디자인을 제시하는 일은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롭죠.”

변화와 실험을 멈추지 않고 꾸준한 진화를 모색한 덕에 온갖 외풍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것이다. 빈티지 가구 전문가로 특히 1950년대 이탈리아 디자인을 선호하는 야샤르지만 컬렉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컬렉션의 기준과 관심사를 묻지만 사실 저는 특별히 한 분야를 고수하지 않아요. 향후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지 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지루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늘 새롭게 관심을 끄는 걸 찾죠.” 그러한 차원이었을까. 그녀는 올해 4월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에 새로운 공간인 닐루파 디포를 선보여 디자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500㎡에 달하는 3층의 허름한 은식기 공장을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라 스킴라를 연상시키는 현대적인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초대형 공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점에 달하는 근사한 컬렉션으로 가득 찬 3개 층이 한눈에 펼쳐지는 광경은 방문객을 절로 압도한다.

“이 개성 강한 가구를 자신의 공간에서 기존 가구와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매력적으로 매치할 수 있도록 컬렉터들에게 자신감과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이 갤러리스트로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각각의 실로 나뉜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음색처럼 유기적인 하모니를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척 공 들여 완성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벌써부터 ‘더 놀라운 다음 실험을 고민하는 그녀의 씬 없는 열정에 더욱 감탄이 배어났다. 글 에이팅(디자인 스튜디오 3D 대표)

2015 Art+Culture STYLE CHOSUN

Arik Levy

심미성과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디자인과 자아를 표출하는 아트를 '겸업하는 아릭 레비. 서프보드에 그림을 그려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에 입문했다는 그의 삶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일종의 호흡처럼 그를 지탱해왔다. 테크노 시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전천후 크리에이티브 레비와의 대화.



46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는 파리 20구에 자리 잡은 한 아틀리에. 우연찮게 공휴일에 만남이 이뤄졌던지라 이 스튜디오의 주인인 장신의 남자는 모터 사이클을 타고 도착해 문을 열고는 직접 안으로 안내했다. 자신처럼 구불구불한 곱슬머리를 나누끼는 일곱 살짜리 딸과 함께.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과자를 꺼내 인심 좋게 건네는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디자인계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인 아릭 레비(Arik Levy). 언론에서 필립 스타크, 론 아라드와 함께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라고 칭하곤 하는 슈퍼스타다. 제품, 인테리어, 무대미술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신소재, 신기술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녹여내는 남다른 재주와 디자인 언어 덕분에 '테크노 시인'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수식어를 꿰찰 정도로.

서프보드와 함께 지낸 아티스트 사랑

하지만 그는 디자이너라고만 불리기에겐 조각, 그림, 사진, 비디오 아트 등 상당히 넓은 창조 스펙트럼을 지닌 인물이다. 이제는 선 줄에 접어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레비는 오랫동안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들면서 아티스트로도 꾸준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다(그의 작품 세계를 다룬 두꺼운 아트 서적도 2권 나와 있다). 특히 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구조적 조각 작품 '록(Rock)' 시리즈는 이제 그를 상징하는 수작으로 여겨진다. 워낙 팔방미인형 인재를 많이 만나보긴 했지만 그래도 슬쩍 궁금해졌다. 상업적인 성공과 명성을 동시에 거머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기에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왜 아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그거야 전 열네 살 때부터 치열하게 뭔가를 그리고 만들어왔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자코메티의 드로잉을 사랑했고, 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다 그리는 솜씨가 늘어 나중에는 '소년 페인팅'로 생업까지 하게 됐다면 믿겠어요(웃음)?" 10대 시절, 그는 서프보드를 에어브러시로 채색하고 단장하

는 일로 제법 돈벌이를 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텔아비브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서핑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소년이었는데 아트에 대한 관심을 버려 '예술적인 서프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려 1천5백 개가 넘는 서프보드에 그림을 그려 넣었고, 꽤 잘 팔렸단다. 당시 그는 헝가리 출신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를 비롯해 기하학적 형태와 선에 의한 착시 효과를 내세운 키네틱 아트 작가들을 열렬히 추종했고, 서프보드 작업을 할 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사렐리의 오리지널 프린트를 1982년에 처음으로 갖게 됐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작품은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어요." 움직임과 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린 분야는 자동차 디자인. 사실 한 번도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스위스의 유명 아트 스쿨인 아트센터 유럽(Art Center Europe)에 자동차 디자인 전공으로 지원까지 했다. 무용을 하던 여자 친구가 제네바로 유학을 떠나자 그도 따라나서면서 내린 당돌한 선택이다. "당시 여자 친구가 2주 먼저 떠났는데, 제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주고는 학교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친구가 곧 찾아올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요." 이 황당한 전갈을 받은 학교에서는 다소 난감해했지만 실제로 2주 뒤에 서프보드를 안고 찾아온 레비를 합격시켰다(자동차 디자인에 정을 못 붙인 그는 나중에 산업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꿨다).

'테크노 시인'이라 불리는 전천후 크리에이티브의 탄생

졸업을 한 그는 세이코-엘슨의 후원으로 일본에서 몇 개월 보낸 뒤 그다음 정착지로 향했다. 그가 지금까지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파리였다. 지금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는 폐기와 의욕으로 푹푹 뭉친 채 1990년대를 누구 못지 않게 바쁘게 살았고, 커리어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갔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예술적 자아를 찾고자 게을리하지 않았던 '실현'이 바로 주변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록' 시리즈의 시작점이었다. "그런 게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연과 소셜 코드(social codes), 감정, 기술적인 영역, 그리고 나의 예술 세계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끊임 없이 하고 있었다고 기억되네요. 그것이 비대칭의 기하학적 조각물을 탄생시켰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록' 시리즈 중 대형 조각으로 처음 설치된 작품이 2006년의 '빅 록(Big Rock)'이다. 거울광으로 마감해 사람이든, 빛이든, 나무든, 노을이든, 구름이든 주변의 이미지를 비추는 이 작품은 그의 디자인과 예술 세계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대표작이 됐다. 나무, 황동, 레진 등 다양한 소재와 구조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록' 시리즈는 이제 미국, 네덜란드, 체코 등 세계 곳곳에 공공 미술 작품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가 의도한 '록' 시리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와 연결하게 해주는 의도로 만들었다는 게 '테크노 시인'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그의 설명이다. "내 바위 조각은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바위는 아니잖아. 여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중력점을 만들어내고 끝없이 진화하는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언더그라운드 고전'으로 꼽는 <Art & Fear>라는 책을 보면 재료는 예술가들의 환상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대목이 나온다. 어떤 재료로 판가를 빚어내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손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실제로 재료의 성질과 머릿속 구상을 현실에서 일치시키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테크노 시인'이라는 별칭을 얻는다는 건 꽤나 뿌듯한 영예일 터다. 자기만의 심상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정제된 작품으로 펼쳐놓을 수 있다는 뜻일 테니 말이다. 그의 바위 조각 시리즈처럼.

예술가여,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가구나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아트 퍼니처나 오브제를 만드는 경우는 꽤 있어도 레비처럼 큰 규모의 추상 조각이나 설치물 하는 작가는 흔치 않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행보를 가리켜 소위 '예술 놀이'가 아니냐고 보는 다소 뼈뺀한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문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은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 엔지니어이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심지어 사진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예전의 초상화가들은 오늘날로 치면 사진가이기도 한 셈인데, 생계를 위해 초상을 그리고 그 돈으로 낙하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였느냐고. 그러고는 자신은 오히려 괜히 갤러리의 눈치를 보거나 금전적인 곤경을 겪지 않으면서 창작과 전시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털어놓는다. "아직은 예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도달해보지 못한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겸허한 마음과 도전적 야심을 함께 품은 채 눈을 뜨죠. 그렇지만 이미 관심 있는 일을 찾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그렇다. 정말로 창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작품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걸 찾았다면, 그저 자신의 작업에 몸을 담그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 옛날, 서프보드를 신들린 듯 채색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익혔던 것처럼, **글 고성민**



1 아릭 레비의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작 '록' 시리즈의 파생작 'Abstract Stone'. 2 디자인 브랜드 베레움(Verreum)과 손잡고 만든 'Influence Clear Silvered'. 3 '록' 시리즈 중 하나인 'RockFusion'의 황동색 버전. Photo by Ian Scigliuzzi. 4 LED 조명을 활용한 작품 'FractalLED'. Photo by Ian Scigliuzzi. 5 2014년 아트 브뤼셀(Art Brussels)의 아토미움(Atomium) 행사에서 전시된 'RockGrowth'. 바위 같은 광물을 유기적인 식물 씨앗처럼 삼는다는 개념에 만든 작품.





1

이토 도요가 원래부터 자연 속의 건축물을 꿈꾼 것은 아니다. 나가노 현의 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도쿄'의 휘황찬란한 이미지는 콤플렉스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열기왕성한 젊은 건축가로서 그는 '근대가 곧 도쿄'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도쿄의 버블 경제에 취해 투명하고 평면적인 건축,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감 없는 건축물을 추구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도쿄는 매력적인 모습을 잃었고, 그는 마치 고향과도 같은 미래의 자연을 꿈꾸게 됐다.

이러한 건축 철학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그의 작품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면모가 여러 모로 반영되어 있었다. 나뭇잎 모양으로 콘크리트를 조형한 토즈 오모테산도 빌딩, 숲 속을 거니는 듯 아치가 이어지는 다마미술대학 도서관, 고즈넉한 숲 속의 공간을 연상시키는 센다이 미디어테크 등 그의 작품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연환경에 열려 있는 건축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 선보일 그의 건축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건축은 원래 예술이 아니었다?

이효원(이하 효)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야외 설치 작품 '윤무가 한국에서 선보인 첫 번째 작품이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얻어 완성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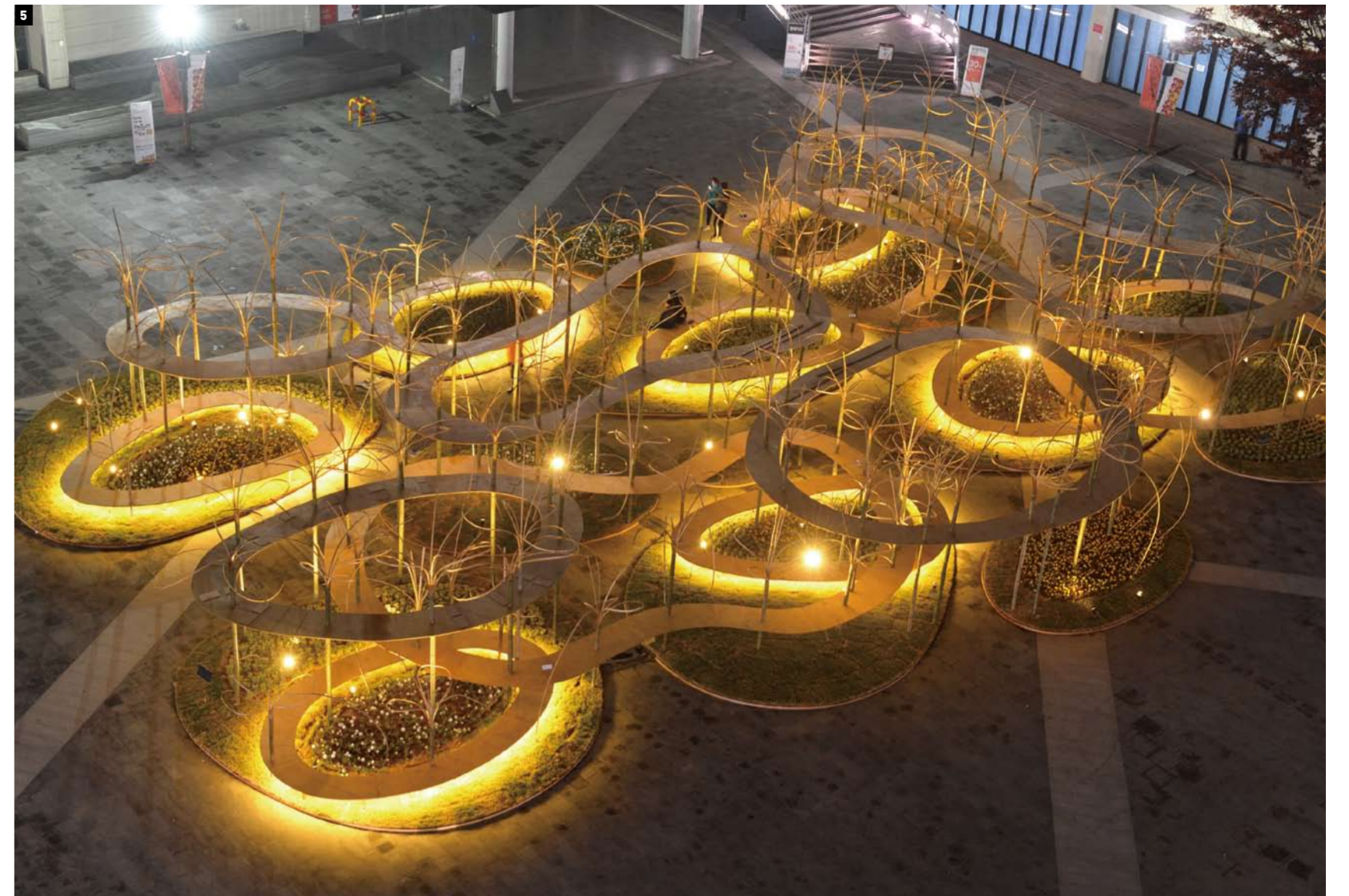
이토 도요(이하 도) 오래전부터 건축이 자연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생각했어요. 담양 소재원에서 본 숲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나무를 이용해 작은 섬을 만들었는데, 저 역시 대나무를 사용한 것은 난생처음이라 새로웠죠. 언제부터인가 자연 속의 삶을 동경해왔고, 도쿄를 떠나고 싶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건축가 입장에서, 현인들이 시를

쓰고 문장을 짓는 대나무 숲에 흐르는 물과 바람을 재현했으니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기 바랍니다.

효 당신의 후기 작품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자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도** 자연이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잔인하지요. 항상 교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건축도 마찬가지로 예요. 건축가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연을 느끼게 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고, 인간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처럼 건축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효 당신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도** 다행히 일본의 건축 기술이 크게 발달했고 노하우도 축적되어 제가 추구하는 자연과 밀접한 건축물을 구현하기에 유리한 편입니다. 기술은 당연히 활용돼야 하지만, 근대주의의 연장선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연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건축물 경계 벽을 강화해 자연과 분절되면 서까지 단열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벽으로 내부를 외부 환경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장지문과 마달이문이라는 여러 개 있던 과거의 목조 주택처럼 단열 기능을 높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효 당신을 '생태 건축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 생태 건축가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자연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서 항상 고민하기 때문



5

1 건축가 이토 도요의 최근 모습. 2 이비비 이토 도요 건축 뮤지엄의 이비비온 전경. Toyo Ito Museum of Architecture, Imabari. © Daici Ano. 3 이토 도요에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과 프리츠커 건축상을 안겨 준 동일본대지진 복구 프로젝트 '모두의 집-Home-for-All in Rikuzentakata'. © Naoya Hatakeyama. 4 다마미술대학 도서관은 아키타기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치 숲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Tama Art University Library (Fachioji Campus). © Ishiguro Photographic Institute. 5 이토 도요가 우라바에서 처음 선보인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야외 설치 작품 '윤무'의 이비비온 전경.

자연과 함께하는 21세기 건축을 말한다

소비의 건축을 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실천하는 건축계 거장 이토 도요.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이며 이듬해에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까지 받은 그가 한국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작품 '윤무'를 완성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해 방한한 이토 도요를 만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건축을 통찰하는 거장의 사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2



3



4

본문 4페이지(내리), Planning Minister) 문외공공디자인비엔날레(www.gdn.or.kr), 062-839-2444(www.impo.or.kr)

입니다. 형태적으로 유기적인 자연과 닮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생태에 대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의 집'은 계속된다

효 동일본대지진 복구 프로젝트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피해 주민을 위해 건축가로서의 욕심을 버리고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집합 주택과 '모두의 집'을 선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 **도** 일본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토목 기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지만,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귀찮았어요. 제 경우에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호출되지 못했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재난 지역에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토목 기술로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건 부흥 의도가 확고했던 거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피해 지역의 본래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적 사고 중심으로 가설 주택을 짓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어요. 건축은 원래부터 예술 장르는 아니었어요. 저는 농사를 지으며 살던 피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모여 웃을 수 있도록 자연 속의 집합 주택을 만들었고, 위기를 겪은 이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마을 회관 같은 개념의 '모두의 집'을 설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진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젊은 건축가와 함께하는 '모두의 집'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체육관 등 기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구요.

효 건축가로서의 명성이나 부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 대단히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저도 젊을 때는 경쟁한 건축가들 사이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젊은 건축가들도 아마 그때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들도 연륜이 쌓이면 알게 되겠지만,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효 당신은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해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야외 설치 작품 '윤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작은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큰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았을 텐데,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보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도** 이번 야외 설치품 같은 소박한 프로젝트는 제 영감의 원천이에요. '모두의 집' 역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했죠. 국내의 소박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생각이 하나둘 연결돼 결국 발전된 사고와 사상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시간도 촉박하고 도쿄와 광주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완성 작품이 아름다워서 흡족합니다.

효 미래의 건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가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하겠지만, (스타일 조선훈) 독자들도 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도** 물론이죠. 저는 젊은 건축가도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위한 건축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해보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발상이 나와요. '건축은 꼭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인 듯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건축과 집에 대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획기적인 발상이 억제되고 억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육이며, 집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공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건축은 건축가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

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 원리를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 윤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새롭게 선보일 건축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80% 정도의 프로젝트가 일본이 아닌 아시아에서 이뤄집니다. 제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건축 시장이 크고, 아시아 클라이언트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세계 건축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아시아에 쏠려 있으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20세기에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건축 원리가 아시아로 수입되고 재편됐다면, 현대는 아시아 건축의 파워를 세계에 발산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년에 선보일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대만의 오페라하우스와 싱가포르의 콘도미니엄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으로 자연주의 건축 철학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누가 그를 70대라고 생각할까? 어떤 이에게는 은퇴를 고려할 나이겠지만,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간 국내외에서 훌륭한 건축물들을 선보였지만, 이토 도요의 가장 큰 업적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자연에 녹아든 집합 주택과 피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은 마을 회관 '모두의 집'이 아닐까 싶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지진 피해 복구에 참여한 감동적인 프로젝트는 그에게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2013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안겨줬다.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려는 예술가로서의 욕심을 접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만든 소박한 '모두의 집'은 현재까지 14채가 완성됐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과 예술가로서의 표현 욕망을 현명하게 조율하는 거장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쥬비 글 이소영**



하위문화의 유쾌한 반란 _ OZMO

예술계에서 오랜 시간 저급한 예술로 폄하되며 천대받아온 스트리트 아트. 하지만 어떤 장르보다 대중의 일상 가까이에 호흡하고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온 이 예술은 최근 미술 경매 시장의 높은 관심과 아티스트들의 약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문화 사절로 떠오른 이탈리아 스트리트 아티스트 오즈모를 만나 예술의 신선한 신기류, 스트리트 아트의 현장감 있는 실상을 살펴봤다.

1886년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세운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압제자 사보나롤라를 몰아낸 시민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 이 기념비적인 두 작품이 서로 가을에 비친 듯이 발을 맞대고 서 있다. 어둠에 대항해 햇빛을 권손을 뻗어 어둠을 밝히는 여신과 돌을 들고 거인 장수 골리아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는 용맹한 청년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 성별을 뛰어넘어 어쩔지 않았다. 이 흥미로운 벽화는 두 나라의 인권과 시민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문화적 원형을 통해 다르면서도 닮은 국가 정신을 표현한 스트리트 아트다. 오즈모(Ozm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조나타 게시(Gionata Gesi)의 작품이다. 2014년 주미 이탈리아 대사가 미국 마이애미 윈우드 예술지구(Wynwood Art District)에 미국과 이탈리아의 친선과 수교를 기념하는 벽화를 의뢰했고,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한 오즈모는 가로 30m, 높이 6m의 거대한 벽에 이 인물들을 담아냈다. 좀 더 유심히 작품을 감상하면 그림 속에 담긴 자유의 여신상이 그의 벽화와 묘한 대비를 이루며 예술계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미국의 독립 1백 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친선의 메시지로 제작한 이 귀한 여신상을 완성하려고 양국은 장장 10여 년에 걸쳐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고, 프랑스의 대표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는 토크 기사 구스타브 에펠과 협업했다. 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이 거대한 작품은 결국 독립 1백10주년이 되어서야 뉴욕 허드슨 강 입구 리버티 섬에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1백28년 뒤, 사뭇 대조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이탈리아의 문화 사절 역할을 맡은 오즈모는 마이애미행 알 이탈리아 항공 여객기 집간에 스프레이와 페인트만 단출하게 싣고 대서양을 건너왔고, 같은 작품의 설치(?)를 무시해 마쳤다. 전체 스케치에 소요된 기간은 고작 8일, 의뢰 시점으로부터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영리한 아티스트는

양국의 독립과 자유를 표현하는 대작을 활용해 편견을 벗어난 예술의 독립과 자유, 스트리트 아트의 승리를 위트 있게 그려냈다. 햇빛과 돌 대신 스프레이 붓을 든 채로 말이다. 어느덧 국가의 친선 예술이 조각을 비롯한 전통성 있는 순수예술에서 소위 하위문화, 저변 문화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아트로 변모한 것이다.

신화와 현실을 넘나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오즈모는 아이러니하거나 낙서화된 형태로 스트리트 아트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키스 헤링이나 장 미셸 바스키아 같은 '전설'들과는 물론,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영국의 뱅크시, 현대적이며 사실주의적 표현 기법이 담긴 프랑스의 제이알 등 동년배의 유명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과도 현격히 차별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대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작가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어 관람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죽음과 생명, 아름다움과 추함, 고전과 현대, 비극과 해학 등 대조적인 요소를 배치해 관람자의 시선과 경험, 지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한 관람자조차 감정과 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감상과 다른 해석을 발견하기도 한다. 타 작가들에 비해 다양한 세대에 걸쳐 그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밝힌 작품 전략은 '모호함과 '상징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소재 선정에서 타로, 신화에 담긴 전통적인 소재가 현대적인 소재와 뒤섞여 있는 점은 '오즈모표' 스트리트 아트의 큰 특징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카라바조의 회화 속 성인(聖人)과 고전 인물들에서 왕관을 쓴 미스 월드와 총을 든 나체의 여군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성격이 다양한 대상이 복잡한 군상을 이루고 있음에도 훌륭한 구도가 안정감을 주면서 공간에 풍부한 스토리를 부여한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밀라노 예술의 거리 브레라 지역에 위치한 오즈모의 작업실에서 작가와 함께 만난 매니저 시모나 나바(Simona Nava)는 처음 인

터넷에서 그의 작품을 본 순간 이 단어를 떠올렸다고 회상했다. '기계를 타고 온 신'이라는 의미인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사용하던 극작(劇作)로, 극의 긴박한 국면에서 기계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이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말로 이끌어가는 수법을 의미한다. 철학 박사 출신인 그녀는 로마 시대 이후 분리파버린 예술과 신성성의 맥락을 놀랍게도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에서 발견했고, 이에 즉시 매료돼 일면식조차 없던 오즈모에게 같이 일하자 청했다고 말했다. 오즈모가 전통적인 예술적 원형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 이탈리아에서도 특히 전통이 잘 보존된 토스카나 지방의 피사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르네상스 발상지인 피렌체의 브레라 예술대학에서 순수 회화를 전공한 그의 배경에 기인한다. "사실 전 어린 시절 만화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그 타협점으로 유서 깊은 미대에 진학하기로 했죠.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인 구도와 고전 회화의 사실적 표현 기법이 제 작품에 영향을 줬고요." 특히 것처럼 토스카나 출신인 르네상스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과 과학을 넘나드는 발상은 고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기존 예술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에 대한 도전 의식에 불을 지폈다.

벽과 스프레이만 있으면 OK, '나만의 미술관'을 찾아 열정을 분출하다
그의 영웅 다빈치가 남긴 규모 큰 벽화 역시 캔버스를 넘어 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오즈모는 1997년 대학 졸업 후 현실적인 대안으로 광고 회사를 직장으로 택했는데, 그 주요 동기는 '보다 큰' 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었다.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4년간 일한 그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스튜디오의 성격상 훌륭한 컨템퍼러리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작가가 데뷔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술적인 열정을 분출할 타계책을 찾았지만 젊고 무명인 그의 작품을 환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년 시절 친구들과 장난 삼아 기차에 스프레이로 사인을 남기던 그라피티를 떠올렸다. 바로 이거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 벽과 스프레이만 있으면 어디든 그의 미술관이 됐다. 미술관과 달리 관계자의 인맥, 심사, 대관 비용, 시간 등이 필요 없었고 순식간에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으며, 일상의 공간이기에 보다 많은 이들과 호호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짜릿한 해방감을 만끽하며 남몰래 그라피티를 남기던 그는 점차 광고에서 표현할 수 없는 터부시되는 주제, 죽음, 종교 등을

다루는 회화적이고 정교한 스트리트 아트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로 작품 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나 초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공 기물 파괴로 베를린에서 경찰에게 잡히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스트리트 아트계에서 상당히 낮은 주제인 고전을 소재로 삼은 그의 작품은 점차 두각을 나타냈고, 오즈모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유서 깊은 현대미술관 PAC(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900 미술관(Museo del 900 di Milano), 팔라초 레알레(Palazzo Reale) 등에서 초청전을 여는 파격적인 기회를 갖게 됐다. 이제 그는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브콜을 한 몸에 받는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스트리트 아트 열풍과 냉혹한 작가적 현실

8년 전, 겨우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영국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의 벽화가 연이어 1백만달러 이상을 호가하며 영국과 미국의 미술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후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그 세계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의 현실은 아직 냉랭하기만 하다. 일부 작가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타 아티스트 뱅크시조차 경매에 나오거나 갤러리에서 판매된 작품은 '벽의 주인이 소유를 주장해 판매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정작 그가 직접 캔버스에 그려 미국 센트럴 파크 앞에서 개당 60달러에 판매했을 때는 대중의 차가운 외면을 받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물론 악명으로 판매한 탓이 크지만). 예술과 반달리즘 사이에서 작품 가치 평가 기준의 모호함과 법적 소유권 문제, 작가에 대한 대우, 작품 보수와 유지 등 스트리트 아트는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까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오즈모 역시 그런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와 예술적 지원의 한계를 안타깝게 여긴다. '스트리트 아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18년간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저와 함께 시작했던 많은 작가들이 이 길을 포기했어요. 작품이 알려지면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전시와 구매를 하고, 기관에서 공공 미술 등 요청을



1 2014년 미국 마이애미 윈우드 예술지구에 설치된 작품. 미국과 이탈리아의 수교와 친선을 기념하며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과 다비드상을 마주 보게 표현했다. 2 2007년 회화, 미스 월드 시상 순간 황해에 찬 수상자의 얼굴은 웃지만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고 참가자들은 축하하는 이들에게 질투하는 이, 사상에 상관없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이들 다양한 군상들로 이루어낸 순간을 포착했다. 3 2012년 로마 신 마르코 미술관에 작업한 '우리는 많은 형제들보다 기차가 있다. 하위 계층을 착취하고 정적 상류층에만 소급하는 예술계의 행태를 비판하며 비이성적인 독재와 자본가 움직임은 예술계가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1년 말라노 파브리카 델 비포레(Fabbrica del Vapore)에 전시한 '스킬 데스(Skil Death)',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사람의 눈을 함께 그려 넣어, 해골 위에 사람의 눈 사춘을 붙인 것이지, 살아 있는 사람이 해골 밑을 쓰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모호성을 부여해 관람자의 사산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남긴다.

받아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만, 기회가 너무 적어 다른 직업에 종사한 채 취미로만 작업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또 스트리트 아트를 반사회적 행동이라며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유명 미술관에서도 초청받아 전시를 하지만 미술관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를 대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큐레이터가 스트리트 아티스트에게 미술관에 페인트칠을 하는 도색공 이하의 작업료를 제시하는 일도 있어요. 또 전시 이후 작품들은 보관은커녕 덧칠해서 지워버리기 일쑤죠.”

을(乙)의 자전 일상을 위로하며 대중을 찾아가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전진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숙명이라 말한다.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과거의 모든 예술가들이 같은 어려움에 도전해오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경쟁적인 타 영역 아티스트들과 달리 동료들 서로 격려하고 돕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오즈모 역시 인터뷰 중 “나라는 표현보다는 타 아티스트들을 포함

시킨 ‘우리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스트리트 아트만의 친근한 매력도 그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는 이유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예술계의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대중이나 소외 계층, 갑(甲)이 아닌 을(乙)과 소통하며 그들의 예술적인 경험을 충족시키는 민주적인 예술이라는 점을 뿌듯하게 여긴다. 미술관을 찾기 힘든 이들이 거주하는 문화 소외 지역이나 서민적인 지역에 파고들어 예술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풀어놓고 즐거움을 전하며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받지 못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한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은 현장에서 작가님 작업하다 보니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면 큐레이터보다도 미술관을 운영하는 핵심 인물(인) 경비원, 엔지니어, 스태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오만한 미술 관계자들에 대해 불만과 편견을 가진 직원들조차 현장에서 자신들 이상으로 땀 흘리며 고생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에 어느듯 무장해제되어 팬이 되고, 타 미술관의 또 다른 실세를 소개해준다고. 덕분에 오

즈모는 밀라노의 미술관 관계자들에게 VIP로 환대를 받으며 값비싼 미술관을 ‘프리 패스’하고 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로서는 드물게 주류 예술과 문화계에서 새롭게 조명받으며 많은 관심을 받는 오즈모. 그는 감이 알 수 없는 을의 세계에서 더 맹렬하게 환대받으며 문화 사절로서 활약하는 현대판 데우스 엑스 마키나다. 현재 사회적인 관심과 투자 비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주류 예술계에서는 무시당하는 스트리트 아트. 그러나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즈모 같은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은 편협한 예술계의 관행과 높은 컷대에 치저 예술의 즐거움을 잃고 헤매는 대중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을들의 슈퍼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몇몇 아티스트들의 뒤는 활약상만으로 스트리트 아트를 지나가는 유행이자 거품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대중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예술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그 열기가 용암처럼 아주 낮고 깊은 곳에서 서서히, 그러나 뜨겁고 끈끈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클 에비엠(디자인 스튜디오 D3 대표)

독특한 문화 형식과 질서를 갖춘 그라피티와 스트리트 아트

1960년대 중·후반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등장한 스트리트 아트. 반세기 가 졌지만 아직까지도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서는 예술 장르와 불법 낙서라는 양극의 평가가 공존한다. 명칭에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라피티(Grffiti)와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를 혼용하고 있지만 작가들은 나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문자와 이름에 집중하는 작품을 그라피티, 이를 넘어서 회화적 작품, 설치 작업을 기미한 작품, 혹은 그와 그라피티를 포함한 예술 작업을 스트리트 아트로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이다. 문자로 구성되는 그라피티는 작가의 이름을 주 소재로 삼는데, 형식적인 요소에 따라 한 가지 색으로 재빠르게 표현하는 ‘태그(tag)’, 태그의 크기를 키우고 색감을 다양화한 ‘스로우(throwie)’, 혹은 ‘스로우업(throw-up)’, 질과 기술적인 완성도가 보다 높은 정교하고 실험적인 ‘피스(piece)’로 나뉘 친다. 보다 예술적인 형식을 띠는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큐레이터의 관심을 끌고자 이 형식을 차용한 가난한 아티스트들이 유입되면서 예술성이 높아졌다. 1980년대에는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 현대 예술의 슈퍼스타를 배출하면서 예술계에서 재평가되며 대중적 지지층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스트리트 아트를 연구해온 에니 바츠와베코 교수는 그의 자서에서 이 세계에 입문한 작가들의 의도와 표현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예술관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작품은 보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팔리거나 인정받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뜻 무질서하게 여겨지는 이 예술 세계에도 엄연히 그들만의 질서와 형식이 존재한다. 오히려 타 예술보다 엄격한 면도 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은 자부심이 높고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겨, 작품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예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를 작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작가의 개발한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위조로 간주해 ‘바이팅(biting)’이라 부르며 경멸한다. 벽과 기차, 공공 건물 등 공간을 선택하는 데도 그들 사이의 예절과 언어가 존재해 공간을 보다 나은 작품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된다. 예를 들어 이미 그려진 태그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이름과 작품을 덧쓰거나 태그해 자신이 앞선 작가보다 우월함을 표시하고, 다른 작가의 작품에 감명을 받거나 작품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 그 옆에 서명하거나 의견을 남겨 존경과 찬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작가들은 분명히 아닌 작품을 위한 낙태임을 사용한다. 마치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이 아이디를 사용하듯 자신의 존재와 자적을 표현하면서도 익명성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다. 벽을 대화창으로, 작품을 언어로 삼아 세상과 소통하는 스트리트 아트는 영향력적 소통을 지향하는 오늘의 디지털 문화에도 맞는다.



현대미술과 에로스의 관계?

21세기는 폭력과 죽음의 상징인 9·11테러로 시작했다. ‘예술의 죽음’, ‘신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모던 사상의 3D(death, 죽음)의 결과물이다. 그래서일까? 현대미술에 죽음의 욕망이 판을 친다. 다행히 삶의 욕망인 에로스도 만만치 않다. 에로스를 재현하는 작가들 가운데, 미술계에 포르노 작품으로 충격을 던진 제프 쿤스(Jeff Koons)와 올해 ‘더러운 구석’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애니시 커푸어(Anish Kapoor)를 소개한다.



애니시 커푸어, '더러운 구석' 일부(An detail), Photo by Simeunig

미술관에 19금이 있다. 영화관도 아닌데 말이다. 요즘 미술관에서는 실제로 ‘19금 작품’을 이유로 전시관 길 입구에 경비원 세위 통제하거나 이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대미술에서는 포르노 작품을 생산하거나 에로스를 재현하는 작가가 많아졌다. 이유가 뭘까? 제프 쿤스의 ‘구상적 포르노’와 애니시 커푸어의 ‘추상적 에로스’를 살펴보면 이 의문이 해소된다.

제프 쿤스 : 평화를 위한 포르노?

키치의 제왕이자 뉴 팝아트의 주자인 제프 쿤스의 세계 투어 전(2014~2015년)이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출발해, 파리 퐁피두 센터의 국립미술관을 거쳐 스페인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까지 이어졌다. ‘천상에서 만들어진(Made in Heaven, 1989)’ 연작을 전시한 퐁피두 센터의 한 전시실에 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 연작은 쿤스 본인과 그의 전처 일로나 스탈레르를 모델로 삼은 포르노 작품이다. ‘치치올리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헝가리 출신의 스탈레르는 1970년대 후반 각광받는 포르노 스타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포르노 배우 출신 국회의원이 된 인물인 치치올리나는 군중 앞에서 처침없이 가슴을 드러내 보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사담 후세인과 동침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탈레르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쿤스는 자신과 치치올리나의 섹스 장면을 포르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작나라리게 표현한 ‘천상에서 만들어진 연작(회화와 조각)’을 제작했다. 거기에 쿤스의 독특한 키치적인 방식까지 더해 유치한 포르노 작품을 재현했다.

마르셀 뒤샹의 ‘뽀(남성 소변기)’ 이후, 스캔들과 충격이 끊이지 않았기에 웬만한 자극에는 껌뽀도 하지 않는 미술계도

제프 쿤스가 ‘천상에서 만들어진 연작’을 계속 발표하자 진저리를 쳤다. 이 포르노 작품으로 쿤스는 미술계에서 추방될 뻔했다. 다행히 그는 이 포르노 스캔들을, 순진무구한 느낌을 주는 ‘피피(Puppy, 1992)’로 만회했다. 꽃과 풀로 뒤덮인 거대한 강아지 모형의 작품이었다. 이후, 에로스 에 대한 그의 집념은 좀 더 승화된 방식으로 재현된다. 그가운데 쿤스가 인류 최초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시대)를 근사하게 재현해낸 ‘벌룬 비너스(Balloon Venus)’가 있다. 이제 그는 생존하는 전후 현대 작가(1945년 이후 출생 작가)로서 가장 바쁜 작가가 됐다.

애니시 커푸어 : 폭력에 반대하는 에로스?

장엄한 문화의 절정체로 프랑스의 공지인 베르사유 성은 2008년 제프 쿤스의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적인 작가 한 명을 초대하는 현대미술전을 개최하고 있다. 작년 이유환에 이어, 올해는 인도 출신 영국 작가인 애니시 커푸어가 초대됐다. <애니시 커푸어, 베르사유>전(2015년 6~11월)의 메인 작품은 ‘더러운 구석(Dirty Corner)’이다. 길이 60m, 높이 10m, 수천 톤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작품

은 베르사유 정원의 길고 긴 잔디밭 위에 철퍼덕 누워 있다. JDD(프랑스 일요 신문, 5월 31일 자)와의 인터뷰에서 커푸어는 “더러운 구석은 성적이며 권력을 권 왕비의 질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다. 일부 보수 프랑스인들은 이를 두고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성기를 묘사한 것. 커푸어가 베르사유와 프랑스의 정신을 모독한다’라며 분개했다. 작품도 세 번이나 훼손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더러운 구석’을 직접 가서 보니 스캔들도 비판도 떠오르지 않고, 단지 “아!”라는 감탄사만 나왔다. 탄생의 약동과 창조적 생동감을 억제하지 못해 에너지가 땅을 찢고 바위를 부서뜨리며 발산되는 느낌이였다. 베르사유에 전시된 커푸어의 모든 작품에는 동양적인 음양 사상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밤새가 물린 낫다. 그의 한 절친에 의하면, “커푸어는 최근 프로이트에게 폭 빠져 있다”라고 했다. 커푸어가 이처럼 프로이트에게, 특히 ‘에로스’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에로스 와 아프로디테

1931년 국제연맹의 제안으로 아인슈타인은 ‘현 상황에서 가장 긴급해 보이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두고 프로이트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때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타나토스(죽음의 충동)’와 ‘에로스(삶과 사랑의 충동)’의 본능이 있는데, 죽음과 파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전쟁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에로스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2011년 파리에서 커푸어와 인터뷰를 하면서, 위의 질문을 인용했다. 당시 커푸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상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 우리는 시민, 예술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작가 중 한 명인 그가 이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힘을 주어 기아의 심각성을 말하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대답 이후, 필자는 커푸어가 ‘역망’, ‘폭력’, ‘전쟁’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중국 작가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정부에 부당하게 압박당하자, 이를 패러디해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던 사상의 3D(death, 헤겔의 ‘예술의 죽음’, 니체의 ‘신의 죽음’, 푸코의 ‘인간의 죽음’)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1세기는 ‘9·11 테러의 폭발음과 함께 시작했다. 그 때문일까? 현대미술에서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타나토스 못지않게 에로스를 주제로 삼는 작품도 제법 많다. 에로스를 재현하는 작가 중 일부는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이나 컬렉터의 관심을 얻어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려고 한다. 다른 일부는 현시대에 책임감을 느끼고 에로스가 ‘폭력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을 통해 재현된 에로스 덕분에 사랑과 삶의 본능이 강해져 파괴와 죽음의 본능을 약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대부터 에로스(사랑의 신)는 늘 아프로디테(미의 여신)와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에로스가 미학적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에로스는 그저 포르노로 남을 뿐이다. 아무리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클 심은옥(미술 비평가, 김선대 객원교수)



1

프랑스 르네상스와 루아르 고성의 내밀한 이야기

예술의 나라라고 하면 대다수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떠올릴 것이다. 15세기부터 꽃피운 르네상스 때문이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밀라노공국, 파렌체공국, 베네치아공국, 만토바공국, 제노바공국 등 수많은 공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파렌체공국이 메디치 가문의 주도로 르네상스를 탄생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예술가를 키워냈다면, 밀라노공국은 스포르차 가문의 지배 아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들의 공정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스포르차 가문은 파렌체에서 활동하던 당시 30세인 다빈치를 초대해 후원했고, 이를 통해 그는 17년간 밀라노공국에서 30~40대의 젊음을 보내며 최후의 만찬을 포함한 6점의 그림을 남겼다. 16세기 이후 국력이 약화된 이탈리아의 공화국 체제는 점차 위해졌고, 르네상스도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의 프랑스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자위상의 대발견을 통한 부의 집중화가 이뤄졌으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봉건 영주들이 중립을 유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손에 넣기 위해 일정을 떠난 프랑스 왕들은 풍부한 문화와 르네상스에 대한 경이를 느꼈다. 특히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수아 1세(François 1, 1494~1547)는 국운이 기울아가는 모국을 떠난 채능 있는 이탈리아 예술가, 학자, 건축가를 프랑스로 초청함으로써 자국에 르네상스를 이식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을 따라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솟아났다. 천혜의 자연으로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는 이 일대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세운 아름다운 70여 개의 고성인 줄지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루아르 계곡에 터를 둔 고성의 역사는 르네상스 문화에 대한 커다란 동경을 품었던 프랑수아 1세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중세에 받아들여져 있던 앙부아즈 성(Château d'Amboise)에 이탈리아 양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화려한 연회를 위한 장식적인 성으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 강가와 계곡에는 중세적 유산과 르네상스 양식의 뛰어난 조합으로 프랑스식 건축양식을 꽃피운 다양한 성이 들어섰다. 이 다양한 고성들은 저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프랑스 동화 작가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경우에는 우세 성(Château d'Usee)의 낭만적인 풍경에 매료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창작했다고 한다.

이즈 성과 자하로 연결된 클로 루세 성(Château du Clos Lucé)에 머물도록 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올 당시 미처 완성되지 못한 주옥같은 작품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모나리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1516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519년까지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른 프랑스는 다빈치의 최고 수작을 포함해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16세기 프랑수아 1세가 직종해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세 때 완성한 상보르 성(Château de Chambord) 중앙에 위치한 특이한 이중 나선형 계단 역시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다빈치가 설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빈치와 그의 후원자이자 프랑수아 1세의 우정과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한층 더 유색했고, 앵그르 같은 프랑스 화가들은 이를 찬재 예술가가 프랑스 국왕의 품에 안겨 임종을 맞이한다는 감동적인 내용의 시간화된 그림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앙부아즈 성에 딸린, 사냥꾼의 수호성인 이름으로 댄 생 위베르 교회(Chapelle Saint-Hubert)에는 다빈치의 유해 일부가 묻혀 있고, 이탈리아풍 정원 앞에 있는 최초의 다빈치 무덤 자리에는 그의 흉상이 자리 잡고 있다. 다빈치를 낳은 것은 이탈리아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약한 문화를 한 단계 전진시키는 근간을 마련한 것은 프랑스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문화 예술 강국의 면모를 지니게 됐다.

낯선 곳에서 삶과 창작을 만끽하라

유럽은 성벽의 역사로 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과거에 성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는 군사적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들이 르네상스의 향기와 어울려 마지막 기쁨을 제공하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많은 고성인 관광지나 호텔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살아 숨 쉰다. 필자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고성에 초대받아 2015년 7월에는 마조레 호수의 프리노 성(Castello di Frino)에, 9월에는 루아르 강가의 소몽 성(Château de Chaumont-sur-Loire)에 머물면서 작업할 기회를 가졌다. 다른 문화권과의 낯선 대면은 창작으로 재탄생된다. 다빈치가 그려냈듯이 현대의 예술가들이 타 문화와 직접 충돌하는 노매드적인 도전을 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흔하디 흔한 사교방식이 편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劇)과 극은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럽의 고성에서 생활하면서 개념적인 현대미술을 창조하는 것은 옛것을 연구해 새로움을 알아가는 동양적인 사고인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을 발현하는 다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고즈넉한 고성에서의 체류는 비단 예술기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술의 향기를 통해 삶의 철학을 성찰하게 해주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글·사진 한상범(미술가)

다빈치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모두 사랑한 이유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왜 그의 모국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터를 잡고 있을까?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존경과 경외로 맞이한 프랑수아 1세는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를 찾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양부



3

1 어부의 성(아르코도 불리)은 마조레 호수 수메리오 성의 전경. 2 벨라 성에 있는 보로메오 궁전에는 회화, 조각과 같은 컬렉션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양의 정원도 분수까지 갖추어 놓았다. 3 루아르의 앙부아즈 성에 딸린 생 위베르 교회에는 다빈치의 유해 일부가 묻혀 있다. 4 프랑스의 국왕 프랑수아 1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곳 클로 루세 성에 머물도록 했다. 5 루아르 강을 따라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꽃피웠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70여 개의 고성인 줄지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6 마조레 호수에 위치한 프리노 성의 내부. 과거 성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지금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다. 7 루아르 강가에 위치한 소몽 성의 아름다운 야경. (임야바린 사진을 찾아서)의 작가 미르셀 프루스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8 시몽스 성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성의 내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비감을 선사한다.

고성을 거닐며 영감을 만나다

북극과 남극, 쿠바 등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시각예술가 한성필 작가가 최근 평온한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적 영감을 담뭍 받는 특별한 유럽 여행을 떠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니스트 헤밍웨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찰스 디킨스 같은 대가들이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 마조레 호수와 프랑스 루아르 고성에 머물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바로 이 미려한 두 곳에서 정교한 교집합을 이룬다는 것을 감지했다.

빙하기 흘러가면서 생긴 호수라고 하면 흔히 스위스를 떠올리지만, 알프스 남쪽에 위치한 이탈리아에도 빙하호가 여럿 있다.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마조레 호수(Lago Maggiore)는 길이가 약 54km, 폭이 약 12km인,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이 호수 북쪽으로는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호수 남서쪽으로는 피에몬테(Piemonte) 주의 네비올로 와인 산지가 자리한다. 경사 급한 산비탈과 수심 깊은 빙하호의 전형적 특징을 보이는 이 지역은 수려한 풍광과 평온한 분위기 덕분에 예전의 정원(Giardin dell'Eden)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세의 헤밍웨이는 1918년 9월 이곳 스트레시의 그랜드 호텔(Grand Hotel des Iles Borromees)에 머물렀고, 10년 뒤 그의 강함과 상상력에 이 영감이 태어났다. 그는 스트레시와 마조레 호수를 "이탈리아 호수 중 가장 이름답다"라고 찬미하면서 몇 번씩 방문했다.

유럽의 숨은 명소, 보로메오 제도
마조레 호수에는 이 지역 출신 추기경으로 호수의 수호자로 여겨진 카를로 보로메오의 이름을 딴 보로메오 제도(Sole Borromee)라고 불리는 여러 섬이 있다. 그중 현재 보로메오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벨라 섬(Isola Bella, 아름다운 섬은 작은 어촌의 비위성에 불과한 곳이었다. 그런데 1632년경 보로메오가 아내를 위해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보로메오 궁전(Palazzo Borromee)을 지으면서 환골탈태했다. 이 유서 깊은 집안은 가문의 딸과 모니코 왕국 그레이스 켈리의 손자가 최근 결혼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피우 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역시 이 섬을 동경했다. 그는 소설 <헨젤과 그레텔>의 판권 사에서 게오르그 멜히오르 크라우스(Georg Melchior Kraus)라는 독일인 화가가 그린 8점의 마조레 호수 수채화 작품을 참고해 글을 썼다고 전해진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마조레 호수 주변에 작은 마을들을 돌보아준 예전 귀족들이 살던 성이나 별장이 지금은 호텔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몇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성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오래된 마을에서 느끼는 특유의 평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유럽의 숨은 명소, 보로메오 제도

이 호반 지역에서도 특히 경치가 빼어난 곳이 스위스의 로카르노(Locarno)와 이탈리아의 스트레시(Stresa)다.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 개최지로도 잘 알려진 로카르노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한 도시다.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조레 호수에 머물면서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담뭍 받았는데, 로카르노의 비스콘테오 성(Castello Visconteo)을 설계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인상 깊게 발현했다. 밀라노에서 스위스 방향으로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호숫가를 따라 가기로 1시간 남짓 여행하다 보면 스트레시에 다다른다. 부유한 스위스와 이탈리아인들의 휴양지로, 아름다운 별장과 화려한 호텔이 자리한 이 도시는 런던부터 베너까지 운행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정착하던 역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Murder on the Orient Express)>과 <007 위기탈발(From Russia with Love)> 등 많은 소설과 영화의 배경지였기 때문인지 더욱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스트레시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의 추억이 배어 있어도 하다. <노인과 바다>가 헤밍웨이가 주로 머물며 영감을 받은 플로리다의 카웨스트와 쿠바를 배경으로 한 단편, <무거워 잘 있거라>는 바로 이곳 스트레시와 마조레 호수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탄생한 작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서 박격포에 부상을 입은 19

다빈치와 헤밍웨이의 창작 원천, 마조레 호수

이 호반 지역에서도 특히 경치가 빼어난 곳이 스위스의 로카르노(Locarno)와 이탈리아의 스트레시(Stresa)다.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 개최지로도 잘 알려진 로카르노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한 도시다.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조레 호수에 머물면서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담뭍 받았는데, 로카르노의 비스콘테오 성(Castello Visconteo)을 설계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인상 깊게 발현했다. 밀라노에서 스위스 방향으로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호숫가를 따라 가기로 1시간 남짓 여행하다 보면 스트레시에 다다른다. 부유한 스위스와 이탈리아인들의 휴양지로, 아름다운 별장과 화려한 호텔이 자리한 이 도시는 런던부터 베너까지 운행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정착하던 역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Murder on the Orient Express)>과 <007 위기탈발(From Russia with Love)> 등 많은 소설과 영화의 배경지였기 때문인지 더욱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스트레시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의 추억이 배어 있어도 하다. <노인과 바다>가 헤밍웨이가 주로 머물며 영감을 받은 플로리다의 카웨스트와 쿠바를 배경으로 한 단편, <무거워 잘 있거라>는 바로 이곳 스트레시와 마조레 호수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탄생한 작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서 박격포에 부상을 입은 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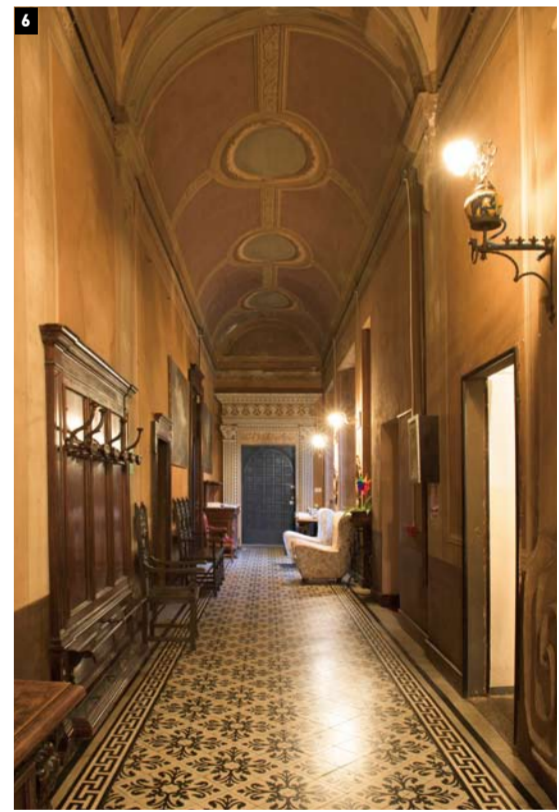
4



5



7



6



8

this is Hot

제주 하도리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디스 이즈 핫'은 리셉션 데스크도 필요 없는 작은 부티크 호텔이지만, 미술관 못지않게 흥미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이곳에서 보내는 휴가는 작은 미술관에서 머무는 듯한 감흥을 선사한다.

하도리는 제주에서 산책하기 가장 좋은 마을 중 하나다. 맑은 날이면 하도해수욕장의 고운 모래사장 건너편으로 우도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철새 도래지와 지리우름이 수려하게 펼쳐져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캄페디니 김장임 화경이 운영하는 아리리오 뮤지엄의 아티스트 레지던스도 하도리에 있을 정도로,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인 마을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도해수욕장 앞에는 초록색 지붕을 인 작은 건물 이 '나 홀로' 서 있다. 주변에는 수확철이 다가온 푸른 당근밭이 펼쳐져 있을 뿐, 그 흔한 인근편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입구에 'This is Hot'이라고 쓰인 팻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건물 안이 더욱 궁금해진다. 이곳은 이미 독특한 공간을 찾는 여행객이나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은근히 입소문이 난 하도리의 보물이다. 디스 이즈 핫에서 만난 정유미 대표는 재주가 고함이라고 했다. 이전에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고안미술장작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추억을 떠올려 고향으로 돌아와 부티크 호텔 콘셉트의 공간을 만들었다. "여러 미술가의 작품을 가득한 스튜디오가 너무 흥미로워서 참대만 있다면 한 달도 더 머무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감동을 되살려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레노베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건축물에 맞는 작품을 고른 것이 아니라, 작품에 맞추어 건물을 재건축할 정도로 정 대표의 열정은 뜨거웠다.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한 9개의 객실을 국내 작가 5명의 작품으로 수놓았다.

최종은 작가의 작품으로 만나는 수평선

간편히 호텔 이름이기도 한 '디스 이즈 핫'은 미술가 최종은의 설치 작품에서 유래했다. 최근에 들어서자마자 아이스 버전의 디스 이즈 핫 작품이 보이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돋이 풍경 앞에 있다가 지구온난화를 연상시키며 동파이브가 드러나게 녹아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최종은 작가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스위트룸인 203호 역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불이 반짝 켜지는 네온 버전의 디스 이즈 핫 작품이 반겨준다. 거실 천장에는 마치 달이 뜬 것 같은 깊은 음영의 조명에 달려 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천장고를 일정 부분 포기했다. '수평선'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이 방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바다가 바라보이는데, 벽 옆면으로 '스톰 온 더 옐로우(A Storm on the Yellow)'가 설치돼 있다. 아무런 정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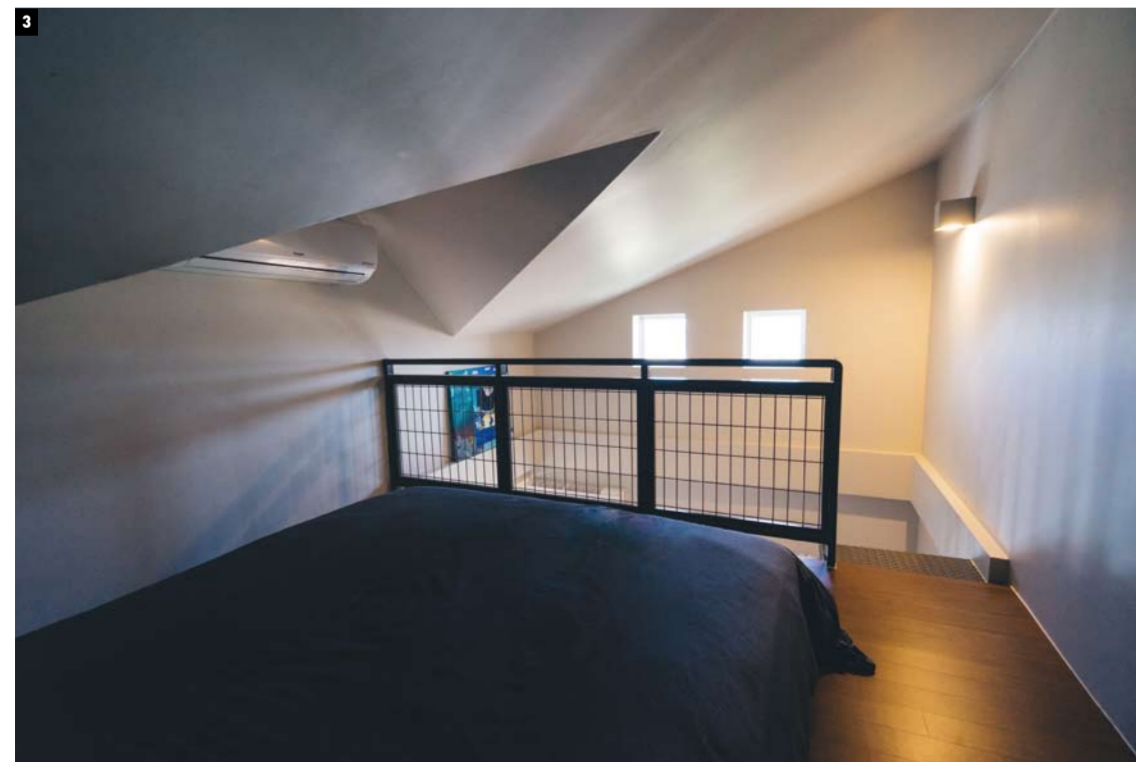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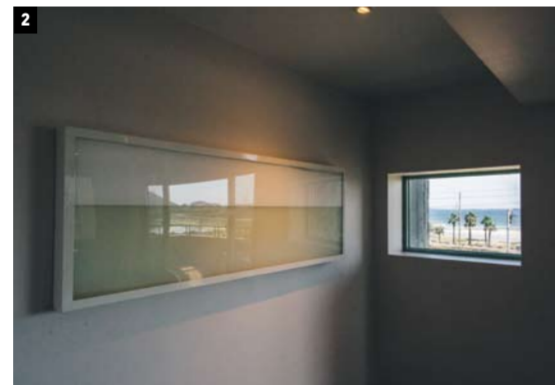
이 가까이 다가간 투숙객은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작품에 센서가 내장돼 있어 사람이 다가가면 갑자기 파도가 일렁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바다를 대립할 수 있는 물질인 배스 폼을 넣어 만들었다. 침실에는 세제와 오일로 만든 작품 '더 씨 고우즈 다운(The Sea Goes Down)'이 걸려 있다. 인공이 만든 오염 물질로 바다를 표현한 발상이 재미있다. 작품 옆 작은 창문과 큰 유리문으로 보이는 수평선이 연이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 방에서는 바다와 작품의 수평선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셈이다.

하도리에 나타난 27개의 UFO

201호에서는 로와정 작가의 드로잉과 조명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로와정은 노오희, 정현석 작가로 구성된 미술가 듀오인데, 벽면의 드로잉 작품 'Uncertain #1'은 본인들의 모습을 투영한 듯해서 흥미롭다. 이 방의 조명 작품 '워너 비 해피 에브리 나잇(Wanna be Happy Every Night)'은 여성과 남성의 체크 패턴 브리프를 만들었는데, 밤에 창대에 누워 맞으면 바다를 바라보면 이 조명이 별처럼 유리문에 투영된다. 102호에는 그래픽이전 기법이 아름다운 김영현 작가의 유화 '클라우드 맵 Cloud Map-p1206'과 작품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인형의자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실제와 가상 공간을 두루 이미지화하는 작가의 작업 방식처럼, 이 객실에서는 현실의 노년형을 잊고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름다운 노을이 보이는 205호에서는 홍정오 작가의 UFO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UFO 조형에 불이 켜지고, 객실에는 하도리에 나타난 27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소재로 한 작품이 걸려 있어 호기심을 북돋운다. 디스 이즈 핫은 이렇듯 객실뿐 아니라 복도와 아침 식사를 위한 공간에도 예술 작품이 곳곳에 숨어 있어 미술 애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심지어 식용 테이블까지 하나의 아트 피스다. 유명 사진가 데이비드 앨런 허버는 이곳에 묵었다가 조식 공간에 있는 최종은 작가의 작품에 반해 이에 구입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여행자들이 편안함을 느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작품 옆에 캡션을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술 작품이란 마치 들꽃 같이 무심결에 지나치면 스쳐 갈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공간, 그것이 디스 이즈 핫의 매력 아닐까. 글 이소영



1 간편히 호텔 이름이기도 한 '디스 이즈 핫'은 미술가 최종은의 설치 작품에서 유래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203호 스위트는 작품 '스톰 온 더 옐로우'와 창문 저편의 수평선이 이어져 매력적이다. 3, 5 북쪽 구조로 이루어진 202호에서는 최백희 작가의 조각과 그림과 그려 그림을 만날 수 있다. 4 홍정오 작가의 이곳 호텔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UFO 시리즈. 오른쪽 작품은 최근에 들어서지만 반짝 불이 켜지는 장면이 재미있다. 6 로와정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201호. 조명 작품 '워너 비 해피 에브리 나잇'은 남녀의 속옷으로 만들어진 미소를 자아낸다.



아트에 작은 설렘을 느끼는 이들에게

현대미술은 어렵고, 작품은 고가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현대미술은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장르이며, 아트 컬렉터도 큰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입문이 망설여지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초보 컬렉터가 작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첫째, 내가 좋아해야 한다. 미술품은 장르가 다양하고 주제나 표현법에 따라 그야말로 다양하다. 처음 구매할 때 범하는 오류는 남의 권유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내 취향과 다른 작품을 구매하면 작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곧 실증이 나고 집에 걸어놓고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처분할 기회도 노리게 된다.

둘째, 예산 규모를 명확히 하라. 처음 작품을 구매할 때는 보통 본인의 연 수익의 10% 이하, 혹은 5백만원 이하의 작품을 고를 것을 권한다. 비교적 가격이 낮은 판화 작품이나 사진 같은 멀티플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같은 작가의 비슷해 보이는 작품이라도 가격을 꼼꼼히 체크하라.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제작 시기나 재질, 그리고 주제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을 꼭 확인한다.

넷째, 작품의 현재 '외모'도 따져야 한다. 작품의 컨디션도 중요한 포인트다. 아무리 뛰어난 수작이라 해도 작품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의 첫 번째 소장작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47억2천만원! 지난 10월 홍콩에서 열린 제16회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낙찰된 김환기 작가의 작품 가격이다. 이로써 기존의 국내 작가 낙찰 최고가인 박수근 작가의 45억2천만원의 기록이 깨졌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미술품 가격이 낮은 국내 작가의 작품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이길래 한 점에 47억2천만원이나 할까?'라는 호기심 어린 반응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테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소장의 꿈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 한다. 하지만 미술품 소장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고, 무조건 비싼 작품만 노릴 필요도 없다.

현대미술은 건물생생이다

"오랜만에 미술관에 들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쩌면 이것이 현대미술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근대 이전의 미술 작품은 사실의 묘사가 주를 이뤘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 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다르다. 작가의 행위에 대한 주목, 작가의 사고 혹은 의도 등 먼저 이해해야 할 사항이 산재한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작가가 아닌 이상 작가의 창작 의도를 100% 알 수 없으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나 도록을 찾아볼 것을 권하고 싶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들의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가 이름만 검색해보도 작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작품에 대한 설명, 개인적 평가까지 읽어보며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를 넘나들다 보면 나와 작가의 사이를 좁힐 수 있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작품을 많이 봐야 비로소 눈이 뜨인다. 한국 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공립 미술관을 추천한다.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다채로운 작품을 보고 싶다면 간송미술관이나 리움 같은 사립 미술관도 좋다. 크고 작은 갤러리가 모여 있는 삼청동이나 청담동도 좋은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덧 갖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장가와 아트 딜러도 그 시작은 모두 한 점의 그림에서 비롯됐다. 생애 첫 소장품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 훨씬 좋다. 이를테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작품을 골라 내 생애 첫 소장품으로 삼고, 아이가 크는 동안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Christie's Images LTD, 2007

경매 회사의 프리뷰가 매력적인 이유

미술품은 주로 갤러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갤러리는 작가와 계약을 맺고 작가와 정한 가격 기준에 맞춰 판매가를 결정한다. 작품을 처음 선보인다는 의미에서 1차 시장이라 불린다. 개인이 소장하던 작품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경우라면 대개 경매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경매 시장이 2차 시

장인 셈이다. 미술품 경매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영역이다. 공산품과는 달리 수량이 한정된 미술품의 특성상 가장 합리적인 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옥션의 경우, 연간 4회의 메인 경매와 3회의 해외 경매(홍콩), 그리고 다수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 회사는 경매 전 '프리뷰'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는데, 누구에게나 열린 전시회나 다름없어 추천할 만하다. 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방문해 안목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시장이다 보니 트렌드에 강해 요즘 '핫하다'는 작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매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작품의 수준이 높아프리뷰 방문이 큰 미술관 방문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분야별 스페셜리스트들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니 조금씩 과외나 다름이 없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붐을 등에 업고 미술품 경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적으로 미술품 온라인 경매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경매에 출품된 중저가 작품도 노려볼 만하다. 작가의 작품을 한정된 에디션을 가지고 디지털 판화로 제작해 판매하는 브랜드 '프린트베이커'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나도 미술품에 투자해볼까?

아트 테크라는 말이 있다. 미술품을 칭하는 '아트'와 '테크'의 테크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미술품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 단색화의 유행에 힘입어 투자 성공 사례로 박서보의 작품이 자주 언급된다. 박서보의 작품 중 '묘법 No.3-82'는 지난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7억2500만원에 팔리면서 그의 작품 중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작품은 2년 전인 2013년 가을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6천4백만원에 낙찰된 작품인데, 2년 새 11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작품 소장자의 단순 수익률이 약 1,000%인 셈이다. 실제로 미술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가 많다. 해외는 미술 시장의 역사와 미술품 투자의 인식도 깊은 데다가, 그 단위와 규모도 무척 커서 미술품 투자가 활성화돼 있다. 미술 교과서에서 보던 피카소의 작품 '알제리의 여인들'이 올해 1억7천9백만달러(한화 약 2천억 원)에 거래돼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술 시장과의 격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단지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소장도 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투자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젠가 투자의 경지에 이를 미래의 컬렉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비는 반드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술품은 최고의 현물 투자처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미술은 우리의 삶에 작은 설렘과 운기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또 영민함과 운을 겸비했다면 물질적으로도, 글 소옥영(서울옥션 미술품경매팀 총괄)



미술 애호가를 위한 아름다운 특권

문화의 최전방 트렌드를 접하고 싶다면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다. 이는 사람만 안다는 미술관과 갤러리의 특급 강의와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예술과 문화에 관련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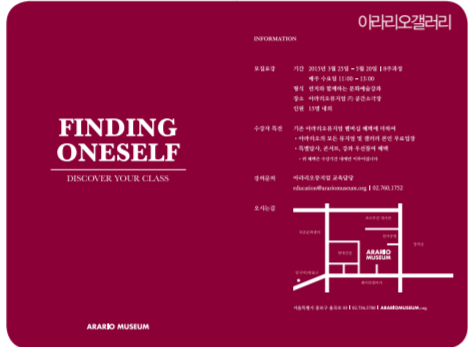
가나아트센터와 서울옥션의 조우

서울옥션은 '문화 예찬'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애호가를 위한 심화 아카데미를 개설해 한 달에 4회 강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조적 사고를 위한 10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10가지 분야의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강의를 인기였다. 그간 이태호 교수의 '고미술', 미술가 배병우·이명호의 '사진, 승효상·김봉철 건축가의 '건축 강좌를 열었고, 11월과 12월에는 권영걸 사장의 '디자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하정웅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안병광 유니온약품 회장의 '미술품 컬렉터 이야기' 강의가 이어진다.



가나아트센터

2005년부터 계속되어온 서울옥션 CEO 조찬 포럼 가나문화포럼도 각 분야 리더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대기업 이사급 이상, 중소기업 CEO, 정부 기관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서울옥션 경매 참관과 아트 페어 투어 등을 별도 진행하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이나 있다. 매년 2회 개최하며, 현재 21기 가을 학기가 진행 중이다. 22기 봄 학기는 2016년 3월 17일에 개강한다. 이외에 매년 1월과 7월에 아티스트 토크를 각 6명의 작가와 함께 진행하는데, 이번 여름 토크에서는 미술가 구본창, 사석원, 박항률, 이홍백, 이동기, 이수경 작가가 참석했다(www.seoulauction.com).



아라리오갤러리

갤러리와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해주는 멤버십 프로그램도 추천할 만하다. 가나아트센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시 무료입장(4인 가족 기준)과 아트 쇼프·레스토랑·아카데미 수강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준다. 회원뿐 아니라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www.ganaart.com).



대림미술관

아라리오갤러리와 아라리오 뮤지엄의 선택

아라리오갤러리에선 새로운 전시를 개최할 때마다 개별 그룹으로 도슨트 투어, 아티스트 토크를 시행하고 있다. 전시에 따라 주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시 개막 시 소그룹 신청이 가능하다.

아라리오 뮤지엄의 고급 문화 예술 강좌 'A. CLASS'는 2016년에 현대미술에서 주요한 위치를 선점한 작품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을 꿰뚫는 통찰을 각계 명사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15명기량의 소규모 강좌로, 주 1회씩, 총 10회의 커리큘럼. 3개월간 디너를 겸하는 이 강좌는 예술적 사야를 넓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화 예술 강좌 'Finding Oneself'는 예술 작품을 눈과 마음으로 느끼며 나를 찾아가는 시간과 과정을 제안한다. 2016년 3기에서는 'Design Dive'란 주제를 통해 삶에 밀접한 디자인을 다각도로 조명해 디자인과 예술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아라리오 뮤지엄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해마다 주제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미술뿐 아니라 예술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2015년에는 '各行各색, 독일 미술관 여행'을 통해 '보존과 창조에 맞닿은 곳을 여행했고, 2016년에 진행할 '이탈리아 여행'은 세계적 디자이너의 스튜디오뿐 아니라 이탈리아 디자인 명소 곳곳을 누리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www.arariomuseum.org).

삼성미술관 리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특급 프로그램

삼성미술관 리움의 금요 정기 강좌 리움 아트 클래스는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건축, 음악, 디자인 등 다채로운 강의의

제공한다. 올해는 클래식 음악 강연과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더 흥미로웠다. 2015년 하반기 강좌는 11월에 마무리됐는데, 장일범 음악 평론가와 정준호 칼럼니스트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호평받았다. 2016년 상반기 강좌는 미장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리움에서는 소장 작가와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개설한 '리움 들어서기도 운영하는데, 12월 19일에는 '곽준영 책임연구원의 <장소양강 - 중국 현대미술의 빛과 그림자> 강좌를 연다(www.leeum.org).

서울시립미술관은 사단법인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SeMA'를 운영하고 있다. 후원금에 따라 멤버십, 패트론, 메세나 등으로 나뉜다. 멤버십 특별 회원의 경우, SeMA 소식지와 캘린더, 유료 전시 초대권 전시별 2매, 미술관 자료실 도서 무료 대여, 전시 도록 제공과 오프닝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무료 가입할 수 있는 SeMA 패밀리는 e뉴스와 e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 미술관 나들이가 한결 즐거워질 것 같다(sema.seoul.go.kr).

국립현대미술관과 KF의 흥미로운 콘텐츠

국립현대미술관은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나뉘는 유료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특별 회원은 1년간 3개 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큐레이터와의 만남, 올해의 작가와의 만남,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회원 자녀 미술 학교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 전시 개막식에 초대되고, 서울관 멤버십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다(동반 1인). 특히 8~12주의 연차식 강좌인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는 80% 이상 출석하면 국립현대미술관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기도 한다(www.mma.go.kr).

국내 거주 외국인 1백75만 명 시대,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KF 투게더'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KF에서는 매년 주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우리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무료 강좌를 운영한다. 주한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은 강좌는 KF 테마 답사, 한국 전통문화 강습 등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실과 한국 문화 교실, KF 필름, 청계천세계음악축제 공연 등이다(www.kf.or.kr).

다양한 체험의 장, 대림미술관과 일민미술관의 강좌

일민미술관에서는 12월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강연 시리즈 '역자 후기(Translator's Note)'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대 미술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적의 번역자들을 초청해 직접 책 내용을 들음으로써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강연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디자인, 큐레토리얼, 시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룬다(www.ilmin.org).

대림미술관 역시 12월까지 열리는 <헨리 뫼스코브> 전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대표 프로그램 'D PASS(매주 토요일)', 'Good Night(매주 목요일)'을 운영한다. 대림미술관 온라인 회원이 되면 입장료가 20% 할인되며, 이벤트에 초대받을 수 있다. 또 D 멤버십(유료)에 가입하면 대림미술관과 새로 개관하는 D 뮤지엄 전시를 모두 관람할 수 있고, D카페 아메리카노와 D PASS(매주 토요일), Good Night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www.daelimmuseum.org). **클 이영**

SHOWROOM

FASHION



더 캐시미어 폴로버 캐시미어 니트 더 캐시미어는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폴로버 캐시미어 니트를 제안한다. 이탈리아 캐시미어 원사를 100% 사용해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사하며, 소매 끝에 잘게를 넣어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넉넉한 핏과 배아한 디자인으로 활용성이 뛰어나다. 37지 컬러로 출시되며,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직영 매장인 충담 에비뉴점 등 9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16-4397



피비아나 필리피 퍼 토트백 피비아나 필리피는 겨울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퍼 토트백을 선보인다. 스카족에 밍크, 폭스, 램 등 풍성한 퍼를 패치워크로 장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각각의 퍼가 자닌 컬러의 조화가 자연스럽고, 최고급 퍼의 광택감으로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퍼 토트백은 갤러리백화점 명품관 EAST,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626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 모바일 앱 루이비통은 25개 도시 단행본으로 구성된 2016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북 출판을 기념해 이를 담아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는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부터 숨겨진 골동품 가게와 맛집까지 각 도시에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 코스, 문화 이벤트와 도시 생활을 담은 스냅 샷, 해당 장소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 등도 함께 제공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구성되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12월 31일까지 파리 편 볼 버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반클리프 아펠 엑스트라오디네리 다이얼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미니어처 페터 아트와 스톤 세팅 기술로 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엑스트라오디네리 다이얼 컬렉션을 선보인다. 핸드 와인딩 매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한 22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에는 스톤 마키트리 기법으로 행운과 사랑을 상징하는 새의 모습들이 장식되어 있다. 실제 깃털을 사용해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다이얼에 담았다. 진홍색, 남색, 하늘색 등 37지 컬러로 구성된다. 문의 00798-852-16123

리도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 리도는 전매특허 공장으로 탄생한 신소재를 사용한 여성용 시계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를 제안한다.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에 열을 가해 메탈 컬러의 물결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 베젤 위 56개의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문의 031-5170-3104

디올 하이 주얼리 & 타일핀스 가르네 프레젠테이션 디올은 새롭게 오픈한 하우스 오브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유니크한 하이 주얼리와 타일핀스를 선보였다. 1945년 S/S 쿠티르 컬렉션에서 영감



을 받은 아쉬 디올 컬렉션부터 장미를 모티브로 한 로즈 디올 바젤 컬렉션, 컬러 팔레트의 다채로움을 담아낸 세어 디올 등 크리스탈 디올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담은 상징적인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의 02-513-0300

바카라 메종 바카라 서울 오픈 바카라는 아시아 최초의 메종을 서울 남산에 오픈한다. 1764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최상의 크리스탈 공예 제품을 선보여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메종 서울 남산은 실내 건축가 전 사형이 디자인한 외관과 서울 성곽이 어우러져 2백50년의 역사와 현대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바카라의 정신을 드러낸다. 12월 3일 오픈을 기념해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특별 주문한 스타린딩 상들리에를 전시한다. 건물은 5층으로 구성되어 상들리예, 테이블 웨어, 베이스, 그리고 화려한 주얼리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8-3778



바카라

휘슬러코리아 1845 오리지널 에디션 휘슬러코리아는 1백70년의 역사를 담은 디자인 에디션 '1845 오리지널 에디션'을 출시한다. 입력술 결면에 휘슬러의 브랜드명과 청량한 해인 1845년의 숫자를 화이트 직인 패턴으로 표현했다. 창립 연도를 기념해 매해 1천원(45)의 제품을 한정 판매하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에서만 단독 출시한다. 2.5L, 4.5L 27지 용량으로 출시되며 전국 휘슬러 매장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8-0266



도무스디자인 마르미 트라버티노 식탁 도무스디자인 11월을 맞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마르미(MARMI) 트라버티노 식탁을 추천한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손꼽히는 로만 트라버티노 천연석 상판과 브라운 컬러 오크 무늬목 소재 다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매장방이 한정된 천연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무늬가 달라 소장 가치가 높다. 런칭 10주년을 기념해 6인용 식탁을 2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문의 1566-5629



LIVING

포르세코리아 카이팬 블랙 에디션 포르세코리아는 뛰어난 블랙 컬러가 돋보이는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카이팬 블랙 에디션을 국내에 출시한다. 2백75마력 2.7L 수평방향 엔진을 장착한 미드 엔진 쿠퍼로 202회 커리어 클래식 힐, 포르세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을 적용한 바이저는 헤드라이트를 눈길로 사로잡는다. 옵션 사양으로 알루미늄 사이드 윈도우 트림이 있다. 검은색 외관과 함께 실내에 일부 사용한 검은색 가죽의 조화가 멋스러운 스포티함을 선사한다. 문의 02-2055-9134

리미 조이 화이트 스페셜 에디션 리미는 블랙과 알루미늄 컬러로 출시된 조이 제품을 재해석한 '조이 화이트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 2015년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캘리그래피용 인민필로 무드러운 필기감을 선사하며, 여러 가지 개성 넘치는 사체를 표현하기 적합한 하도록 고안되었다. 1.1·1.5·1.9mm 등 다양한 종류의 펜촉과 함께 37지 컬러의 인크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11월부터 광화문 교보 등 리미 매장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2-2192-9661



이안아트컨설팅

이안아트컨설팅 아트 클래스 이안아트컨설팅은 2016년 '뮤지엄과 크로스'라는 27지 주제로 다양한 아트 클래스를 펼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프랑스 문화와 예술', 4월부터 5월까지 '탈 타티스트' 강령과 취향이라는 화요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일은 미술사 배시너 수



리미



Desirable Perlée Collection
Bracelets, yellow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